정책보고서 2011-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연구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연구』 .

2011년 12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머리말

. 1955 1963

2010

, 2020 65

.

‘ ’

.

2020

.

,

.

14.6%

. 11.3% .

.

. . .

,

.

.

.

.

. 2011

2 (2011~2015)

65

.

.

.

.

.

.

.

.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목 차

Contents

요약 ····· 3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2

제2장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 17

개최를 통한 정책수립 방향 모색 ····· 17

제1절 개요 ····· 17

제2절 주요 내용 ····· 20

제3장 베이비 붐 세대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심층 연구 ····· 67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 욕구 및 대응 전략 ····· 67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소득불평등 장기 전망 ····· 125

제4장 영역별 현황 및 정책과제 ····· 185

제1절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185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 211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234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 253

제5절 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276

제6절 베이비 부머의 적절한 노년기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 ····· 291

제7절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 310

제5장 종합 ····· 337

부록 1 포럼 위원 명단 ····· 360

표 목차

<표 2-1>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차수별 주제 및 프로그램 ····· 18
<표 3-1> 사례연구 참여자의 제특성 ····· 70
<표 3-2>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72
<표 3-3> 세대별 하루 평균여가시간, 희망 여가시간 ····· 73
<표 3-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평균 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 73
<표 3-5>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별 평균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 74
<표 3-6> 베이비 부머의 소득 수준별 평균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 74
<표 3-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 시간에 대한 생각 ····· 75
<표 3-8> 베이비 부머의 소득 수준별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 75
<표 3-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월 평균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 76
<표 3-10>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월 평균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 77
<표 3-11> 베이비 부머의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77
<표 3-12> 베이비 부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8
<표 3-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활동 목적 ····· 79
<표 3-14> 세대별 여가활동목적 ····· 80
<표 3-15> 베이비 부머의 제 특성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 83
<표 3-16> 세대별 여가시간활용 생각,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 84
<표 3-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향후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생각 ····· 85
<표 3-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재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 86
<표 3-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 87
<표 3-20> 세부 여가활동(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종합 집계 및 1순위 빈도 및 비율) 88
<표 3-21> 여가유형별 가장 하고 싶은 구체적인 여가활동(문화예술, 스포츠, 관광활동) 90
<표 3-22> 여가유형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취미오락,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 91
<표 3-23> 베이비 부머의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 비교 및 특성 ····· 93
<표 3-24> 베이비 부머의 성별에 따른 현재 및 희망 여가활동비교 ····· 96

Contents

<표 3-25> 세대별 현재 여가활동 비교 ····· 98
<표 3-26> 세대별 희망 여가활동 비교 ····· 98
<표 3-27> 세대별 여가동반자 비교 ····· 101
<표 3-28> 베이비 부머세대의 여가활동 패턴 유형 ····· 104
<표 3-29> 세대별 여가활동 패턴 유형 비교 ····· 105
<표 3-30> 베이비 부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활동 패턴 유형 비교 ····· 106
<표 3-31> 여가활동 패턴 별 여가시간, 여가비용 비교 ····· 107
<표 3-32> 여가활동 패턴 별 여가목적, 참여경로, 동반자, 활동빈도 비교 ····· 107
<표 3-33> 여가활동 선택패턴에 따른 여가인식 및 만족도, 행복수준 비교 ····· 108
<표 3-34> 여가활동 선택패턴 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 109
<표 3-35> 여가활동 패턴 별 동호회 활동 ····· 109
<표 3-36> 동호회 활동 참여여부 ····· 110
<표 3-37> 동호회의 주요 활동 ····· 110
<표 3-38> 참여 동호회 수 ····· 111
<표 3-39> 동호회 참여빈도 ····· 111
<표 3-40>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소속 ····· 112
<표 3-41>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 ····· 113
<표 3-42> 세대별 시설 분류에 따른 이용여가기관(시설) 및 희망여가기관(시설) 115
<표 3-44> 연도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 145
<표 3-45>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1991~2010 ····· 147
<표 3-46> 연도별, 연령별 가구총소득의 지니계수 ····· 148
<표 3-47> 출생동류집단의 연령별 지니계수 ····· 149
<표 3-48> 연도별 총소득 및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분해결과 ····· 153
<표 3-49> 연령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 155
<표 3-50> 연령별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비중 변화 ····· 156
<표 3-51> 출생 동류집단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 167
<표 3-52> 출생 동류집단별 요소소득의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변화 ····· 168

<표 3-53> 총소득과 요소소득의 불평등과 비중의 장기 전망 ····· 171
<표 3-54> 연령별 총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3
<표 4-1> 중년층 취업자의 직업 변화 ····· 188
<표 4-2> 베이비 부머의 현업에 대한 태도 ····· 190
<표 4-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 190
<표 4-4> 주된 일자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규모(2010년 말 기준) ····· 191
<표 4-5>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적 ····· 194
<표 4-6>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 실적 ····· 195
<표 4-7>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상자 비교 ····· 196
<표 4-8> 국외 고령자 재취업 및 사회참여 사례 ····· 200
<표 4-9> 베이비 부머의 소득 및 자산 실태 ····· 235
<표 4-10> 베이비 부머의 10년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 ····· 235
<표 4-11> 베이비 부머의 공적 및 사적 연금 가입 실태 ····· 236
<표 4-12> 베이비 부머의 노후 준비 연금 가입 현황 ····· 237
<표 4-13> 베이비 부머의 다층적 노후소득준비 실태 ····· 237
<표 4-14>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생활실천행위 ····· 255
<표 4-15> 중·장년층의 비만: 45~49세 연령층 ····· 256
<표 4-16>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 ····· 257
<표 4-17>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 내용 ·· 259
<표 4-18> 베이비 부머의 소득계층별 PIR, RIR 현황 ····· 278
<표 4-19> 베이비 부머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 279
<표 4-21> 생애주기별 현재 주택정책의 개요 ····· 283
<표 4-22> 민간영역의 노후설계 프로그램 사례 현황 ····· 295
<표 4-23>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적 ····· 296
<표 4-24>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상담서비스의 연령대별 주요 이슈 및 주요 상담 내용 ····· 298
<표 4-25>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의 장단점 비교 ····· 301

<표 4-26> 고령친화산업 정책 추진 과정 ····· 314
<표 4-27>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관련 유망산업 ····· 325
<표 5-1>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역별 정책과제 ····· 33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진행틀 ····· 13
[그림 3-1] 연구 모형도 ····· 69
[그림 3-2] 여가시설유형 구분(민간영역 vs. 공공영역 & 지역사회 안 vs. 지역사회 밖) 114
[그림 3-3]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 여가 시설에 따른 IPA 분석 117
[그림 3-4] 예비노인 세대의 현재 이용 및 희망이용 여가시설에 따른 IPA분석 ····· 118
[그림 3-5]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변화경향 ····· 146
[그림 3-6]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변화 경향 ····· 148
[그림 3-7] 출생코호트별 지니계수 변화 ····· 149
[그림 3-8]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경향 ····· 151
[그림 3-9] 요소소득의 비중 변화 경향 ····· 152
[그림 3-10] 출생 코호트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 ····· 158
[그림 3-11] 출생 코호트별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 159
[그림 3-12] 출생 코호트별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 ····· 160
[그림 3-13] 출생 코호트별 사업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 160
[그림 3-14] 출생 코호트별 재산소득의 불평등 변화 ····· 161
[그림 3-15] 출생 코호트별 사업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 162
[그림 3-16] 출생 코호트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 163
[그림 3-17] 출생 코호트별 공적이전 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 164
[그림 3-18] 출생 코호트별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 164
[그림 3-19] 출생 코호트별 사적이전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 165
[그림 3-20] 출생 코호트별 기타 소득의 불평등 변화 ····· 166
[그림 3-21] 출생 코호트별 기타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 167
[그림 3-22] 총소득과 요소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0
[그림 3-23] 요소소득의 비중의 장기 전망 ····· 171
[그림 3-21] 연령별 총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3

Contents

[그림 3-25] 연령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4
[그림 3-26] 연령별 사업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4
[그림 3-27] 연령별 재산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5
[그림 3-28] 연령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6
[그림 3-29] 연령별 사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6
[그림 3-30] 연령별 기타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177
[그림 4-1] OECD 국가의 고령자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1986, 1996, 2006년 ·· 186
[그림 4-2] OECD 국가의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86, 1996, 2006년 ····· 186
[그림 4-3] 출생연도별 생애 주된 직장 시작 연령 ····· 187
[그림 4-4] 45세에서의 생애 주된 직장 생존율 ····· 187
[그림 4-5] 중고령층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상태 ····· 189
[그림 4-6] 가칭 '중앙진로전환센터'와 '지역진로전환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205
[그림 4-7]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연계체제 ····· 207
[그림 4-8]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211
[그림 4-9] 베이비 부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모형 ····· 225
[그림 4-10] 지방자치제 중심의 시니어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형도 ····· 228
[그림 4-11]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34
[그림 4-12]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 238
[그림 4-13]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252
[그림 4-14] 베이비붐세대의 흡연실태(2010, %) ····· 253
[그림 4-15] 베이비붐세대의 다양한 식품섭취 유지경향(2010, %) ····· 255
[그림 4-16] Health Plan 2020의 기본 틀 ····· 261
[그림 4-17] 보건소 중심 국가건강관리체계도 ····· 264
[그림 4-18] 건강증진이 통합된 만성질환관리 확장 모형 ····· 267
[그림 4-19] 「건강일본 21」 과제 선정의 틀 ····· 270
[그림 4-20]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 276
[그림 4-21] 베이비붐세대의 연도별 주거소비 추세 ····· 282

[그림 4-22]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291
[그림 4-23]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의 서비스 개요 ····· 296
[그림 4-24]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306
[그림 4-25]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 308
[그림 4-26]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309
[그림 4-27]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 310
[그림 4-28]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 333

Abstract

Policy Response to the Retirement and Ageing of Baby Boomers

Korean baby boomers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as they lived through rapid socioeconomic changes in their early years. Taking up 14.6% of the Korean population, the baby boomers outnumber the current elderly population. In addition, because the baby boomers are by definition in their 40s and 50s, policy response to their ageing is very important for both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society as a whole.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reports the issues addressed at the 'Forum for the Future of Baby Boomers.' Held in a series of 11 meetings, each session of the forum was composed of presentation of 2 papers, discussion from 4 designated discussants and from the floor. Main findings and issues discussed throughout the forum are summarized in term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social participation", "income security in later life", "health policy", "housing policy", "life planning services", "elder-friendly industry activation". Each subject area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4 parts: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current profiles of the related policies, case studi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policy direction and measures.

Second part is composed of 2 research papers. The first concerns the leisure activities of baby boomers. Based on the data analysis of the leisure

activities and interviews of baby boomers, this part suggests policy measures to help them meet their needs for active ageing.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data, the second paper presents up-to-date profiles of income inequalities across different age-groups and a prospect of income inequality among Korean baby boomers in their later life.

요약

1. 연구 목적

□ .

.

□ .

○ 『 』 .

○

○

○

□ 「 」 2011 1 27 1 2011 12 16 11 11 .

□

○

— .

○

—

.

—

.

○ ,

,

.

○

.

—

.

□

.

<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역별 정책과제

영역	기본방향	정책과제
경제 활동	▪ 다양한 고용상태 및 직업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 ▪ 고용촉진방안과 근로능력 제공방안의 동시 지향	▪ 고용연장과 정년보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확대 ▪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전진적 퇴직제도 적용 ▪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 제조업의 고령친화성 제고 ▪ 자영성 지속성 제고 및 창업지원 ▪ 베이비 부머 개인 차원의 노력 경주
사회 참여 활동	▪ 베이비 부버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 여가활동-자원봉사활동-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결합하는 통합적 모델 지향 ▪ 참여자가 주축이 되는bottom-up접근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 사회전반의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	▪ 다양한 인식과 동기에 대응한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및 여가활동 활성화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특성에 대응한 맞춤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관련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 ▪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 여가인식의 강화 ▪ 여가활동 비용 부담 완환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안정적인 노후 소득	▪ 베이비 부머의 노동형태 변화 및 성역할 변화의 반영 ▪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체도와의 정합성 제고 ▪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균형 지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구체화 ▪ 퇴직금의 노후소득으로의 활용도 제고 ▪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축소 ▪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건강한 노후 생활	▪ 보건의료 시스템의 예방중심 체계로 전환 ▪ 공공보건사업의 보편화 ▪ 건강검진의 내실화	▪ 집단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활성화 ▪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적 강화 ▪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강화 ▪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계획의 구체화 ▪ 건강증진과 예방이 통합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구축

주거 안정	▪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특화된 정책 마련 ▪ 보유주택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주거정책공백기간인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 마련 ▪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 주택의 활용방안 다양화 ▪ 주택연금의 내실화
노후 설계	▪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 반영 ▪ 서비스의 형평성 구현 ▪ 서비스의 포괄성 제고 ▪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노후설계 컨텐츠 개발 ▪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전 국민의 노후설계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단체계 구축 ▪ 베이비 부머를 위해 특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고령 친화 산업	▪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의 균형 ▪ 베이비 부머의 은퇴기와 고령화 시기로 나누어 접근 ▪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체계적 장기발전 전략 마련 ▪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수립	▪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

□ .

.

○ .

— 3.68

6.56 .

○

.

— 1 30

,

.

○ .

—

.

○

, (22 2) (13
) 9 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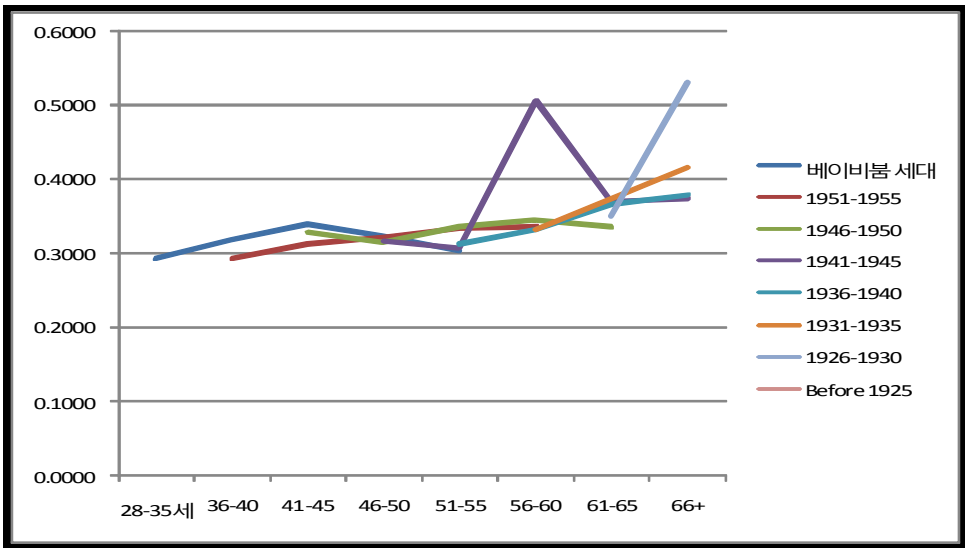
.

○ .
–
(period effect)
(ageing effect)
.
– 3.24(5 ; 5:
, 1:) .
• (53.8%) ,
(41.6) .
•
.
○
.
○
.
□ 「 」 1991~2010 (20) 2
.
○ 56
55
.
○ ,
.

— 28 45

55 .

[그림] 출생코호트별 지니계수 변화



○

—

.

—

.

○

— .

• 2001

2006 2010

.

○

—

.

-

, , 1946-1950

,

.

- 1941-1945

, IMF .

○

— .

—

.

○

—

.

-

○ 2001

, .

KIHASA

01

서 론

제1장 서 론

제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955 1963

2010

, 2020 65

.

‘ ’

.

2020

.

,

.

14.6%

. 11.3% .

.

. . .

,

.

.

.

. 2011

2 (2011~2015)

65

.

(, 2010;

, 2011).

.

.

.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고

용기회 제고,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건강한 노후생활, 주거의 안정, 적절한 노년기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고 있다(1-1).

,『 』

. ,

. ,

. ,

.

[그림 1-1] 연구진행틀

연구목적
•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제고 및 방안모색
•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응 능력 제고 방안 모색
연구방법
• 베이비 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교환 및 공론화
• 관련 자료조사 재분석 및 사례조사
• 해외사례 통한 자료수집
•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연구 내용
• 베이비 부머의 고용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베이비 부머의 적절한 노년기설계를 위한 서비스제공 방안
•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02

KIHASA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수립 방향 모색

제2장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수립 방향 모색

2010 12 22 「 」 [1].

제1절 개요

「 」 . 「 」 , , . 「 」 . 「 」 , .

1) . 1~3 , 4~11 .

. ,

, , 21 (1

).

「 」 2011 1 1 27 1 2011

12 16 11 11 .

< 2-1> .

(evidence-based)

.

<표 2-1>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차수별 주제 및 프로그램

날짜	주제	토론자
1차	좌장 : 좌장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 베이비 붐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복지욕구 (정경희, 보사연)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송양민 (가천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2차	주제 : 한국의 베이비붐세대 패널 연구결과 발표 - 베이비 부머 연구 심포지엄 베이비 부머의 코호트적 특성, 일과 은퇴 (한경혜, 서울대) 베이비 부머의 재무상황과 재무준비 (최현자, 주소현) 베이비 부머의 가치관 (은기수, 서울대) 베이비 부머의 가족 (이정화 , 전남대) 베이비 부머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 미국의 베이비 부머이슈와 과제(John N. Migliaccio,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Metlife MMI, John N. Migliaccio,)	김혜진 (보건복지부고령사회정책과장) 여정성 (소비자학회장)
3차	주제 : 베이비붐세대의 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개선 방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홍백의, 서울대)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박능후 (경기대)
4차 4월29일	좌장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1.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부문 실태와 정책과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이금룡, 상명대)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보건경영학과 교수) 송양민 (가천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정진경 (광운대학교 행정학과교수)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장)

5차 5월30일	좌장 : 조원권 (우송대학교 부총장) 주제 :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1.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노인종합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류재룡, 한국노인복지관협회) 3.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국민연금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 (이여규,국민연금공단 차장)	강 인 (서울 사이버대 교수) 공상길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장)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한은주 (화성건강가정지원센터장)
6차 6월21일	좌 장 :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제 :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1. 베이비 부머의 노동시장 참여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 명지대)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진로 전환 인식 실태 및 지원 체제 개선 방안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백은순 (평생교육진흥원) 이성식 (대한상공회의소)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7차 9월2일	좌장 :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 : 베이비 부머의 가족변화와 정책과제 1. 베이비 부머 가족에 대한 이해 (한경혜, 서울대) 2. 타 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 붐 세대의 가족특성 (정순둘, 이화여대)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양학부교수)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소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8차 9월30일	좌장 : 김수영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주제 :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 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장석인, 산업연구원) 2.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천현숙, 국토연구원)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박영란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부교수) 서창진 (한양대학교경영학부교수) 이견직 (한림대학교의료경영학과교수)
9차 10월28일	좌장 :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주제 : 베이비 붐 세대의 여가문화활동 욕구 및 대응전략 모색 1.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 욕구 및 대응전략 (이금룡, 상명대) 2.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 (권중돈, 목원대)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회장) 조동기 (동국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최윤식 (아시아미래연구소장)
10차 11월25일	좌장 : 방하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 베이비 부머 인력의 인력활용 전략 모색 1. 베이비 부머의 인적자원 특성 및 활용 방안 (이소정, 보사연) 2.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 소개 및 사례발표 (서의동,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김창규 (한국시니어클럽회장) 민현주 (경기대학교)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11차 12월16일	좌장 : 송양민(가천대 보건복지대학원장) 주제 :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전략 모색 1. 베이비 부머의 은퇴후 생활 지원 모델 모색 (박영란, 강남대) 2. 베이비 부머의 소득불평등 장기전망 (홍백의, 서울대)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손병돈 (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제2절 주요 내용

1. 1차 포럼: 베이비 붐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1

.

.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부머의 라이프스타일 및 복지욕구(발표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27 50 1,022 「

」 .

2010 7 ~8 200

, , , , ,

, , .

.

,

.

. ,

.

,

, ,

2

2)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발표자: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 .

,

.

.

나. 주요 토론내용

.

.

.

, ,

.

.

,

.

2. 2차 포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패널 연구결과 발표 - 베이비 부머 연구 심포지엄

2 1

「

」 .「

」

. 2

, .

) , (,)
) (,)
) (,)
) (,)
) (,)
) (John N. Migliaccio,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가. 주요 발표내용

,

,

,

.

,

.

.

2010 .
2010 1 , 4,668

, , , , , , ,
7 .

, (100
57.6), . ,

172 . 10 8

, 85%,

69% .

27% . ,

3/4 ,

1/5 . 42%

, 6% ,

82% , 15%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3 .

나. 주요 토론내용

. . . . .

. 7

.

.

2010 3 ‘ ’

, “ 2

” 36

.(① ② ③

④)

2010 .

21 『 』 .

‘ ’

.

713 15%,

683 5%, 7,585

25% .

.

,

,

.

, .

.

3. 3차 포럼: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보장 방안

3

.

.

가. 주요 발표내용

1)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개선방안(발표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0 , ,

, , .

, .

, 2008

. ,

,

.

,

.

.

2008

70 (2078) 90 (2100)

20 .

.

,

.

,

,

,

• ,

.

28

.

,

,

.

베이비붐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연구

(built-in-stabilizer) .

100 •

•

.

•

, ( )

(part-time work), (partial pension)

(gradual retirement) ( )

. .

.

2008

,

. 65

70%

.

.

.

.

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발표자: 홍백의, 서울대학교)

, ,

, .

,

.

, , ,

18 1 1

, , .

20% . ,

, (

10%, 10%,) .

, clawback system .

+ , 1 1 ,

10%, . 30%, 45%

, , .

30.7%→58.5%

, (8) , .

‘

’ .

나. 주요 토론내용

(1955~1963) OECD

‘ , , ‘ ’

. 2009

490.6 ,

68.7% . (

)35~50%, ( )50~70%, ( )15~30% .

5% 40~55%

.

, ,

.

, , ,

, .

1950

, 1960

, ,

.

4. 4차 포럼: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향상방안 -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4

.

.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수준 및 건강유지 행태의 현황 (발표자: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

.

. ,

,

. ,

,

.

.

.

,

,

.

, 1977

.

,

. , 1995 40

.

1990

, 19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발표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1955) 10 ,
(1963) 18 .
, 5 10

.

. (time lag)

, 10 ,

, ,

, , 40

.

, .

, , , ,

,

(structural

lag) .

.

(segmentation),

(time Lag), (structural

lag) ‘

’(targeted positioning) ' '(new paradigm)

.

,

. , ,

.

‘ ,

, , ,

.

(:)

OB .

.

,

. , ,

.

, .

,

. ,

( ) ,

.

(bottom-up) ,

bottom-up . ,

,

. .

volunteering mix

. welfare mix

volunteering mix , (

), , , .

. ,

referral system

40

(ageing effect)

나. 주요 토론내용

, , , .

,

. ,

. 2

.

.

.

, .

.

37

제2장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수립 방향 모색

5. 5차 포럼: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5

. .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자: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8.1%

8.7%

.

,

.

(39.8%), (34.3%), (10.1%), (8.3%)

. , ,

,

.

,

.

> > >

,

. ,

44.4% .

(13.9%), (13.5%) ,

‘ ’(7.6%), ‘ ’(3.4%) 11%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발표자: 류재룡, 한국노인복지관협회)

( ) 30

, ,

, , ,

,

.

, .

‘

,

.

. ,

, , ,

. 1 , 1 3 12

. ,

,

‘ ’, ,

‘ ’, ‘ ’,

‘ ’, ‘ ’,

‘ ’

,

.

3)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발표자: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 , 3

.

‘ ’

. . .

, , . .

one-stop ,

.

‘ ’

.

, ,

, ‘ ’ .

.

, (,)

. , ,

.

나. 주요 토론내용

.

4

6. 6차 포럼: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6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부머의 노동시장 참여현황과 정책과제 (발표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37.9%, 64%

,

.

1 ,

. ,

,

.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진로 전환 인식 실태 및 지원 체제 개선 방안 (발표자: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

,

(3.43), (3.43),

(3.7)

.

, ,

.

.

‘ ’ .

, .

(Hu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ool ,

(,

,)

나. 주요 토론내용

,

.

, .

,

/ .

, ,

.

,

.

7. 7차 포럼: 베이비 부머의 가족변화와 정책과제

7

,

.

.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부머 가족에 대한 이해 (발표자: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

.

, “ (:)” 1

, .

, ,

. ,

,

. 2012 2

2) 타 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 (발표자: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X

, 2010

. ,

.

.

.

.

.

,

.

, 3 .

,

. .

나. 주요 토론내용

.

.

, ,

age-period-cohort .

. , ,

.

, ,

, ,

( ) ,

( ) .

.

100

.

.

,

.

8. 8차 포럼: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8

.

.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자: 장석인, 산업연구원)

10

,

.

, 10

.

.

,

.

‘ , , , ,

(u-Health) ,

. R&D ,

.

,

. ,

, R&D

.

, ,

. : ,

.

2)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주거안정(발표자: 천현숙, 국토연구원)

. ,

.

.

.

, .

.

.

,

.

나. 주요 토론내용

, ,

. .

.

,

‘ ’, ‘ ’ .

.

.

. R&D

,

‘ ’

,

.

DB ,

.

.

‘ ’ ‘ ’

.

.

, .

, ,

NPO , ·

.

9. 9차 포럼: 베이비 붐 세대의 여가문화활동 욕구 및 대응전략 모색

,

9

. .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요구 및 대응전략(발표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동 현황과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부터 노년기까지 아우르는 이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실천적, 정책적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평일 3.58시간, 휴일 6.56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 4.93시간, 휴일 8.17시간으로 평일과 휴일 모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내에서도 특성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평일에는 여자의 여가시간이 남자보다 많지만(여자:3.78시간, 남자: 3.37시간), 휴일에는 남자의 여가시간이 여자보다 많다(여자:6.37시간, 남자:6.76시간). 베이비 부머의 월 평균 여가비용은 175.74천원이나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하층은 112.14천원, 중층은 171.86천원, 상층은 278.2천원으로 소득수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3%), 스트레스해소(21.0%), 즐거움(20.0%), 건강(17.9%)의 순서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동 실태 유형별로 1순위 여가유형을 살펴보면, TV시청(60.0%)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낮잠(4.6%), 신문/잡지 보기(4.2%), 등산(3.0%), 산책(2.7%), 라디오 청취(2.5%), 독서/만화 보기 및 애완동물 돌보기(2.1%) 등이다. 현재의 여가활동과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비교해보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의 경우 문화예술관람이 영화관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자아실현적 문화예술활동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다.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용 관련 욕구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4로 다소 불만족하고 있다.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의 69.4%가 현재 여가활동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는 이보다 높은 83.7%가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 여가활동에 있어 공공시설(37.0%)보다는 민간시설(59.6%)을 더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38.8%)보다는 민간시설(48.4%)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하면, 베이비 부머의 욕구수준이 높은 여가활동 영역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여가시간활용, 여가비용, 여가목적, 여가활동 유형, 여가패턴 등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한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

후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접근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가활동의 동기 및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실천의지의 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여가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 향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 (발표자: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재 노인 복지관은

,

.

,

.

. 1

, .

,

,

. ,

, ,

.

.

, , , , ,

.

나. 주요 토론내용

. ,

.

,

. ,

.

10. 10차 포럼: 베이비 부머의 인력활용 전략 모색

10

.

.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부머의 인적자원 특성 및 활용방안 (발표자: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1,000

, , , 3

. (

) 1 ( ) > 3 ( ) > 2 (

) .

, (3) ,

, 3

:( ) ,

.

2)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 소개 및 사례발표 (발표자: 서의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55~`63 , 712

) 3 (, ,)

. , ,

, , . , , ,

· , ( ),

. , 250 , 200 (

80%), 140 (70%) , 255 (102%) , 156

(61.2%), 147 (94.2%) .

,

. , ,

, .

나. 주요 토론내용

( )

, ,

. · .

11. 11차 포럼: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전략 모색

11 「 」 2011

가. 주요 발표내용

1)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생활지원 모델 모색(발표자: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 ,

. (WHO) (active ageing)

, , ,

.

,

15 (65 20%

) ‘ ,

‘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

‘ ’ 720

‘ ’, ‘ ’, ‘ ’

.

, ,

.

‘ ’, ‘ ’, ‘ ’, ‘ ’

4 .

,

3 ,

.

1 1

.

.

‘ ’, ‘ ’, ‘ ’ ‘ ’ 4

.

(.

, ,

), (,

, ,

,

,), (

, ,

(continuum of care) ,),

(( ),

, , ,

)

2) 베이비 부머의 소득불평등 장기전망 (발표자: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1991 2010 20 5

. 56

.

(EITC)

나. 주요 토론내용

NPO(Non Profit Organization)

20

.

, .

, 1955 1963

,

.

,

. ,

.

, (EITC)

,

,

.

.

.

,

.

, , ,

,

.

KIHASA

03

베이비 붐 세대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심층 연구

제3장 베이비 붐 세대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심층 연구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 욕구 및 대응 전략

여가를 의미하는 레저(leisure)는 '구속받지 않는', '평화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리세레(licere)와 "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그리스어 스콜레(schole)에서 유래되었다. 즉, 여가는 자기의 업무나 일상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평화롭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여분의 여(餘)자와 한가한 가(暇)자를 결합하여 '여분의 한가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이장영 외, 2004).

여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24시간에서 노동 시간, 수면이나 식사 등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생리적 필수시간, 그리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기타의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하며(Murphy, 1975; Parker, 1976),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휴식, 기분 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또한 활동의 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관적 판단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느끼는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McGuire et al., 1996).

개인의 여가활동은 생애에 걸쳐 지속성과 변화라는 상반된 패턴의 궤적(trajectory)을 보인다. 지속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역할 상실을 자신이 했던 비슷한 형태의 역할로 대치하려고 하거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 과거의 성격이나 경험과 연관시켜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 패턴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Hooyman & Kiyak, 2005). 이러한 지속이론의 관점을 여가활동에 적용해 보면, 중장년기의 여가 경험이 노년기 여가활동의 내용과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berts(2006)는 한 개인의 여가가 생애 과정을 통해 강력한 지속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면서, 은퇴 이후 여가활동이 감소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었을 때 여가에 대한 관심 범위가 한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장년기에 여가활동이 활동적이었다면 노년기에도 활동적일 개연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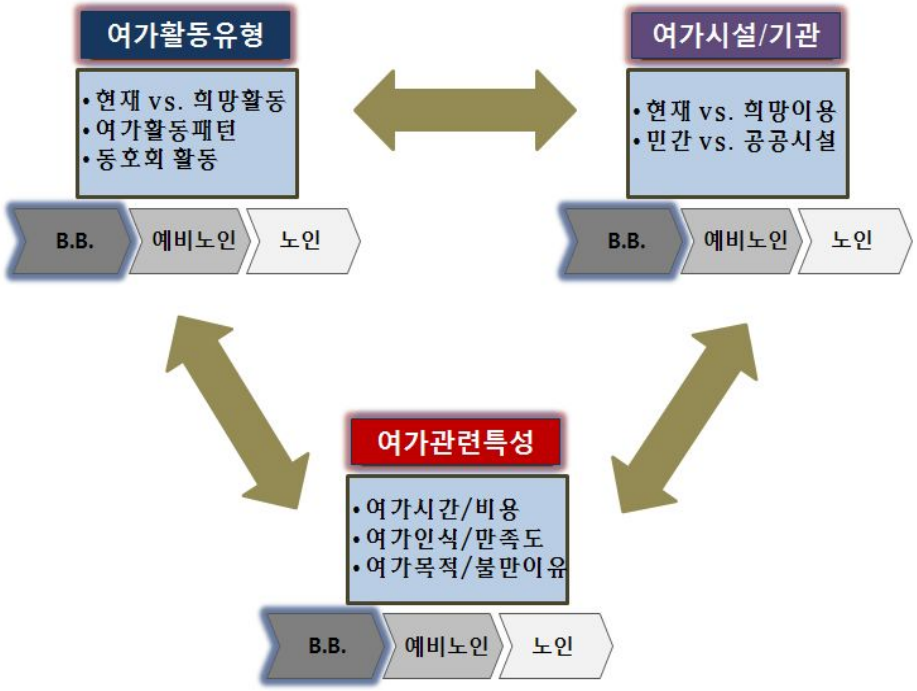
반면에 여가활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가 경험을 추구하며, 생애에 걸쳐 여가활동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고 한다(Iso-Ahola, 1980).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여가활동의 변화는 점진적이거나, 기존 여가활동의 레퍼토리(repertoire)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가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킨다(Hooyman & Kiyak, 2005). 이처럼 노년기 여가활동의 변화 패턴은 급격하거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띄기 보다는 중장년기 때의 여가활동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장년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문화 활동 현황과 참여 욕구를 분석하여 이들의 노년기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제반 특성과 여가활동 유형, 그리고 여가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3-1] 여가·문화활동연구의 연구 모형도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 여가활동을 비교 고찰하였고, 여가활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현재 여가활동 유형을 토대로 동질형, 중복형, 혼합형의 여가활동 패턴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동호회

활동 여부 및 목적, 동호회 소속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 시설 및 기관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가 시설과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 여가 시설을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가 시설을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향후 이들이 시간적 변화 궤적에 의해 예비노인 및 노인이 되어 가면서 보여주는 여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노인세대(56세-64세)와 노인세대(65세 이상)를 함께 비교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의 은퇴 이후 여가생활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지닌 60대 초·중반의 예비노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은퇴 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에 근접해 있는 기관 이용자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4곳의 노인복지관 실무자를 통해 각 각 2명씩 소개받아 총 8명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3-1> 사례연구 참여자의 제특성

참여자	성	연령	학력	종교	거주	전직	현직
사례A	남	65	대학원졸	무교	부부	외무부 대사	없음
사례B	여	63	대졸	천주교	부부	전업주부	없음
사례C	남	63	대졸	기독교	부부	건설회사 관리직	자동차 딜러(시간제)
사례D	여	63	대졸	불교	사별	교사, 자영업	없음
사례E	남	61	대졸	불교	부부	호텔리어	없음
사례F	여	60	대졸	천주교	부부	교사	없음
사례G	여	63	대학원졸	기독교	부부	교사(교장)	초등학교 보안관(시간제)
사례H	여	62	대학원졸	무교	부부	교사	상담교사 (시간제)

(2) 자료수집 및 면담 가이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4 곳의 노인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이 진행되었으나, 부부의 경우 함께 면담을 하였고, 참여자 G와 H는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함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개인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이를 녹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담은 ① 40대와 50대의 여가실태 및 여가인식, ② 은퇴 이후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현황(경제활동이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③ 4,50대와 현재에 여가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④ 현재의 여가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2) 양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에 실시한「국민여가활동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여가 수요 및 활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흘에 걸쳐 실시된 것이다. 전체 응답자 3,051명 중 베이비붐 세대(1963년생-1955년생)는 525명, 예비노인세대(1954년-1947년생)는 350명, 노인세대(1946년 이전)는 634명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① 여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의 의미, 가치인식, 동기, 목적 등, ②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활동 유형,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설, 동반자 등, ③ 여가활동의 영향력 평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생활 변화, 영향력 평가, 그리고 ④ 여가환경; 여가활동 촉진 요인 및 방해 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결과

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특성 및 욕구

1)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베이비 부머는 총 525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84% 가량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졸(39.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31.8%)와 대졸 이상(28.4%)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서는 중류층(월 가구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이 4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노인의 경우는 베이비 부머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교육 수준에 있어 중졸 이하가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세대는 여성의 비율이 57.9%로 남성에 비해 15% 가량 더 많았고, 배우자 사별 비율도 38.6%로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이 81.4%, 가구 월 평균 소득도 200만 원 이하로 소득 수준이 '하'인 경우가 76.3%를 차지해 다른 세대보다 비해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베이비 부머세대 (1963~1955)		예비노인세대 (1954~1947)		노인세대 (1946년 이전)		전체 사례수((%)		X^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	남자	260	(49.5)	166	(47.4)	267	(42.1)	693	(45.9)	6.76*
	여자	265	(50.5)	184	(52.6)	367	(57.9)	816	(54.1)	
혼인 상태	미혼	13	(2.5)	5	(1.4)	1	(0.2)	19	(1.3)	243.21***
	배우자 있음	439	(83.6)	282	(80.6)	376	(59.3)	1,097	(72.7)	
	사별	24	(4.6)	46	(13.1)	245	(38.6)	315	(20.9)	
	이혼	49	(9.3)	17	(4.9)	12	(1.9)	78	(5.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7	(31.8)	220	(62.9)	516	(81.4)	903	(59.8)	296.44***
	고졸	209	(39.8)	82	(23.4)	70	(11.0)	361	(23.9)	
	대졸 이상	149	(28.4)	48	(13.7)	48	(7.6)	245	(16.2)	
소득 수준	하	160	(30.5)	158	(45.1)	484	(76.3)	802	(53.1)	290.60***
	중	256	(48.8)	165	(47.1)	135	(21.3)	556	(36.8)	
	상	109	(20.8)	27	(7.7)	15	(2.4)	151	(10.0)	
전체		525	(100.0)	350	(100.0)	634	(100.0)	1,509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2) 여가 특성 및 욕구

베이비 부머의 여가 특성 및 욕구를 하루 평균여가시간(평일 vs 휴일), 희망여가시간(평일 vs 휴일),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여가의 목적과 여가 불만족 이유 등에 따라 살펴보면서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의 제반 특성과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3-3>은 세대별 하루 평균 여가 시간 및 희망 여가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 부머는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으로 3.58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휴일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6.56시간을 여가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과 휴일 모두 현재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활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세대별 하루 평균여가시간, 희망 여가시간

구 분			베이비붐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F값
여가 시간	하루 평균	평일	3.58	4.20	6.19	143.74***
	여가시간	휴일	6.56	6.18	7.34	17.99***
	희망	평일	4.93	5.32	6.48	67.23***
	여가시간	휴일	8.17	7.68	7.95	3.2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표 3-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평균 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시간)				희망 여가시간(시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성	남자	3.37	-2.29*	6.76	1.45	4.65	-3.52***	8.33	1.31
	여자	3.78		6.37		5.21		8.01	
출생년	베이비 부머전기	3.78	-2.21*	6.55	0.10	5.08	-1.84	7.91	2.05*
	베이비 부머후기	3.39		6.58		4.79		8.4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평일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더 많지만, 휴일에는 남성의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여가시간에서도 평일에는 여성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는 반면에, 휴일에는 남성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전기 베이비 부머가 후기 베이비 부머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일에는 평일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시간을 여가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에는 현재보다 약 1시간 21분 정도(남성:1.28시간, 여성:1.48시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현재보다 약 1시간 37분 정도(남성:1.57시간, 여성:1.64시간) 더 많은 여가시간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3-5>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별 평균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F값
평균 여가시간	평일	3.82	3.52	3.39	1.88
	휴일	6.35	6.31	7.16	4.04*
희망 여가시간	평일	5.26	4.81	4.72	4.00*
	휴일	7.81	8.05	8.72	4.6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여가시간은 교육 수준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휴일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여가시간도 현재여가시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6> 베이비 부머의 소득 수준별 평균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하	중	상	F값
평균 여가시간	평일	4.19	3.28	3.38	10.79***
	휴일	6.65	6.33	6.98	1.84
희망 여가시간	평일	5.27	4.78	4.78	3.92*
	휴일	7.89	8.18	8.52	1.6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하'인 경우가 '중' 혹은 '상' 보다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휴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상'인 경우가 '하'나 '중'인 경우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에 따르면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별로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여가 활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표 3-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 시간에 대한 생각

		사례수	평균(점수)	t값
전체		525	3.41	
성	남자	260	3.43	0.49
	여자	265	3.39	
출생년	베이비 부머전기	254	3.33	1.88
	베이비 부머후기	271	3.4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5점 척도(5 매우 충분하지 않음 → 1 매우 충분함)

평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8> 베이비 부머의 소득 수준별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하	중	상	F값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a)]	3.28	3.51	3.36	2.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a)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5점 척도(5 매우 충분하지 않음 → 1 매우 충분함)

조사 대상자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 수준이 '중'인 응답자(평균 3.51)가 소득 수준 '상'인 응답자들(평균 3.36)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3-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월 평균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월 평균 여가비용(천원)	월 평균 희망 여가비용(천원)
전체		175.74	281.09
성	남자	222.27	335.90
	여자	130.08	227.30
출생년	베이비 부머전기	177.17	272.13
	베이비 부머후기	174.39	289.4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남성의 월 평균 여가 비용(약 22만 2천원)은 여성(약 13만원)보다 약 9만 2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성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의 희망여가비용은 약 33만 6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11만 3천원을 여가 비용으로 더 사용하기 원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희망여가비용은 약 22만7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9만 7천원을 추가적으로 더 소비하고자 하였다.

전기와 후기 베이비 부머는 월 평균 여가비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희망여가비용에서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 보다 약 1만 7천 원 가량 더 소비하기를 원하고 있다.

<표 3-10>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월 평균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월 평균 여가비용(천원)	월 평균 희망 여가비용(천원)
전체		175.74	281.09
소득 수준	상	278.2	365.96
	중	171.86	290.17
	하	112.14	208.73
F값		22.96***	16.2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01

소득 수준 '상'의 경우 월 평균 여가 비용이 약 27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11만2천원보다 약 15만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소비하고 있었다. 희망여가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비용보다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고 싶어 하며, 소득 수준간의 희망 여가비용 차이는 현재의 여가비용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중류층'에서 좀 더 많은 여가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베이비 부머의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전기 베이비 부머	후기 베이비 부머	전체	t값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1)]	3.33	3.49	3.41	1.88
여가비용에 대한 생각[2)]	3.72	3.67	3.69	-0.67
여가생활만족[3)]	3.20	3.27	3.24	0.73
행복수준[4)]	6.44	6.59	6.52	0.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5점 척도(1 매우 충분함 → 5 매우 부족함)
2) 여가비용에 대한 생각, 5점 척도(1 매우 충분함 → 5 매우 부족함)
3) 여가생활만족;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4) 행복수준; 10점 척도(1 불행 → 10 행복)
*P<.05, **P<.01, ***P<.001

베이비 부머들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볼 때, 여가인식은 시간, 비용, 여가생활 만족도 및 행복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 비용에 대한 생각에서는 5점 척도(1: 매우 충분함, 5: 매우 부족함)에서 평균 3.69로 나타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생활만족에 있어서는 평균 3.24로 불만보다는 만족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12>

요 인	β 값
사회·인구학적 요인	
연령	-.037
성별	-.082*
교육수준	-.068
소득수준	-.065
배우자유무	.013
여가관련 요인	
평일여가시간	-.041
휴일여가시간	-.007
여가시간의 충분정도	.164**
여가비용	-.481**
여가비용의 충분정도	.329***
F값	18.78***
R^2값	.2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여가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 등 여가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가관련요인으로는 여가시간 만족도, 여가비용 및 여가비용 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여가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고, 실제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여가비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실제 여가를 위해 비용을 많이 투자할수록 만족도가 높고, 충분하게 여가비용을 소비했다고 생각할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표 3-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활동 목적

(단위: 명, %)

		건강	즐거움	마음 안정 휴식	대인 관계	스트레스해소	자기 계발	자기 만족	시간 보냄	기타	전체 (%)	전체 (명)
전체		17.9	20.0	21.3	9.5	21.0	1.1	5.7	3.0	0.4	100.0	525
성	남자	16.5	16.2	20.8	13.8	22.7	0.8	4.2	4.6	0.4	100.0	260
	여자	19.2	23.8	21.9	5.3	19.2	1.5	7.2	1.5	0.4	100.0	265
출생년도	전기 베이비 부머	17.3	19.3	19.3	8.7	22.4	2.0	6.3	4.3	0.4	100.0	254
	후기 베이비 부머	18.5	20.7	23.2	10.3	19.6	0.4	5.2	1.8	0.4	100.0	27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4	23.4	21.0	7.2	21.6	1.2	4.2	6.6	0.6	100.0	167
	고졸	18.2	21.1	19.6	10.0	23.0	1.0	4.8	1.9	0.5	100.0	209
	대졸 이상	21.5	14.8	24.2	11.4	17.4	1.3	8.7	0.7	0.0	100.0	149
소득수준	하	16.3	21.3	18.1	5.6	26.3	0.0	5.6	6.9	0.0	100.0	160
	중	18.0	20.3	23.4	10.2	19.5	2.0	3.9	2.0	0.8	100.0	256
	상	20.2	17.4	21.1	13.8	16.5	0.9	10.1	0.0	0.0	100.0	1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여가활동의 목적으로는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3%), 스트레스 해소(21.0%), 즐거움(20.0%), 건강(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인관계, 자기계발, 자기만족, 시간보내기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이 주로 스트레스 해소(22.7%)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20.8%)에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여성들은 즐거움(23.8%),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9%), 건강(19.2%), 스트레스 해소(19.2%) 등 비교적 다양한 목적들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활동의 목적을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베이비 부머가 마음의 안정 및 휴식,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예비노인 세대들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4%), 즐거움(19.7%) 등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두드러졌던 스트레스 해소는 14.0%에 불과하였다. 한편, 노인세대는 건강(32.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 보내기가 20.2%, 즐거움이 18.8%이다.

<표 3-14> 세대별 여가활동 목적

(단위: 명, %)

구 분	베이비 부머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	94	(17.9)	94	(26.9)	205	(32.3)	393	(26.0)
즐거움	105	(20.0)	69	(19.7)	119	(18.8)	293	(19.4)
마음안정 및 휴식	112	(21.3)	75	(21.4)	93	(14.7)	280	(18.6)
대인관계	50	(9.5)	19	(5.4)	40	(6.3)	109	(7.2)
스트레스해소	110	(21.0)	49	(14.0)	26	(4.1)	185	(7.2)
자기계발	6	(1.1)	8	(2.3)	4	(0.6)	18	(1.2)
자기만족	30	(5.7)	8	(2.3)	18	(2.8)	56	(3.7)
시간 보내기	16	(3.0)	28	(8.0)	128	(20.2)	172	(11.4)
기타	2	(0.4)	0	(0.0)	1	(0.2)	3	(0.2)
계(%)	525	(100.0)	350	(100.0)	634	(100.0)	1,509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이와 같이 여가활동의 목적은 세대별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일과 관련된 여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이비 부머는 퇴직 전으로 일 중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는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는 즐거움이나 건강을 위한 여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는 경제활동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현실에서 여가를 시간보내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질적 조사에서는 60대 초중반의 연구 참여자들의 여가목적을 4,50대와 은퇴 후

현재의 여가로 구분하여 구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업무의 연장으로서의 여가, 자기개발, 휴식과 충전, 스트레스 해소, 건강추구, 그리고 일에서의 탈피 등 다양한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

> 40~50대면 직장생활 할 때인데... 직장에만 충실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여가생활이) 너무 없는데... 우린 사실은 일 할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요...(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 저는 인제, 일종의... 회사 생활 자체가 쎈 편이니까 거기서 탈피라는 것도 좀 있었고, 고담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나면 그 때 가서 뭘 할 거냐... 참 이게 인생이 무료할 것 같으다 라는 생각을 그 때 저는 미리 좀 했어요(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 내 취미를 갖는 거를 나도 좀 개발을 해보자 그런 생각은 많이 했죠(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 아, 그렇죠. 리프레시가 되는 거니까. ...네. 그... 일을 하면서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돌아다니든지 뭘 책을 보든지...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게 있더라고. 보면. 그리고 일이 쉬면, 뒤에 머릿속에 항상 있잖아요. 어차피 여가라도. 거기서 얻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항상 있으니까 뭔가 다니면서도 그,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 삶의 질에 있어서 뭐... 그... 그 스트레스 해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자기계발도... 그쵸(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 골프를 주로 쳤는데... 거의 100%죠. 토,일요일날. 휴일이니깐. 골프를 쳤는데, 많은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교포도 만나야하고 누구도 만나야되고. 그게 인제 우리 주 업무중 하나에요(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 아, 잠깐... 그걸 하나 갑자기 잊었네. 해외를 나가보니깐 이제 그런 시간은 있어요. 친구보다는 가족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가족이 중요한 걸 알게 되고, 제가 사실 여기 있을 때는 빨리빨리 출세해서

빨리 장관 되는게...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해외에선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아... 가족들의 중요함을 저절로 알게 되요. 가족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그러는게... 그래서 그게 많이 바뀐거 아닌가 싶네요(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은퇴 이후 현재의 여가에 대한 의미와 목적으로 갑작스런 은퇴에 대한 당혹감을 극복하기 위한 몰입대상으로서의 여가, 은퇴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여가, 사별한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여가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의미와 목적이 조사되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퇴직하는 분들이 자기 퇴직 후에 내가 퇴직한다. 하는 생각도 없이 퇴직들을 한 분이 돼서, ...그때는 뭐냐면...음... 예를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을까... 갑자기 나가니깐. 이게 미리 2~3년 앞을 내다보고 무슨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나가니깐 창피하잖아요, 주변에. 수위아저씨 보기도 챙피하고. 그래서 자꾸 산에 가보라 그래서 산에 갔더니 무슨 여자들만 있고. 난 이때 처음 산이라는 델 가봤어. 창피하드라고, 이게 여자들만 있으니깐 못 하겠드라고. 내가 춤 이런걸 싫어하는 이유가 여자들하고 애길 안 해요. 전. 아니오.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누구하고 뭐 하는게 싫고, 대화도 싫고, 그냥 친구도 동창도 하나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강의와 수지침) 집중했어요. 해보자, 뭐든지 어디에 집중을 해보자. 어떻게든 소일을 해야되는데, 그거는 주변 사람이 없어도 되니깐(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뭐라고 딱 꼬집지는 못하겠는데요, 쫌 더 유익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저희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사느냐' 이 말을 했을 것 같애, 저한테. 난 왜냐면 그렇게 당구나 치고, 탁구나 치고 매일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사례 D, 63세 여, 교사생활 후 자영업).

여가도 이제 생활이죠, 뭐(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표 3-15> 베이비 부머의 제 특성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시간부족		경제적 부담		정보프로그램 부족		여가시설 부족		여가동반자 부재		자기설계 부족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2	(41.6)	119	(53.8)	0	(0.0)	1	(0.5)	5	(2.3)	1	(0.5)	3	(1.4)
성	남자	41	(37.3)	65	(59.1)	0	(0.0)	0	(0.0)	2	(1.8)	0	(0.0)	2	(1.8)
	여자	51	(45.9)	54	(48.6)	0	(0.0)	1	(0.9)	3	(2.7)	1	(0.9)	1	(0.9)
출생년도	전기베이비 부머	33	(32.0)	62	(60.2)	0	(0.0)	0	(0.0)	4	(3.9)	1	(1.0)	3	(2.9)
	후기베이비 부머	59	(50.0)	57	(48.3)	0	(0.0)	1	(0.8)	1	(0.8)	0	(0.0)	0	(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6	(35.1)	44	(59.5)	0	(0.0)	0	(0.0)	2	(2.7)	0	(0.0)	2	(2.7)
	고졸	39	(40.2)	53	(54.6)	0	(0.0)	1	(1.0)	3	(3.1)	0	(0.0)	1	(1.0)
	대졸이상	27	(54.0)	22	(44.0)	0	(0.0)	0	(0.0)	0	(0.0)	1	(2.0)	0	(0.0)
소득수준	하	22	(26.5)	57	(68.7)	0	(0.0)	0	(0.0)	3	(3.6)	0	(0.0)	1	(1.2)
	중	45	(43.7)	55	(53.4)	0	(0.0)	0	(0.0)	2	(1.9)	0		1	(1.0)
	상	25	(71.4)	7	(20.0)	0	(0.0)	1	(0.5)	0	(0.0)	1	(2.9)	1	(2.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3.24(5 ; 5: , 1:)

, (53.8%)

, (41.6%) .

, 60.2%

,

(50.0%) (48.3%) . ,

,

.

‘ ’

. ,

, (20.0%) , (71.4%)

,

, .

,

. ,

. ,

(7.2%),

15.1% .

<표 3-16> 세대별 여가시간활용 생각,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 분		베이비붐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시간부족	92	(41.6)	45	(36.0)	32	(19.3)	169	(33.0)
	경제적 부담	119	(53.8)	67	(53.6)	90	(54.2)	276	(53.9)
	정보프로그램 부족	0	(0.0)	3	(.4)	3	(1.8)	6	(1.2)
	여가시설 부족	1	(0.5)	3	(2.4)	3	(1.8)	7	(1.4)
	여가 동반자 부재	5	(2.3)	1	(0.8)	12	(7.2)	18	(3.5)
	자기설계 부족	1	(0.5)	1	(0.8)	1	(0.6)	3	(0.6)
	기타	3	(1.4)	5	(4.0)	25	(15.1)	33	(6.4)
전체		221	(100.0)	125	(100.0)	166	(100.0)	512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 ’ 24.6%

‘ ’

71.6% .

.

‘ ’

.

(84.4%) .

,

.

, , ,

.

뭐, 시간하고 돈이죠(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고게 여가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되니까. 그거 없이는, 돈 없이는 매치가 안 돼. 그거 아주 중요하더라고.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맨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프라스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으니까. 그 세 가지죠(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표 3-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향후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생각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다		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기시간을 늘릴 것이다		기타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9	(24.6)	376	(71.6)	20	(3.8)	
성별	남자	74	(28.5)	176	(67.7)	10	(3.8)	4.28
	여자	55	(20.8)	200	(75.5)	10	(3.8)	
출생년도	전기 베이비부머	67	(26.4)	177	(69.7)	10	(3.9)	0.93
	후기 베이비부머	62	(22.9)	199	(73.4)	10	(3.7)	
소득수준	하	63	(39.4)	89	(55.6)	8	(5.0)	36.36***
	중	55	(21.5)	195	(76.2)	6	(2.3)	
	상	11	(10.1)	92	(84.4)	6	(5.5)	
교육수준	중졸이하	52	(31.1)	109	(65.3)	6	(3.6)	7.28
	고졸	50	(23.9)	151	(72.2)	8	(3.8)	
	대졸이상	27	(18.1)	116	(77.9)	6	(4.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표 3-18> 베이비부머의 제특성별 현재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명, %)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체(%)	전체(명)
전체(%)	8.8	60.6	22.6	7.3	0.7	100.0	3,028
출생년도							
전기 베이비 부머	8.0	57.9	24.9	8.3	0.9	100.0	1,632
후기 베이비 부머	9.7	63.7	19.9	6.2	0.5	100.0	1,393
성							
남자	9.7	59.9	21.4	8.3	0.7	100.0	1,433
여자	7.9	61.1	23.7	6.5	0.8	100.0	1,594
교육수준							
초졸	3.1	48.1	27.8	18.4	2.5	100.0	319
중졸	3.8	56.5	28.3	10.4	1.0	100.0	628
고졸	8.7	62.6	22.8	5.6	0.4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5.5	65.6	15.2	3.2	0.5	100.0	749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9	51.2	29.7	14.0	1.2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8.9	61.1	23.0	6.5	0.6	100.0	1,050
500만원 이상	13.3	69.1	15.4	1.8	0.4		1,0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현 베이비붐 세대의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기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높을 뿐 성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명, %)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 하지않다	전혀중요 하지않다	전체 (%)	전체 (명)
전체(%)	16.4	67.3	14.1	2.2	0.0	100.0	3,028
출생년도							
전기 베이비 부머	14.7	66.0	17.0	2.3	0.1	100.0	1,632
후기 베이비 부머	18.4	68.8	10.7	2.1	0.0	100.0	1,393
성							
남자	16.7	66.8	14.0	2.4	0.1	100.0	1,433
여자	16.2	67.7	14.1	1.9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졸	10.0	52.2	27.8	10.0		100.0	319
중졸	9.9	68.1	19.0	3.0	0.0	100.0	628
고졸	16.2	70.4	12.5	1.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5.1	67.6	6.8	0.4	0.1	100.0	749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2.5	61.8	20.7	5.1	0.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14.2	69.6	15.0	1.1	0.0	100.0	1,050
500만원 이상	22.6	70.0	6.7	0.5	0.1	100.0	1,0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83.7%는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 여가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후기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여가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나. 여가활동 유형

1)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에 대한 유형별 비교

<표 3-20>은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세부 활동별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응답하게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1순위의 응답결과와 1순위에서 5순위의 응답결과를 종합 집계한 전체 비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0> 세부 여가활동(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종합 집계 및 1순위 빈도 및 비율)

(단위: 명, %)

세부 여가활동	전체		1순위		세부 여가활동	전체		1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TV시청	426	(16.2)	315	(60.0)	육상/조깅/속보*	37	(1.4)	9	(1.7)
낮잠	171	(6.5)	24	(4.6)	미용(피부 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37	(1.4)	0	(0.0)
등산	158	(6.0)	16	(3.0)	독서/만화책 보기	35	(1.3)	11	(2.1)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145	(5.5)	6	(1.1)	헬스(보디빌딩)/ 에어로빅*	34	(1.3)	7	(1.3)
산책	143	(5.4)	14	(2.7)	드라이브	32	(1.2)	1	(0.2)
목욕/사우나/찜질방	138	(5.3)	4	(0.8)	애완동물 돌보기	23	(0.9)	11	(2.1)
쇼핑/외식	132	(5.0)	3	(0.6)	배드민턴/줄넘기/ 맨손체조/ 스트레칭/훌라후프*	23	(0.9)	3	(0.6)
종교활동	109	(4.2)	8	(1.5)	게임 (인터넷, 닌텐도, PSP, PS3 등)	23	(0.9)	3	(0.6)
음주	98	(3.7)	4	(0.8)	노래방 가기	16	(0.6)	0	(0.0)
계모임/동창회/사교 (파티)모임	98	(3.7)	2	(0.4)	바둑/장기/체스	16	(0.6)	0	(0.0)
영화보기	71	(2.7)	2	(0.4)	사회봉사활동	15	(0.6)	0	(0.0)
신문/잡지보기	63	(2.4)	22	(4.2)	음악 감상	14	(0.5)	2	(0.4)
구기운동(테니스/스쿼시/농구/배구/축구, 족구 등)*	61	(2.3)	10	(1.9)	삼림욕	14	(0.5)	0	(0.0)
스포츠 경기관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60	(2.3)	2	(0.4)	요가/필라테스/태보*	13	(0.5)	3	(0.6)
잡담/통화하기/ 문자보내기	59	(2.2)	2	(0.4)	수상운동 (수영,윈드서핑, 수상스키, 래프팅 등)*	13	(0.5)	2	(0.4)
인터넷 검색/채팅	48	(1.8)	8	(1.5)	요리하기/다도	13	(0.5)	1	(0.2)
가족 및 친지방문	42	(1.6)	0	(0.0)	지역축제 참가	12	(0.5)	1	(0.2)
라디오 청취	38	(1.4)	13	(2.5)	문화유적방문 (고궁, 절, 유적지 등)	12	(0.5)	0	(0.0)
낚시	38	(1.4)	0	(0.0)	사이클링/산악자전거*	10	(0.4)	3	(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유형 범주

1순위에서 5순위를 모두 집계한 전체 순위에서 TV시청(16.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낮잠(6.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 여가유형을 살펴보면, TV시청(60.0%)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낮잠(4.6%), 신문/잡지 보기(4.2%), 등산(3.0%), 산책(2.7%), 라디오 청취(2.5%), 독서/만화 보기 및 애완동물 돌보기(2.1%) 등으로 나타났다.

등산과 산책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유형은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이며, 대부분이 주로 혼자서 즐기는 여가활동 유형인 것을 조사되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집계한 전체 빈도와 비율을 보면, 가장 높았던 TV시청과 낮잠을 제외하고, 친구만남/동호회 모임(5.5%),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3.7%),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2.2%) 등 대인관계에 관련된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 , /
/ , / / , /
1 , ‘
’ 34 (6.5%) TV
. (2010)
.

TV시청의 높은 비율은 베이비 부머의 여가 현황을 보여주는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나 실천영역에서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TV시청이 1순위에서는 60%, 전체 순위에서는 1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TV시청 이외의 다양한 여가유형들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표 3-21> 여가유형별 가장 하고 싶은 구체적인 여가활동(문화예술, 스포츠, 관광활동)

(단위: 명, %)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A, B 빈도(%)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C, D 빈도(%)		관광활동 E 빈도(%)	
A1 전시회관람	37(7.0)	C1 스포츠관람*	91	E1 문화유적방문	39(7.4)
A2 박물관관람	18(3.4)	C2 격투기관람	(17.3)	E2 자연명승/풍경관람	37(7.0)
A3 음악연주회관람	33(6.3)	C3 온라인게임관람	8(1.5)	E3 삼림욕	59(11.2)
A4 전통예술관람	22(4.2)		3(0.6)	E4 국내캠핑	45(8.6)
A5 연극관람	59(11.2)	D1 구기운동*	102(19.4)	E5 해외여행	211(40.2
A6 무용관람	6(1.1)	D2 수상운동	48	E6 소풍/야유회	)
A7 영화보기*	144(27.4)	D3 설상운동	(9.1)	E7 온천/해수욕장	12(2.3)
A8 연예공연관람	81	D4 빙상운동	6(1.1)	E8 유람선타기	60(11.4)
B1 문학행사참여	(15.4)	D5 헬스*	2(0.4)	E9 테마파크가기	12(2.3)
B2 서예	5(1.0)	D6 요가	76(14.5)	E10 놀이공원/동식물원	4(0.8)
B3 문예/독서토론	10(1.9)	D7 배드민턴/맨손	60(11.4)	E11 지역축제참가	2(0.4)
B4 미술활동	5(1.0)	D8 육상/조깅/속보*	31(5.9)	E12 드라이브	14(2.7)
B5 악기연주/노래	7(1.3)	D9 격투기운동	37(7.0)		30(5.7)
B6 전통예술배우기	55(10.5)	D10 댄스스포츠	5(1.0)		
B7 사진촬영	11(2.1)	D11 사이클링/산악	33(6.3)		
B8 춤/무용	28(5.3)	D12 인라인스케이트	21(4.0)		
	4(0.8)		2(0.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굵은 글씨와 밑줄 친 여가활동들은 '현재의 여가활동' 1순위에서 5순위 종합 집계에서 5%이상의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2010년「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크게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등 총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을 위한 설문문항에서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휴식/사회 및 기타활동' 등 세 개의 영역 내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들을 각 각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별 행위를 살펴본 <표 3-21>은 전체 여가활동들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1순위에서 5순위로 선택하도록 한 <표 3-20>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개별영역 내에서의 여가활동들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영역들간의 희망 여가활동들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3-21> ,

10% , (27.4%),

(15.4%), (11.2%), / (10.5%) ,

(7.0%), (6.3%), (5.3%)

.

(19.4%), (17.3%),
(14.5%), (11.4%) . , (9.1%), / /
(7.0%), (6.3%), / (5.9%)

.

, 40.2% ,
/ (11.4%) (11.2%) . (8.6%),
(7.4%), / (7.0%) .

<표 3-22> 여가유형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취미오락,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

(단위: 명, %)

취미오락활동 F 빈도(%)		휴식활동 G 빈도(%)		사회 및 기타활동 H 빈도(%)	
F1 수집활동	4(0.8)	G1 산책*	14(2.7)	H1 사회봉사	34(6.5)
F2 생활공예	7(1.3)	G2 목욕/사우나*	21(4.0)	H2 종교활동*	32(6.1)
F3 요리/다도	18(3.4)	G3 낮잠*	21(4.0)	H3 클럽/나이트	0(0.0)
F4 애완동물돌보기	2(0.4)	G4 TV시청*	5(1.0)	H4 가족친지방문*	10(1.9)
F5 노래방	11(2.1)	G5 비디오	1(0.2)	H5 잡담/통화/문자*	1(0.2)
F6 인테리어	7(1.3)	G6 라디오청취*	1(0.2)	H6 계모임/동창회*	9(1.7)
F7 등산*	102(19.4)	G7 음악감상	2(0.4)	H7 이성교제/미팅	4(0.8)
F8 낚시*	62(11.8)	G8 신문잡지*	1(0.2)	H8 친구만남/동호회*	34(6.5)
F9 미니홈피/블로그	1(.02)			H9 기타	1(0.2)
F10 UCC제작	0(0.0)				
F11 인터넷검색/채팅*	7(1.3)				
F12 게임	1(0.2)				
F13 보드게임/퍼즐	0(0.0)				
F14 바둑/장기/체스	7(1.3)				
F15 겜블/복권구입	3(0.6)				
F16 쇼핑/외식*	30(5.7)				
F17 음주*	2(0.4)				
F18 독서/만화책*	10(1.9)				
F19 미용*	36(6.9)				
F20 어학, 공부, 학원	24(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굵은 글씨와 밑줄 친 여가활동들은 '현재의 여가활동' 1순위에서 5순위 종합 집계에서 5%이상의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그리고 사회 및 기타활동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응답하도록 하였지만, <표 3-22>에서는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취미·오락활동 유형에서는 등산(19.4%)와 낚시(11.8%)가 10%를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비록 10%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미용(6.9%)와 쇼핑/외식(5.7%) 등 여성취향적인 여가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 공부, 학원(4.6%) 등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활동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식활동 유형에서는 희망하는 비율이 5%이상인 여가활동이 하나도 없었으며, 특히 현재의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TV시청을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이었으며, 낮잠의 경우에도 4.0%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여가활동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던 '신문/잡지 보기'는 1명만이 응답하여 0.2%의 비율을 보였고, 비교적 높은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던 산책에서도 2.7%의 선호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및 기타활동 유형에서는 사회봉사활동과 친구만남/동호회가 각 각 6.5%의 선호도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종교활동(6.1%)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은 여가활동 중에서 1% 이상의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과 여가유형의 영역별로 5%이상의 비율을 보인 희망여가활동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여가유형(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현재여가활동은 미미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으로 많은 활동이 부각되는 여가유형(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반면에 현재 여가활동으로 많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에서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여가유형(휴식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과 취미·오락활동, 그리고 사회 및 기타활동은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스포츠관람과 구기운동, 헬스 등이 희망여가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가, 댄스스포츠, 밴드민턴/맨손체조 등은 새롭게 희망 여가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3-23> 베이비 부머의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 비교 및 특성

여가활동 유형	현재 여가활동[a)]	희망 여가활동[b)]	특성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영화관람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악기연주/노래 ·사진촬영	·문화예술관람이 영화관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자아실현적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관람 ·구기운동 ·헬스 ·육상/조깅/속보	·스포츠관람 ·구기운동 ·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밴드민턴/맨손체조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이 유사함.
관광활동 및 나들이	·드라이브	·해외여행 ·온천/해수욕장 ·삼림욕 ·국내캠핑 ·드라이브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풍경방문	·현재 여가활동으로 즐기지 못하고 있으나 희망 여가활동으로 많은 영역들이 도출됨.
취미오락활동	·등산 ·낚시 ·쇼핑/외식 ·음주 ·독서/만화책 ·미용 ·인터넷검색/채팅	·등산 ·낚시 ·미용 ·쇼핑/외식 ·어학, 공부, 학원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 ·어학, 공부, 학원 등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보여짐
휴식활동	·TV시청 ·낮잠 ·산책 ·목욕/사우나 ·신문잡지보기 ·라디오청취	-	·현재 여가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희망여가활동에는 전무함.
사회 및 기타활동	·친구만남/동호회 ·종교활동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문자	·사회봉사 ·친구만남/동호회 ·종교활동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이 새롭게 등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a) 현재 여가활동 중에서 1순위와 5순위 전체 합계에서 1%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b) 희망여가활동 중에서 5%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등산과 낚시, 쇼핑/외식, 미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음주, 독서/만화책/인터넷검색 및 채팅은 현재 여가활동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지만, 희망 여가활동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에 어학, 공부, 학원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습활동이 새롭게 희망여가활동으로 부각되었다.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에서는 친구만남/동호회와 종교활동은 현재활동과 희망활동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 여가활동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던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문자 대신에 '**사회봉사활동**'이 희망 여가활동으로 부각되었다.

현재 여가활동에서는 미미하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 많은 여가활동이 나타난 경우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과 관광활동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현재 여가활동을 영화관람만이 유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관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을 스스로 창조하고 즐기기 위한 자기실현적 문화예술여가활동으로 악기연주/노래와 사진촬영이 희망 여가활동으로 제시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활동의 경우, 현재 여가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여행,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풍경방문 등 여행관련 활동과 더불어 온천/해수욕장과 삼림욕 등이 새롭게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베이비 부머에게 여가활용에 가장 불만족한 이유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부담이었는데, 관광활동이야말로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은퇴 이전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기 보다는 은퇴 이후 시간적인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가활동유형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여가유형이 휴식활동이었는데, 희망여가활동으로는 하나의 활동도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비 부머 응답자들은 휴식보다는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여가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지려는 개인의 인식변화와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가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성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4>는 베이비 부머의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들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의 경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과 관광활동 영역에서의 현재 여가활동에 비해 희망여가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여가활동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남녀 모두 현재 여가활동보다는 희망 여가활동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휴식활동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현재 여가활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희망 여가활동으로는 남성은 낮잠, 여성은 목욕/사우나/찜질방으로 하나의 여가활동만이 제시되었다. 사회 및 기타활동 영역에서도 남녀 모두 현재에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는 사회봉사활동과 친구만남/동호회(남성), 종교활동(여성) 등 두 개의 여가활동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녀별로 현재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의 비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모두 8개의 활동이 현재여가활동으로 제시되었지만, 희망여가활동에서는 낚시와 등산 등 두 개 활동만이 제시된 반면에, 여성은 7개의 현재여가활동에 대해 희망여가활동으로 5개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여가활동 유형별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특정 여가활동이 있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전통예술관람 등 관람에 관심이 높으며, 사진촬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음악연주회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남자는 사이클링/산악자전거를 하고 싶어하지만, 여성들은 요가/필라테스/태보, 댄스스포츠를 하고 싶어했다.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성은 낚시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은 미용, 어학/기술 자격증 등 학습활동, 그리고 요리하기/다도 등 다양한 영역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는 남성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종교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3-24> 베이비 부머의 성별에 따른 현재 및 희망 여가활동비교

성별	여가활동 유형	현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남자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영화관람 31(2.4)		영화관람 76(29.2) 연예공연관람 37(14.2) **전시회관람 24(9.2)** **사진촬영 22(8.5)** 연극공연관람 20(7.7)	악기연주/노래교실 19(7.3) **박물관관람 15(5.8)** **전통예술공연관람** 13(5.0)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구기운동 49(3.8)** 스포츠관람 48(3.7) 헬스 21(1.6) 육상/조깅/속보 19(1.5)		구기운동 73(28.1) 스포츠관람 70(26.9) 헬스 32(12.3) 수상운동 20(7.7)	배드민턴/줄넘기/맨손 16(6.2) **사이클링/산악자전거 15(5.8)** 육상/조깅/속보 13(5.0)
	관광활동	드라이브 18(1.2)		해외여행107(41.2) 삼림욕 33(12.7) 국내캠핑 23(8.8) 문화유적방문 22(8.5)	온천/해수욕 21(8.1) **드라이브 17(6.5)** 자연명승및풍경관람 16(6.2)
	취미오락 활동	등산 100(7.7) 음주 81(6.2) 낚시 38(2.9) 쇼핑/외식 36(2.8) 인터넷검색/채팅 34(2.6)	**게임 19(1.5)** **바둑/장기/체스 16(1.2)** 독서/만화책보기 14(1.1)	**낚시 58(22.3)** 등산 57(21.9)	
	휴식활동	TV시청 212(16.3) 낮잠 83(6.4) 산책 54(4.2) 신문/잡지보기 48(3.7)	목욕/사우나/찜질방 45(3.5) 라디오청취 15(1.2)	낮잠 15(5.8)	
	사회 및 기타활동	친구만남/동호회 79(6.1)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40(3.1)	종교활동 35(2.7) 가족.친지방문 20(1.5) 잡담/통화/문자 13(1.0)	**친구만남/동호회 23(8.8)** 사회봉사활동 15(5.8)	
여자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영화관람 40(3.0)		영화관람 68(25.7) 연예공연관람 44(16.6) 연극공연관람 39(14.7)	악기연주/노래교실 36(13.6) **음악연주회관람 21(7.9)**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육상/조깅/속보 18(1.4) 헬스 13(1.0)		**요가/필라테스/태보 59(22.3)** 헬스 44(16.6) 구기운동 29(10.9) 수상운동 28(10.6) **댄스스포츠 28(10.6)**	육상/조깅/속보 24(9.1) 스포츠관람 21(7.9) 배드민턴/줄넘기/맨손 스트레칭 15(5.7)
	관광활동	드라이브 14(1.1)		해외여행104(39.2) 온천/해수욕 39(14.7) 삼림욕 26(9.8) 국내캠핑 22(8.3)	자연명승및풍경관람 21(7.9) 문화유적방문 17(6.4)
	취미오락 활동	쇼핑/외식 96(7.2) 등산 58(4.4) **미용 33(2.5)** 독서/만화책 21(1.6) 음주 17(1.3)	**애완동물돌보기 14(1.1)** 인터넷검색/채팅 14(1.1)	등산 45(17.0) **미용 35(13.2)** **쇼핑/외식 21(7.9)**	**어학,기술,자격증취득, 공부학원등 19(7.2)** **요리하기/다도 16(6.0)**
	휴식활동	TV시청214(16.2) 목욕/사우나/찜질방 93(7.0) 산책 89(6.7)	낮잠 88(6.6) 라디오청취 23(1.7) 신문/잡지보기 15(1.1)	**목욕/사우나/찜질방 14(5.3)**	
	사회 및 기타활동	종교활동 74(5.6) 친구만남/동호회 66(5.0)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58(4.4) 잡담/통화/문자 46(3.5) 가족.친지방문 22(1.7)	**종교활동 24(9.1)** 사회봉사활동 19(7.2)	

주: 현재 여가활동은 현재 여가활동 중에서 1순위와 5순위 전체 합계에서 1%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이며, 희망 여가활동은 희망 여가활동 중에서 5%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임.

이와 같이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의 비교에서 성별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베이비 부머의 여가참여 욕구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대별로 현재 여가활동을 비교해 볼 때, 베이비 부머의 현재 여가활동은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3-25 참고). 이는 희망 여가활동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26 참고). 이는 희망 여가활동이 실제 여가활동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베이비 부머의 희망 여가활동이 은퇴 이후 이들이 예비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 실제 여가 활동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대별 여가활동 비교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다만, 여가활동과 관련된 베이비 부머의 특성들(예,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등)이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희망 여가활동이 실제 여가활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에게만 맡겨 놓기 보다는 일중심의 문화적 성향이 높은 이들에게 여가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며,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5> 세대별 현재 여가활동 비교

여가활동 유형	베이비붐 세대 현재 여가활동	예비노인세대(56세~64세) 현재 여가활동	노인세대(65세 이상) 현재 여가활동
문화 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화관람	영화관람	영화관람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관람 육상/조깅/속보 구기운동 헬스	스포츠관람 육상/조깅/속보 구기운동 헬스	육상/조깅/속보
관광활동	-	-	**온천/해수욕**
취미 오락활동	등산 쇼핑/외식 독서/만화책 **인터넷검색/채팅** 낚시 음주 미용	등산 쇼핑/외식 독서/만화책 음주 낚시 미용	쇼핑/외식 음주 미용 독서/만화책 등산 **겜블(예:화투)**
휴식활동	TV시청 산책 목욕/사우나 라디오청취 낮잠 신문/잡지보기	TV시청 기 목욕/사우나 산책 낮잠 라디오청취 신문/잡지보 **음악감상**	TV시청 산책 목욕/사우나 라디오청취 낮잠 신문/잡지보기
사회 및 기타활동	친구만남/동호회 잡담/통화/문자 종교활동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종교활동 잡담/통화/문자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친구만남/동호회	친구만남/동호회 가족및친지방문 잡담/통화/문자 종교활동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표 3-26> 세대별 희망 여가활동 비교

여가활동 유형	베이비붐 세대 희망 여가활동		예비노인세대(56세~64세) 희망 여가활동		노인세대(65세 이상) 희망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악기연주/노래 사진촬영	연예공연관람 영화관람 전통예술관람 연극공연관람	전시회관람 악기연주/노래 사진촬영 서예	**전통예술관람** 연예공연관람 영화관람	**박물관관람** 악기연주/노래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관람 구기운동 헬스 요가/타보	댄스스포츠 배드민턴/맨손체조	스포츠관람 요가/타보 구기운동 배드민턴/맨손체조	수상운동 헬스 육상/조기/속보	스포츠관람 배드민턴/맨손체조 육상/조기/속보	요가/타보 구기운동 댄스스포츠 **수상운동**
관광활동	해외여행 온천/해수욕장 삼림욕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풍경방문	해외여행 온천/해수욕장 자연명승지/풍경방문 삼림욕	문화유적지방문 유람선 지역축제 국내캠핑	온천/해수욕장 해외여행 자연명승지/풍경방문	삼림욕 유람선
취미오락 활동	등산 낚시 미용	쇼핑/외식 어학,공부.학원	등산 낚시 쇼핑/외식		등산 쇼핑/외식	
휴식활동	-		-		**목욕/사우나/찜질방** **산책**	
사회 및 기타활동	사회봉사 친구만남/동호회 종교활동		사회봉사 친구만남/동호회 종교활동		사회봉사 종교활동	친구만남/동호회 가족친지방문

은퇴 이후 여가활동에 대한 질적 조사 연구를 보면, 젊은 시절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도전으로 기타나 그림 등 여가활동을 시작한 경우와 은퇴 이전의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직장생활의 경력을 여가로 이어지게 하거나, 직장생활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은퇴 이후 이전 직장생활패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가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지한 것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생활을 우선하는 경우이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은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가생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은퇴 이후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없이 은퇴를 맞이한 경우도 있었다.

> 기타는 제가 그 전에 손도 안 대봤는데, 참 그거... 내가 안 배운 게 후회가 됐거든요. 아니, 젊은 시절에... 그거 보면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한... 기타는 이걸 내가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를 배웠으며는 진짜 지금 여기서 글로벌로 리사이틀 활동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까지 해보는데... 기회를 저기 못 한 거거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침

여기서 기타반이 생겼어요. 이거 뭐 앞으로 한... 20~30년 살다 보면 지금 뭐, 1-2년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니다... 도전해보자. 그래갖고 시작된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은 참 잘 그렸는데, 왜 옛날엔 미대를 못 갔잖아요. 미대 가면 굶으니깐. 처음엔 문화센터 였던가? 그게? 아니, 저기 동사무손가... 그런데 정물화 놓고 하는 거 보니깐 선생이 아, 어디서 많이 했냐고. 아 나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다. 그랬더니... 하여튼 금방막 늘드라고요.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내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안 나가는데. 예, 집에도 캔버스 다 있어요... 딸도 하나씩 주고, 이게 좋드라고요. (사례 A, 65세 남, 외무부 대사)

저희도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사실 따지면 우리가 중동 나가서 열사의 땅이라고 돈 벌어 오고 그런 것도 보며는, 사실 그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 생각에도 아, 우리가 중동 나가서 이렇게 큰 돈들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경제 발전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수혜를 입었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 정도는 베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했었죠~(사례 C, 63세 남, 건설회사 관리직)

저는 또 여가라는 게 인제, 사실... 일할 때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요. 그전에는 막, 처음에 학교에 취임할 때는 애들 막 시험도 보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들 공부를 잘 하게 해야지' 이런 것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한 50대 이후에는 '아, 아니다... 인성교육, 전인교육' 그런 걸 제가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데 아이들, 아이들 공부보다도 어려운 아이들... 방과 후에 상담을... 예. 그래서 상담을 제가 인제 관심을,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제가 상담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게 여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사례 H, 62세 여, 교사)

난 진지한 건 하기가 싫어~ 지금도 영어나 뭐, 이런 거 배우는 건 싫어요. 그렇게 싫어요, 요즘에는. 싫고. 그냥 노래 불러~ 그냥. 노래 못하지만. 제 쪼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제 갈 데가 없다,

불러주는 데도 적다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복지관 같은 데 노래교실, 댄스스포츠도 하고 싶거든요? 그냥... 노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사례 G, 63세 여, 교장).

남자들은 은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엄마들은 계속 이어 오는 거죠(사례 B, 63세 여, 전업주부)

예. 은퇴 후 여가라는 게 좀 쉬면서, 그동안 막 활동하던 거를 쉬면서, 식히면서도 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아니고, 예. 음...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가에 대해서 저는 뭐, 신중히 생각해 보지를 않았었어요(사례 H, 62세 여, 교사)

<표 3-27> 세대별 여가동반자 비교

(단위: 명, %)

구 분		베이비붐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전체		X^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가동반자	혼자서	**299**	**(57.0)**	**179**	**(51.1)**	**343**	**(54.1)**	**821**	**(54.4)**	28.10**
	가족 및 친척	181	(34.5)	**148**	**(42.3)**	220	(34.7)	549	(36.4)	
	친구(연인)	30	(5.7)	16	(4.6)	61	(9.6)	107	(7.1)	
	직장 동료	9	(1.7)	2	(0.6)	0	(0.0)	11	(0.7)	
	동호회 회원	5	(1.0)	4	(1.1)	8	(1.3)	17	(1.1)	
	기타	1	(0.2)	1	(0.3)	2	(0.3)	4	(0.3)	
전체		525	(100.0)	350	(100.0)	634	(100.0)	1,509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베이비 부머세대는 특히 빈둥지 시기가 19.4년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노후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한경혜, 2011). 또한, 부부간의 연령차이와 학력차이가 감소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베이비 부머의 여가 동반자 현황을 보면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57.0%를 나타내고 있다. 배우자가 포함된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비율에서도 3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비록 예비노인세대는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세대에서 다시

34.7%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남성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에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부부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전 시기부터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와의 여가에 대한 질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여가생활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자신의 여가를 방해받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느라 여가생활을 방해받는 것 때문에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가족여행이나 자녀와 독립해서 배우자와 단 둘이 사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이른바 '따로 또 같이' 여가패턴을 보인다.

> 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기가 좋은 것에 대해선 타치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은 두드래기 나니까는, 나 좋아하는 거 따라하자 소린 안 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난 따라 가줘요, 그냥(사례 B, 63세 여, 전업주부/외무부대사 부인)

> 내 이유는 그거죠. 남자는 하루 죙일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잠만 자는 하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들어 남자 분들이 식사도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집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깐 내가 어디 나갈라면, 주로 점심 약속이 12시 1시 잖아요.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근데 안 나가시고 집에 있으면... 그 스트레스...이 집은 다~ 차려놓고. 그러니깐 내가 미리 차려놓을 수는 없으니깐. 시간 딱 12시 되면 다다닥 챙겨 놓고. 밖으로 나 나간다고. 그런데 그게 한 두 번 되는데 자꾸 하니깐 본인 생각은 내가 집에서 노니깐 쟤가 나가질 못하나. 그러니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생기고(사례 B, 63세 여, 전업주부/외무부대사 부인)

> 어... 그, 요즘에 보면, 저희 동네도 보며는 댄스 그걸 많이 해요. 어, 그거 아주 괜찮아 보인다 그랬더니, 아이 그건 싫다 이거야. 그런 몸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 아뇨, 뭐 섭섭할 것도 없고, 사실 뭐 크게 기대도 안 하고 물어봤었으니까. 물론 있죠.

그런 거(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 보면 부럽긴 하죠. 취미 정서가 틀리니까. 우리 집사람, 또 음악 이런 건 정말 싫어해요. 저는 음악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카리나, 합창, 기타. 그런데 막 싫어하니까 혼자만 하는 거지(사례 C, 63세 남, 건설업 관리직)

같이 안 다니지. 나는 여기 다니면, 당신은 여기가. 솔직한 얘기루요. 조금 같이 다니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야, 우리 부부끼리 어디' 그러면 미쳤니? 이러지 덜. 여자친구들끼리 다니는데 남자들은 자꾸만 집으로 이렇게 친구가 떨어지더라구요(사례 F, 60세 여, 교사)

네... 운동을, 우리 집사람은 싫어해. 안 해.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드라구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대로 다 하고, 여가 보내고.... 주로 친척집에 많이 가요. 언니네, 그런 데를 많이 가더라고(사례 E, 61세 남, 호텔리어)

나들이. 어디 가는 건 무박. 2박 3일, 1박 2일 이런 거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데리고. 그들이'휴가, 엄마, 언제쯤 갑시다'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꼭 지금은 그렇게 다녀요. 손잡고. 손자, 손녀 데리고...남편한테 같이가 하면, 남편은'어우,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면 나 혼자 가...(사례 G, 63세 여, 교장)

저희 아이들은 다 외국에 지금 가 있어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있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이 될 때요, 남편하고 같이 뭐... 많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죠 뭐. 등산도 가끔 가죠...(사례 H, 62세 여, 교사)

2) 여가패턴에 따른 분석

여가활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여가활동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얼마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본인의 여가활동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여가활동들을 토대로 개인의 여가활동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 여가활동들을 활용하였으며, 세부 여가활동들을 A에서 H까지 총 8개 여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3-28> 베이비 부머세대의 여가활동 패턴 유형

(단위: 명, %)

1~3순위					2~4순위				
선택패턴[1]		설명	현황		선택패턴*		설명	현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일형	DDD	모두 스포츠참여 활동	1	(0.2)	동일형	FFF	모두 취미오락 활동	6	(1.1)
	FFF	모두 취미오락 활동	1	(0.2)		GGG	모두 휴식 활동	19	(3.6)
	GGG	모두 휴식 활동	64	(12.2)		HHH	모두 사회 및 기타 활동	1	(0.2)
	소계		**66**	**(12.6)**		소계		**26**	**(5.0)**
중복형	OOX	앞중복형	127	(24.2)	중복형	OOX	앞중복형	107	(20.4)
	XOO	뒤중복형	67	(12.8)		XOO	뒤중복형	89	(17.0)
	OXO	앞뒤중복형	63	(12.0)		OXO	앞뒤중복형	61	(11.6)
	B중복형	문화예술참여활동 중복	1	(0.2)		A중복형	문화예술관람활동 중복	1	(0.2)
	D중복형	스포츠참여활동 중복	9	(1.7)		D중복형	스포츠참여활동 중복	9	(1.7)
	F중복형	취미오락활동 중복	45	(8.6)		E중복형	관광활동 중복	1	(0.2)
	G중복형	휴식활동 중복	185	(35.2)		F중복형	취미오락활동 중복	88	(16.8)
	H중복형	사회 및 기타활동 중복	17	(3.2)		G중복형	휴식활동 중복	120	(22.9)
						H중복형	사회 및 기타활동 중복	38	(7.2)
	소계		**257**	**(49.0)**		소계		**257**	**(49.0)**
혼합형	A주도형	문화예술관람활동 주도	4	(0.8)	혼합형	A주도형	문화예술관람활동 주도	5	(1.0)
	B주도형	문화예술참여활동 주도	1	(0.2)		B주도형	문화예술참여활동 주도	2	(0.4)
	C주도형	스포츠관람활동 주도	3	(0.6)		C주도형	스포츠관람활동 주도	7	(1.3)
	D주도형	스포츠참여활동 주도	24	(4.6)		D주도형	스포츠참여활동 주도	43	(8.2)
	E주도형	관광활동 주도	2	(0.4)		E주도형	관광활동 주도	8	(1.5)
	F주도형	취미오락활동 주도	27	(5.1)		F주도형	취미오락활동 주도	46	(8.8)
	G주도형	휴식활동 주도	133	(25.3)		G주도형	휴식활동 주도	89	(17.0)
	H주도형	사회 및 기타활동 주도	8	(1.5)		H주도형	사회 및 기타활동 주도	42	(8.0)
	소계		**202**	**(38.5)**		소계		**242**	**(46.1)**
전체			**525**	**(100.0)**	전체l			**525**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1) A유형:문화예술관람활동, B유형:문화예술참여활동, C유형:스포츠관람활동, D유형:스포츠 참여활동
E유형:관광활동, F: 취미오락활동, G: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표 3-28>은 여가활동 우선순위 중에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한 여가활동들을 조사하여, 여가활동의 유사성(여가활동 유형 범주)에 따라 여가패턴을 구분한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세 가지 활동 모두가 동일한 여가유형 범주에 속할 경우 '동일형', 두 개만이 동일한 여가유형 범주에 속하면 '중복형', 그리고 세 가지 여가활동이 모두 다른 유형범주에 속할 경우 '혼합형'이라고 칭하였다.

동일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2.6%, 중복형은 49.0%, 혼합형은 38.5%로 중복형의 여가패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여가패턴에서 휴식활동(G유형)이 가장 많아서 동일형의 경우 세 가지 여가활동이 모두 휴식활동인 경우(G동일형)가 97%인 64명이었고, 휴식활동이 두 개로 중복된 경우가 72%인 185명(G중복형), 그리고 혼합형 중에서도 1순위가 휴식활동(G주도 혼합형)이 65.8%인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범주에 TV시청과 낮잠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응답자들이 1순위로 TV시청과 낮잠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1순위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TV시청 또는 낮잠 응답성향을 감안하여 2순위부터 4순위까지 세 가지 여가활동 유형으로 다시 여가패턴을 재구성해 보아도, 휴식활동 중심으로 여가패턴 특성은 유지되고 있었다.

<표 3-29> 세대별 여가활동 패턴 유형 비교

(단위: 명, %)

구 분	베이비붐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일형	66	(12.6)	66	(18.9)	158	(24.9)
중복형	**257**	**(49.0)**	**194**	**(55.4)**	**370**	**(58.4)**
혼합형	202	(38.5)	90	(25.7)	106	(16.7)
전체	525	(100.0)	350	(100.0)	634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표 3-29>는 여가활동 패턴 비율을 세대별로 제시하고 있다. 중복형의 여가패턴은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형 여가패턴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베이비붐 세대

에서 노인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일형 중에서도 휴식활동 중심의 여가활동(GGG패턴)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세대의 30% 정도는 휴식활동과 관련된 여가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혼합형 여가패턴은 베이비붐 세대에서 노인세대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노인세대 내에서도 혼합형 여가패턴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노인세대들의 여가 다양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여가패턴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기 베이비 부머 중에서는 중복형 패턴(47.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혼합형(40.2%), 동일형(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베이비 부머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복형과 혼합형의 비율차이가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중복형, 혼합형, 동일형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동일형 패턴이 더 많고, 혼합형 패턴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이 동일형 패턴이 가장 적은 7.4%인 반면에 혼합형 패턴은 47.6%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형 여가패턴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혼합형 여가패턴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0> 베이비 부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활동 패턴 유형 비교

(단위: 명, %)

구 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전체		X^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생년	후기 베이비 부머	34	(12.5)	128	(47.2)	**109**	**(40.2)**	271	(100.0)	0.782
	전기 베이비 부머	32	(13.8)	129	(50.8)	93	(36.6)	254	(100.0)	
성	남자	28	(10.8)	125	(48.1)	**107**	**(41.2)**	260	(100.0)	2.371
	여자	**38**	**(14.3)**	132	(49.8)	95	(35.9)	265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	(16.2)	91	(54.5)	49	(29.3)	167	(100.0)	13.573**
	고졸	28	(13.4)	99	(47.4)	82	(39.2)	209	(100.0)	
	대졸 이상	**11**	**(7.4)**	67	(50.0)	**71**	**(47.6)**	149	(100.0)	
소득수준	하	40	(15.2)	133	(50.6)	90	(34.2)	263	(100.0)	11.105*
	중	21	(13.7)	72	(47.1)	60	(39.2)	153	(100.0)	
	상	**5**	**(4.6)**	52	(47.6)	**52**	**(47.7)**	109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표 3-31> 여가활동 패턴 별 여가시간, 여가비용 비교

(단위: 시간, 분, 천원)

구 분			동일형 (N=66)	중복형 (N=257)	혼합형 (N=202)	F값
여가시간	하루평균여가시간	평일	**3.82**	3.61	3.46	0.816
		휴일	**6.94**	6.35	6.71	1.387
	희망여가시간	평일	**5.08**	4.93	4.88	0.291
		휴일	8.12	7.96	**8.44**	1.700
1회 여가활동 소요시간(1순위)			131.67	128.48	**135.74**	0.435
여가비용	월평균 여가비용		116.67	172.11	**199.65**	4.171*
	월평균 희망여가비용		247.82	277.45	**296.58**	1.170
1회 여가활동 비용(1순위)			0.55	2.05	**4.77**	6.31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혼합형이 동일형보다 실제로 소비한 여가시간은 평일이나 휴일 모두 적게 나타나지만, 희망여가시간은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형 여가패턴의 대부분이 휴식활동이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여가비용을 보면 혼합형이 동일형이나 중복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 여가활동 패턴 별 여가목적, 참여경로, 동반자, 활동빈도 비교

(단위: 명, %)

구 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전체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	**14**	**(21.2)**	**42**	**(16.3)**	**38**	**(18.8)**	94	(17.9)	
즐거움	**20**	**(30.3)**	**54**	**(21.0)**	**31**	**(15.3)**	**105**	**(20.0)**	
마음안정 및 휴식	8	(12.1)	**57**	**(22.2)**	**47**	**(23.3)**	**112**	**(21.3)**	
대인관계	3	(4.5)	21	(8.2)	26	(12.9)	50	(9.5)	
스트레스 해소	**15**	**(22.7)**	**58**	**(22.6)**	**37**	**(18.3)**	**110**	**(21.0)**	24.228
자기계발	0	(0.0)	3	(1.2)	3	(1.5)	6	(1.1)	
자기만족	2	(3.0)	**12**	**(4.7)**	**16**	**(7.9)**	30	(5.7)	
시간 보내기	4	(6.1)	8	(3.1)	4	(2.0)	16	(3.0)	
기타	0	(0.0)	2	(0.8)	0	(0.0)	2	(0.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여가패턴별로 여가목적을 살펴보면, 동일형에서는 즐거움(30.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22.7%)와 건강(21.2%) 순으로 나타났고, 중복형에서는 스트레스 해소(22.6%), 마음의 안정 및 휴식(22.2%), 그리고 즐거움(21.0%)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건강추구는 동일형에 비해 다소 떨어진 16.3%로 나타났다. 한편, 혼합형에서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2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18.8%), 스트레스 해소(18.3%), 즐거움(15.3%), 대인관계(12.9%) 등 다양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대인관계는 동일형(4.5%), 중복형(8.2%)에 비해 12.9%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혼합형 여가패턴의 또 다른 특징으로 사료된다.

<표 3-33> 여가활동 선택패턴에 따른 여가인식 및 만족도, 행복수준 비교

구 분	동일형 (N=66)	중복형 (N=257)	혼합형 (N=202)	F값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1)]	3.53	3.44	3.33	1.26
여가비용에 대한 생각[1)]	3.98	3.65	3.65	5.59**
여가생활만족도[2)]	3.50	3.25	3.14	2.85
행복수준[3)]	5.85	6.51	6.75	6.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1) 여가시간 및 비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충분(1점)에서 매우 부족(5점)까지 5점 척도 활용.

2) 여가생활만족도는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매우 만족 (1점)에서 매우 불만족 (5점)까지 5점 척도를 활용.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불만족함.

3) 행복수준은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귀하가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행(1점)에서 매우 행복(10점)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점수를 표시하게 함.

*P<.05, **P<.01, ***P<.001

여가의 다양성이 개인의 여가만족도,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여가활동이라도 몰입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낮은 몰입도로 여러 개의 여가활동을 수행할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패턴에 따라서 여가시간과 비용에 대한 인식과 여가생활 만족도, 그리고 행복수준을 살펴보았다(표 3-33 참고).

여가시간과 비용에 대한 인식은 모든 유형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보임으로써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동일형이 상대적으로 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혼합형(평균 3.33)이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여가패턴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혼합형의 여가패턴을 가진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수준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여가활동 선택패턴 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 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전체		X^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간부족	13	(36.1)	56	(51.4)	23	(30.3)	92	(41.6)	
경제적 부담	22	(61.1)	47	(43.1)	50	(65.8)	119	(53.8)	
정보프로그램부족	0	(0.0)	0	(0.0)	0	(0.0)	0	(0.0)	
여가시설 부족	0	(0.0)	0	(0.0)	1	(1.3)	1	(0.5)	13.872
여가 동반자 부재	1	(2.8)	3	(2.8)	1	(1.3)	5	(2.3)	
자기설계 부족	0	(0.0)	1	(0.9)	0	(0.0)	1	(0.5)	
기타	0	(0.0)	2	(1.8)	1	(1.3)	3	(1.4)	
전체	36	(100.0)	109	(100.0)	76	(100.0)	221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에 대해 여가패턴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일형(61.1%)과 혼합형(65.8%)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중복형(51.4%)은 시간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형의 여가패턴이 주로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표 3-30 참고),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여

가활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혼합형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과 상대적으로 휴식활동 이외의 여가활동들을 즐기기 위한 실질적인 여가비용 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35> 여가활동 패턴 별 동호회 활동

(단위: 명, %)

구 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전체		X^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호회 참여여부	참여함	5	(0.02)	95	(43.6)	118	(54.1)	218	(100.0)	12.740**
	참여안함	21	(0.07)	162	(52.8)	124	(40.4)	307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P<.05, **P<.01, ***P<.001

동호회에 참여하는 응답자 중에서 혼합형 여가패턴(54.1%)이 가장 많은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는 중복형 여가패턴(52.8%)이 가장 많은 것을 조사되었다.

3) 동호회 활동 분석

전체 525명의 베이비 부머 응답자 중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218명으로 41.5%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47.3%)가 여자(35.8%)보다 동호회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베이비 부머(39.4%) 보다는 후기 베이비 부머(43.5%)의 동호회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동호회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6> 동호회 활동 참여여부

(단위: 명, %)

		참여함		참여안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8	(41.5)	307	(58.5)
성	남자	123	(47.3)	137	(52.7)
	여자	95	(35.8)	170	(64.2)
출생년	전기 베이비 부머	100	(39.4)	154	(60.6)
	후기 베이비 부머	118	(43.5)	153	(56.5)
교육수준	중졸이하	49	(29.3)	118	(70.7)
	고졸	87	(41.6)	122	(58.4)
	대졸이상	82	(55.0)	67	(45.0)
소득수준	하	41	(25.6)	119	(74.4)
	중	119	(46.5)	137	(53.5)
	상	58	(53.2)	51	(4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표 3-37> 동호회의 주요 활동

(단위: 명, %)

주요 동호회	빈도	비율
계모임/동창회	49	(22.5)
친구만남/동호회	43	(19.7)
구기운동	27	(12.4)
등산	20	(9.2)
사회봉사	17	(7.8)
종교활동	13	(6.0)
기타[1)]	49	(22.5)
전체 (%)	218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기타 동호회는 5명(1.0%) 미만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는 총 22개 동호회가 있음.

동호회의 주요 활동은 곧 동호회의 성격을 말해준다. <표 3-37>에 따르면, 계모임이나 동창회(22.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만남이나 취미생활 동호회(19.7%), 구기운동(12.4%), 등산(9.2%)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7.8%)와 종교활동(6.0%)을 통한 동호회 활동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기운동(12.4%)을 포함하여 기타 동호회로 분류되었던 배드민턴/맨손체조(1.7%), 수상운동(1.1%), 사이클링/산악자전거(1.0%), 헬스(0.4%), 육상/조깅/속보(0.4%), 댄스스포츠(0.2%) 등 운동 및 스포츠 활동 동호회는 전체적으로 17.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8> 참여 동호회 수

(단위: 명, %)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N = 218)	2.43	89	(17.0)	59	(11.2)	28	(5.3)	13	(2.5)	18	(3.4)	11	(2.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표 3-39> 동호회 참여빈도

(단위: 명, %)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몇 달에 1번(%)
전체(N=218)	4(0.8)	29(5.5)	67(12.8)	89(17.0)	29(5.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는 1개인 응답자가 89명(1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개(59명, 11.2%), 3개에 동시에 동호회 가입을 한 응답자는 28명(5.3%)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가입 동호회 수는 2.43개로 나타났다.

동호회 참여빈도는 한 달에 1번이 가장 많은 89명(17.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 달에 2~3번이 67명(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0>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소속

(단위: 명, %)

구분		직장	학교 (동문·동창)	온라인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타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	28(22.8)	18(14.6)	11(8.9)	57(46.3)	7(5.7)	2(1.6)	123(100.0)
	여성	3(3.2)	5(5.3)	5(5.3)	14(14.7)	14(14.7)	5(5.3)	95(100.0)
	전체	31(14.2)	23(10.6)	16(7.3)	21(9.6)	21(9.6)	7(3.2)	218(100.0)
예비 노인 세대	남성	4(6.1)	14(21.2)	0(0.0)	39(59.1)	6(9.1)	3(4.5)	66(100.0)
	여성	1(1.7	9(15.3)	1(1.7)	29(49.2)	17(28.8)	2(3.4)	59(100.0)
	전체	5(4.0)	23(18.4)	1(0.8)	68(54.4)	23(18.4)	5(4.0)	125(100.0)
노인 세대	남성	1(1.3)	8(10.0)	2(2.5)	56(70.0)	7(8.8)	6(7.5)	80(100.0)
	여성	0(0.0)	3(4.1)	0(0.0)	45(61.6)	22(30.1)	3(4.1)	73(100.0)
	전체	1(0.7)	11(7.2)	2(1.3)	101(66.0)	29(19.0)	9(5.9)	153(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소속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14.2%), 학교(10.6%), 종교단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는 여성 베이비 부머가 66.3%로 남성 베이비 부머(46.3%)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교단체 동호회에서도 여성(14.7%)이 남성(5.7%)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직장 소속의 동호회는 남성(22.8%)이 여성(3.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학교 소속 동호회에서도 남성(14.6%)이 여성(5.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호회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이나 학교중심의 동호회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직장소속의 동호회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14.2%)로 가장 높았고, 은퇴 이후의 세대인 예비노인과 노인세대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 중심의 동호회(예, 동창회)는 베이비붐 세대(10.6%)보다 예비노인 세대(18.4%)가 더 높지만 노인세대에서는 7.2%에 불과하였다. 은퇴 이후 시기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동문회 등 학교소속의 동호회 활동이 증가하지만, 노인세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소속 동호회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활동인 동호회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비노인세대(54.5%)는 베이비붐 세대(5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인세대(66.0%)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반 동호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비율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종교활동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9.6%인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는 18.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장 중심의 동호회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고, 학교는 은퇴 직후인 예비노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은 노인세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종교활동은 예비노인세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동호회 활동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은퇴 직후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 보다는 학교 중심의 동창회/동문회와 종교활동의 동호회 활동이 다소 강세를 보이다가 노인세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41>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

(단위: 명, %)

		더 많은 자유시간 필요(%)	동호회 활동 공간 필요(%)	설비, 장비 필요(%)	동호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필요(%)	기타(%)
전체(N=525)		269(51.2)	72(13.7)	43(8.2)	115(21.9)	26(5.0)
동호회 활동	활동함(N=218)	112(51.4)	40(18.3)	15(6.9)	43(19.7)	8(3.7)
	활동안함(N=307)	157(51.1)	32(10.4)	28(9.1)	72(23.5)	18(5.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더 많은 자유시간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호회 참여와 확대를 위한 정보 필요가 21.9%,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필요가 13.7%, 설비 및 장비 필요가 8.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호회 활동을 하는 베이비 부머(18.3%)는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베이비 부머(10.4%)에 비해 동호회 활동 공간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동호회 참여 및 확대를 위한 정보에서는 동호회 참여 응답자가 19.7%, 동호회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23.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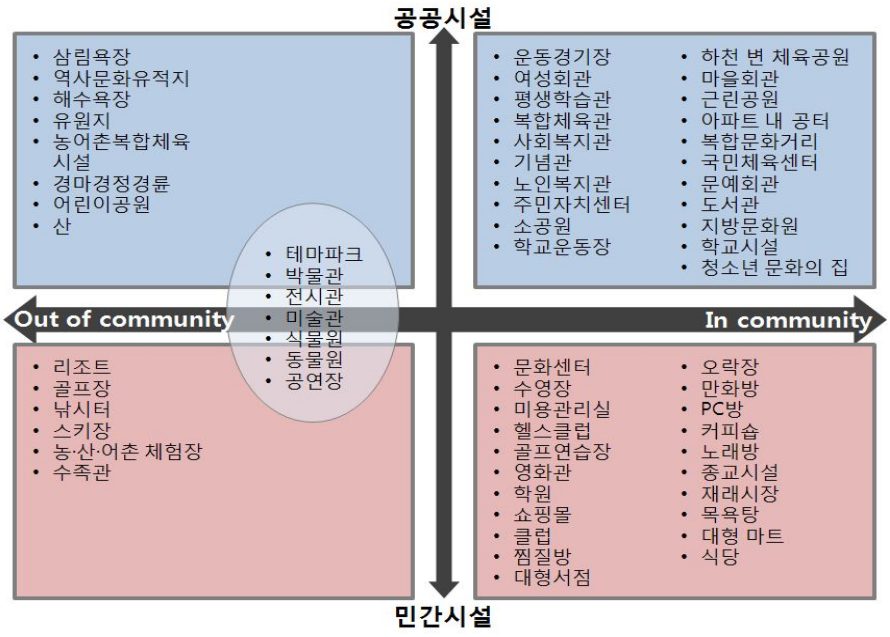
다. 여가기관 및 시설

1) 여가기관 및 시설 유형 (공공영역 vs. 민간영역/ 지역사회 안 vs. 지역사회 밖)

여가기관 및 시설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현황 및 실태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기관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여가시설과 민간영역의 여가시설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여가시설/기관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지, 지역사회 밖에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여가시설유형 구분(민간영역 vs. 공공영역 & 지역사회 안 vs. 지역사회 밖)



[그림 3-2]는 2010년「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제시한 여가시설들을 바탕으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인지에 따라 한 축을 구축하였고, 시설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밖에 있는지에 따라 나머지 한 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면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들은 운동경기장,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 여가시설이 있으며, 민간시설이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가시설로는 문화센터, 수영장, 미용관리실,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영화관 등 많은 시설들이 있다. 한편, 공공시설이면서 지역사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로는 삼림욕장, 역사문화유적지, 해수욕장, 유원지 외 다수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면서 지역사회와 떨어진 곳에 있는 여가시설로는 리조트, 골프장, 낚시터, 스키장, 농어촌 체험관, 수족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매우 임의적인 작업으로 특정 여가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로 운영되기도 하며, 혹은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테마파크,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식물원, 공연장 등은 민·관시설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표 3-42> 세대별 시설 분류에 따른 이용여가기관(시설) 및 희망여가기관(시설)

(단위: 명, %)

구 분	베이비 부머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이용		희망		이용		희망		이용		희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시설	582	(37.0)	611	(38.8)	490	(46.7)	490	(46.7)	1,117	(58.7)	995	(52.3)
민간시설	939	(59.6)	762	(48.4)	536	(51.0)	434	(41.3)	730	(38.4)	683	(35.9)
민관시설	20	(1.3)	175	(11.1)	10	(1.0)	107	(10.2)	19	(1.0)	201	(10.6)
기타	34	(2.2)	27	(1.7)	14	(1.3)	19	(1.8)	36	(1.9)	23	(1.2)
전체	1,575	(100.0)	1,575	(100.0)	1,050	(100.0)	1,050	(100.0)	1,902	(100.0)	1,902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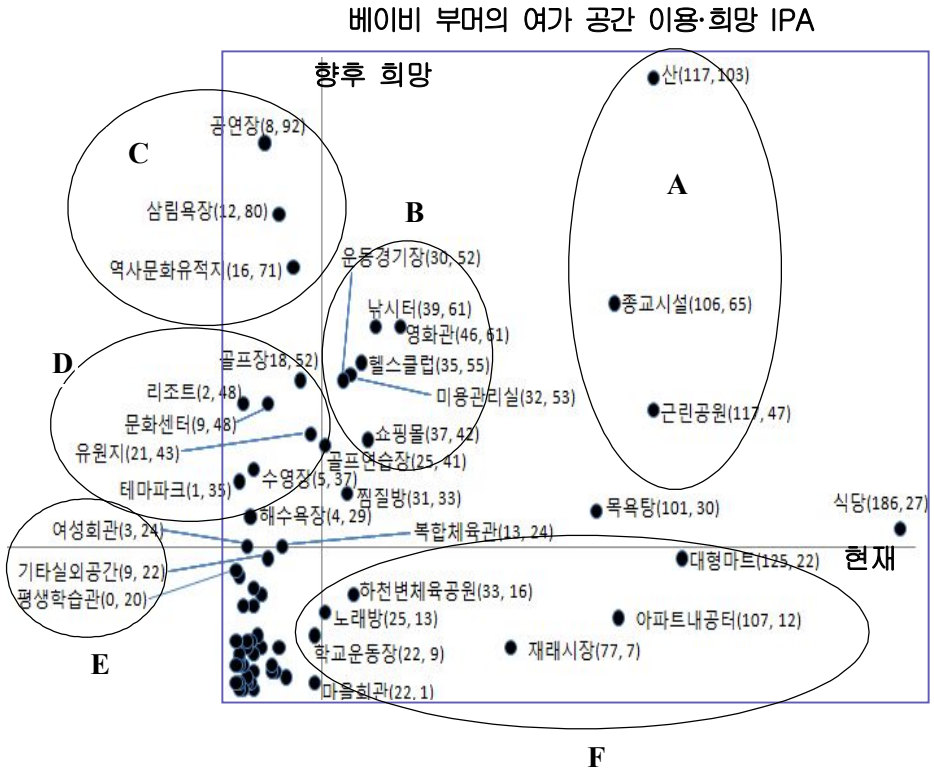
베이비 부머는 여가시설로 공공시설(38.8%)보다는 민간시설(48.4%)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용하는 여가시설은 물론 향후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여가시설에서도 민간시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는 현재 이용여가시설은 민간시설이 조금 더 많지만, 향후에는 민간시설(41.3%)보다 공공시설(46.7%)

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경우는 현재에도 공공여가시설(58.7%)을 더 많이 이용하지만, 향후에도 공공여가시설(52.3%)을 민간여가시설보다 더 많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민관시설에 대한 이용도와 향후 희망정도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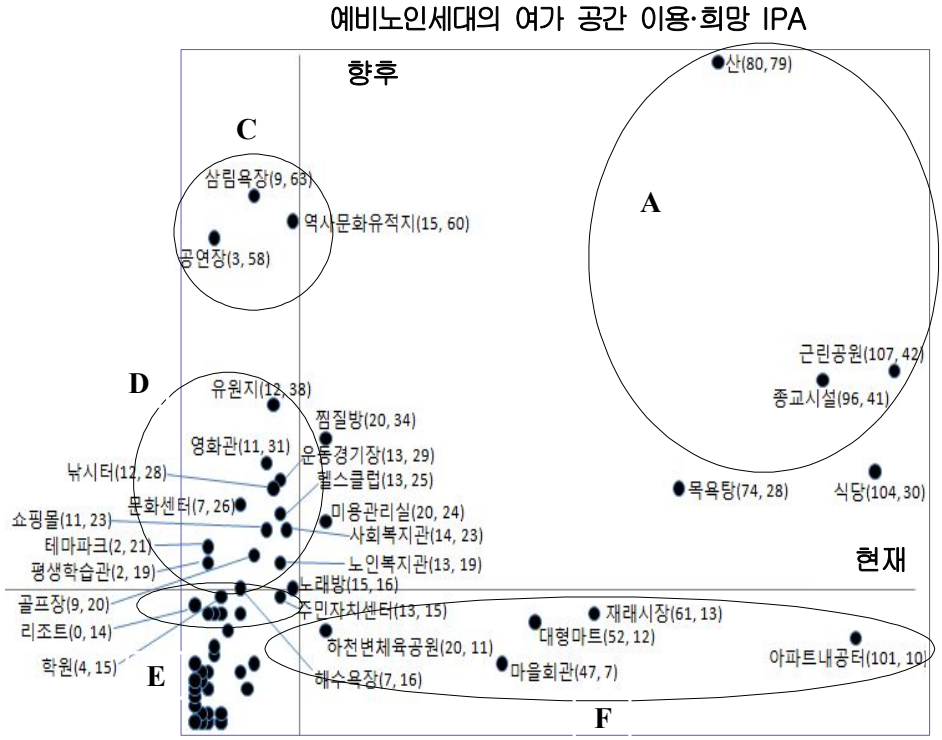
2)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에 따른 여가기관 및 시설 분석

현재 이용하는 여가시설과 향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가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를 토대로 하여 각 각의 평균 빈도를 X축과 Y축의 교차점으로 하여 두 축을 교차시키고, 여가시설들을 해당 빈도 점수에 맞게 위치 설정을 하였다. 현재 이용 여가시설과 희망 여가시설 모두 평균 23.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기법은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으로 X축과 Y축을 교차시켜 나타나는 4사분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그림 3-3]의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분면(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들은 현재 이용하는 것도 평균 이상이며, 향후 희망하는 여가시설로도 평균 이상인 시설이다. 왼쪽 상단 분면(2사분면)은 현재에는 평균 이하의 이용실적을 보이지만, 향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평균 이상의 빈도를 보인 시설이 된다. 왼쪽 하단 분면(3사분면)은 현재에도 이용 빈도가 평균이하이며,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도 평균 이하인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 분면(4사분면)은 현재 이용은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은 평균 이하인 시설이 된다.

[그림 3-3]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 여가 시설에 따른 IPA 분석



[그림 3-4] 예비노인 세대의 현재 이용 및 희망이용 여가시설에 따른 IPA분석



[그림3-3] 을 보면, 그래프 상에서 원형으로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각 A부터 F까지 영역 표시가 되어 있다. **A영역**의 여가시설은 현재 이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동시에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도 매우 높은 여가시설이다. **A영역**에는 산, 종교시설, 근린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B영역**은 현재 이용 빈도가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매우 높지는 않지만 희망 이용 빈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여가시설들이다. 낚시터, 영화관, 헬스클럽, 미용관리실, 운동경기장, 쇼핑몰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 **C영역**은 현재 이용 빈도는 평균에서 약간 밑도는 수준이지만, 희망 이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공연장, 삼림욕장, 역사문화유적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D영역**은 평균 이하의 현재 이용 빈도를 보이지만, 희망 이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시설로서 골프장, 리조트, 문화센터, 유원지, 테마파크, 수영장 해수욕장 등 주로 민간여가시설들이 있다. **E영역**은 평균 이하의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를 보이지만, 희망 이용빈도가 평균빈도에 가까운 시설로서 향후 '잠재적 여가시설'로서 주목할 만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복합체육관 등 공공여가시설이 있다. **F영역**은 현재 이용빈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희망 이용 빈도가 평균 이하로 나타난 여가시설로서 점차 베이비 부머의 관심을 잃어가는 여가시설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 아파트 내 공터, 재래시장 등은 현재의 높은 이용빈도에 비해 희망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가시설이다.

전반적으로 A, B, C, D영역에 위치한 여가시설들은 희망 이용빈도가 평균 이상인 여가시설로서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가시설들이며, 이들을 보다 세분화 해 보면,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가 모두 높은 A 및 B 영역은 여가활동의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전략이 없어도 높은 이용빈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환경을 통해서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C와 D영역은 높은 관심에 비해 현재 이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연장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지역사회 내의 공연시설을 구축하고, 여가활동의 주요 불만족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E영역은 통계적 수치로는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가능성을 보이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은 평생학습과 취미·오락활동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표적화(targeting)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F영역에서 아파트내 공터나 재래시장, 하천변 체육공원등은 현재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향후 희망 이용빈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여가시설들에 대한 대응전략은 또 하나의 방대한 연구영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편, 예비노인 세대의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에 따른 IPA가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B영역의 시설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치상으로 비슷한 영역에 있지만, 해당되는 여가시설들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A와 C영역의 여가시설은 두 집단이 일치하고 있지만, D영역에서는 평생학습관이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공공여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E영역에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D영역에 속해 있었던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베이비 부머에게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예비노인세대들에게는 민간여가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내 공공여가시설(복지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잠재적인 여가시설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베이비 부머가 은퇴 이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지역사회 공공여가시설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적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이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가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4.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방향성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여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가관련 특성, 여가활동의 실태분석, 그리고 여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가. 여가문화참여 욕구에 기반한 대응전략

베이비 부머의 세부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TV시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그리고 낮잠, 등산,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쇼핑 및 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을 여가활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문화 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침 참여활동, 관광활동 등은 현재 여가활동은 매

우 미미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유형에서는 현재에는 단순히 영화관람에서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관람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여가활동에 비해 희망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은 관광활동이다.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관광활동으로 해외여행, 삼림욕장, 온천/해수욕장,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 및 풍경 방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참여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욕구수준이 높은 여가활동 영역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대상의 세분화를 통한 대응전략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 이외에도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및 휴일)과 여가비용에서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적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 여가시간은 많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비용에서도 남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여가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의 목적에 있어서는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여가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 여가의 주요목적인 반면에 스트레스 해소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

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전통예술관람 등 관람에 관심이 높으며, 사진촬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음악연주회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남자는 사이클링/산악자전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여성들은 요가/필라테스/태보, 댄스스포츠를 하고 싶어 했다.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성은 낚시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은 미용, 어학/기술 자격증 등 학습활동, 그리고 요리하기/다도 등 다양한 영역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는 남성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종교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혼합형 여가패턴 비율이 높았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혼합형 여가패턴의 비율이 높아 보다 다양한 유형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대상별로 여가시간활용, 여가비용, 여가목적, 여가활동 유형, 여가패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전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성화 방안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게 될 경우, 직장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생활기반을 전화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응여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소속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는 지역사회, 학교(동문, 동창), 직장, 종교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예비노인 세대와 노인세대를 비교해 볼 때, 직장소속의 동호회와 학교 소속 동호회는 감소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와 종교단체의 동호회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지역사회 소속의 동호회 비율은 세대와는 무관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이후 지역사회 적응은 노년기 여가활동은 물론 삶의 질에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빈도를 활용한 IPA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 내 여가시설로 종교시설과 근린공원이 가장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 희망 이용빈도에서 주목할 만한 시설로는 여성회관과 평생학습관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노인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 이외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 부머가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여가인식의 강화

SOC Model에 의하며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주로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선택(selection)과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완/보상(compens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중장년기 때의 상태로 복원(resilience)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성공적 노화'라고 말한다. 이때 선택에는 선별적 선택(elective selection)과 상실에 의한 선택(loss-based selection)이 있는데, 은퇴(직업의 상실)나 건강악화(건강의 상실) 등 상실에 의한 선택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선별적 선택은 상대적으로 인식의 정도 약하다. 즉, 노후설계에서도 재무관리나 건강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이후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일 중심의 생활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 부머에게는 일을 위한 휴식이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이른바 '여가투성이'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곧 여가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 세대, 그리고 노인세대의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여가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꿈꾸고 있는 희망 여가생활을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꿈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에게 은퇴 이후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실천의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가생활을 홍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마. 여가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접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가시간 자체보다는 여가시간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었던 반면에, 여가비용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여가비용과 더불어 사용한 여가비용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여가비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가 불만족 이유에서도 베이비 부머는 시간 부족(41.6%)보다도 경제적 부담(53.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의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이 약 27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11만2천원보다 약 15만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소비하고 있었다. 희망여가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비용보다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버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가의 비용측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소득불평등 장기 전망

1. 서론

, 2018 ‘ ’, 2026 65
20.8% ‘ (超) ’
.
. ,
.
1997
.

. · (2005) 2002
0.417 60 ~65 0.523, 65 ~70
0.529
.
.
, ·
.
. 1955 1963
14.6%
(, 2010). , ,

,

.

(,

2010; , 2010). ,

,

. ,

. ,

,

.

.

.

2.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

,

. .

, 1991

2010 ,

. 20

. ,

, , , , ,

,

.

.

,

,

.

나. 분석자료

「 ( )」 , 1991

1996 , 2001 , 2006 , 2010 5 20

. 5 2011

2011 2010 .

, 20

2 . 1

.

2 .

다. 연구내용별 분석방법

, , ①

, ② , ③

,

.

1)

8 28 -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 .

1991 , 1951-1955 , 1946－1950 , 1941-1945 , 1936-1940 , 1931-1935 , 1926-1930 , 1925 . 1991 28 , .

5 1996 1955 -1960 5 .

2)

.

0, 1 . , 0 , 1 .

, SAS .

$$GINI = \frac{1}{\mu n^2} \sum_i \sum_j |y_i - y_j|$$

, .

< 1> .

Lerman Yitzhhki(1985)

< 1>

$$Gini = 2\frac{Cov[y, F(y)]}{\mu_y}$$

, 2

. , $y = \sum_{K=1}^{K} Cov(y_k, F)$,

< 1> <

2> .

< 2>

$$Gini = 2\frac{\sum_{K=1}^{K} Cov[y_K, F(y)]}{\mu_y}$$, $Cov[y_K, F(y)]$,

, μ_y .

< 2> $Cov[y_K, F(y_K)]$ μ_K

< 3> .

< 3>

$$Gini = \sum_{K=1}^{K} \frac{Cov[y_K, F(y)]}{Cov[y_K, F(y_K)]} \bullet \frac{2Cov[y_K, F(y_K)]}{\mu_K} \bullet \frac{\mu_K}{\mu_y}$$

$$Gini = \sum_{K=1}^{K} R_K G_K S_K$$

R_K

, G_K

, S_K

.

3)

. , 20

2030

.

3. 선행 연구 검토

.

가.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

.

, (· · · , 2002; , 2008; , 2009; · , 2009), , 50 (· · , 2007; · , 2008), , (, 2002; , 2008) .

, .

(2002)

1998 (, 1998) (65~69)

(70) .

.

(· · , 2007).

(2008) 1996 2006

,

. 1996

2006 ,

.

.

.

(, 2009).

(2009) 1999, 2002, 2004, 2006

. 2003 2005

,

.

,

.

.

· (2009) 1

.

,

.

.

.

.

(, 2011; , 2009).

.

50

,

.

(2007) , 1~8

,

.

,

.

,

. . (2008)

2~9 50 ·

, , , .

. , ,

, .

.

(2002) (2008)

. (2002) ,

2001 2024

.

,

.

(2008) , ,

, .

1986 2006 ( )

5 , 20

. 20

,

.

, , ,

,

.

.

,

.

나. 노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요인[2)]

,

① , ② , ③

• .

2) (2008) pp.93~100 .

1)

,

, , , .

.

· · (1995)

,

(1995) 1980

1980

.

,

(, 1995; · , 2001;

, 2007). · (2001) ‘ ’

1993 -1998 1998

. (2007)

1985 ~2004

.

2)

,

(· , 2003; , 2000; , 1998; , 2007;

Murphy, Kevin M. & Finnis Welch, 1993; Freeman, Richard B., 1993). ,

, , ( )

( ) ,

, , , ( )

. Murphy et. al.(1993) 1968-1990 CPS

,

1963-1994 CPS

Gottschalk(1997)

.

. (2000) 1991~1999

( ) ( ) ,

.

· (2003) 1994 ~2000

(2000)

. , ,

,

.

,

(, 2007).

. Freeman(1993)

1980 , Horrigan(1993)

. (1998)

,

.

3) ·

,

·

.

·

.

,

(, 2002; , 2005; · , 2006; · ; 2007; · · · , 2002).

(, 2002; · , 2007)

,

(· , 2005; Mookherjee, 1982).

.

.

. 1999～2005 · (2007) ,

,

,

.

,

.

.

,

.

.

(· , 2004; Cancian et. al, 1993; Danzinger, 1980; Daly, 2004),
(Burtless, 1999; Cancian & Reed, 1999; Juhn & Murphy, 1997; Karoly, 1995). Daly(2004) 1968-1999 CPS

,

, ·

(2004) 1982~2003

20

. , Juhn(1997)

, Karoly(1995)

.

(, 2002; , 2002).

(, 2002),

(, 2001).

.

, ,

(, 2005; , 2005; · · , 2002;

· , 2002; , 2001; , 2005).

,

(· , 2002; ·

, 2001; , 2005). · (2007)

1992-2002 ,

53~85%

.

(· , 2002). (2005) 1990

,

.

(, 2005; Lerman, 1991). · ·

(2002) ,

,

1 .

,

. ,

.

,

,

.

.

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1) /

1955 1963
(· , 2011). 3.0
1955~1974
(, 2010; , 2010; · , 2011).
1955~1964 , 1965~1974
, 34%
1,650 20 (·
, 2011).

2)

2000 ,
1955 2010
(, 2010).
< 3-43> ,

(, 2010).

, , ,

.

.

, (2010, 2011)

,

, .

(2011) , , ,

.

,

. (,) (,

)

.

.

.

.

(2011) .

,

, , .

25% ,

, ,

.

,

.

(2011) 2009

. 80%

,

45% 19% .

20% ,

.

.

1990

.

, ,

(Easterlin, Scahffe & Macunovich, 1993; Sabelhaus & Manchester, 1995; Deeb-Sossa, 2001; Lusardi & Mitchell, 2006; , 2011).

Gibson(1993)

.

, Moore(2006)

. Moore SIPP data

(1946~1950), (1951~1955), (1956~1960) ,

, , .

, ,

.

20% 20% 1/4 ,

1/7

.

Lusardi & Mitchell(2007)

,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 3-43>

대주제	연구자	주제	세대 정의	자료
노동 및 은퇴	박시내·김규호(2010)	현황 및 은퇴효과	1955-1963년생	가계동향조사 및 다수
	방하남 외(2010)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경제적 부양부담, 건강과 노동능력, 자산 및 사회적 자본 등	1955-1963년생	한국노동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등 다수
	정호성 외(2010)	은퇴의 파급효과분석-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측면	1955-1963년생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가계동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방하남 외(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세대내 불평등, 노후생활준비 등	1955-1963년생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교육개발원),고령화연구패널, 한국노동패널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 고찰	1955-1974년생	통계청 및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자료 활용
노후 준비 (소득, 연금, 저축등)	허은정·김우성(2003)	소비지출 및 저축 (X세대와의 비교)	1955-1964년생	2000년 도시가계연보
	최성철(2007)	국민연금제도의 수지차 불균형	1955-1963년생	국민연금관리공단
	석재은·이기주(2010)	경제활동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전략	1955-1963년생	2009년 노후보장패널 외
	정의신(2010)	사적이전을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세대간 형평성(세대비교)	1955-1975년생	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자료로 분석자료 재구축(모사패널)
	백은영(2011)	은퇴준비와 준비유형 결정요인	1955-1963년생	사회조사(2009)
	이지영(2011)	베이비 부머 가계 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	1955-1963년생	노동패널
주거 및 부동산	강창호·박창수(2009)	주거만족도와 주거선택	1955-1963년생	강남/일산 거주자 374명
	김상철(2010)	주택소유자의 역모기지 이용의사	1955-1963년생	편의표집 총 309명
기타	김은정(2003)	세대간 및 세대별 가족이념경향(세대비교)	1955-196년생	서울 거주자
	김우성·허은정(2007)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세대비교)	1955-1964년생	경남지역 거주자 365부
	권현정·박화옥(2008)	문화자본과 문화활동	1954-1968년생	수도권 거주자 292명
	정경희 외(2010)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1955-1963년생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중 베이비 부머 자료 사용
	김미령(2011)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세대비교)	1955-1963년생	제1차 여성가족패널
	정순둘·구미정(2011)	베이비 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분석	1955-1963년생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이지영(2011:16) 재구성.

4. 연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

< 3-44> .

, 20

. 1991 7.59% 2010 15.9%

. ,

.

1992 60 2.03%

2010 11.01% .

. , 1991 13.99% 2010

7.52% , 1991 22.25% 20

2010 43.3% .

1 ,

. ,

. , 5

2

. , 2 1991 9.35% 2010

2 22.94% . , 5

1991 25.79% 2010 10.71%

20

.

, 20

, , ,

.

<표 3-44> 연도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 연도	1991 (n=2,951)		1996 (n=3,260)		2001 (n=3,295)		2006 (n=4,753)		2010 (n=4,41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727	(92.41)	2,848	(87.36)	2,800	(84.98)	3,980	(83.74)	3,715	(84.1)
여성	224	(7.59)	412	(12.64)	495	(15.02)	773	(16.26)	701	(15.9)
나이										
30대	1,809	(61.3)	1,693	(51.93)	1,521	(46.16)	1,752	(36.86)	1,437	(32.54)
40대	767	(25.99)	886	(27.18)	1,022	(31.02)	1,703	(35.83)	1,528	(34.60)
50대	315	(10.67)	512	(15.71)	573	(17.39)	941	(19.8)	965	(21.85)
60세 이상	60	(2.03)	169	(5.18)	179	(5.43)	357	(7.51)	486	(11.01)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412	(13.99)	445	(13.65)	348	(10.56)	419	(8.82)	328	(7.52)
중학교졸	559	(18.99)	502	(15.4)	408	(12.38)	516	(10.86)	404	(9.27)
고등학교졸	1,318	(44.77)	1,337	(41.01)	1,486	(45.10)	1,928	(40.56)	1,740	(39.91)
대학교졸	655	(22.25)	976	(29.94)	1,053	(31.96)	1,890	(39.76)	1,888	(43.30)
산업										
1차산업	5	(0.17)	34	(1.04)	27	(0.83)	35	(0.74)	44	(1.00)
제조업	1,032	(34.97)	949	(29.11)	952	(29.21)	1,296	(27.27)	1,043	(23.62)
건설업	483	(16.37)	592	(18.16)	404	(12.40)	631	(13.28)	593	(13.43)
서비스업	1,413	(47.88)	1,678	(51.47)	1,718	(52.72)	2,786	(58.62)	2,731	(61.84)
기타	18	(0.61)	7	(0.21)	158	(4.85)	5	(0.11)	5	(0.11)
직종										
관리직	950	(32.19)	1,284	(39.39)	1,475	(44.76)	1,979	(41.64)	1,890	(42.80)
서비스직	397	(13.45)	263	(8.07)	102	(3.10)	529	(11.13)	473	(10.71)
생산직	1,583	(53.64)	1,706	(52.33)	1,650	(50.08)	2,237	(47.07)	2,043	(46.26)
기타	21	(0.71)	7	(0.21)	68	(2.06)	8	(0.17)	10	(0.23)
가구규모										
2인가구	276	(9.35)	470	(14.42)	629	(19.09)	989	(20.81)	1,013	(22.94)
3인가구	691	(23.42)	877	(26.9)	871	(26.43)	1,388	(29.20)	1,357	(30.73)
4인가구	1,223	(41.44)	1,367	(41.93)	1,352	(41.03)	1,843	(38.78)	1,573	(35.62)
5인이상	761	(25.79)	546	(16.75)	443	(13.44)	533	(11.21)	473	(10.71)

나. 소득불평등 경향 및 원인

20

.

1)

20 [3-5] < 3-45>

. , 1991 2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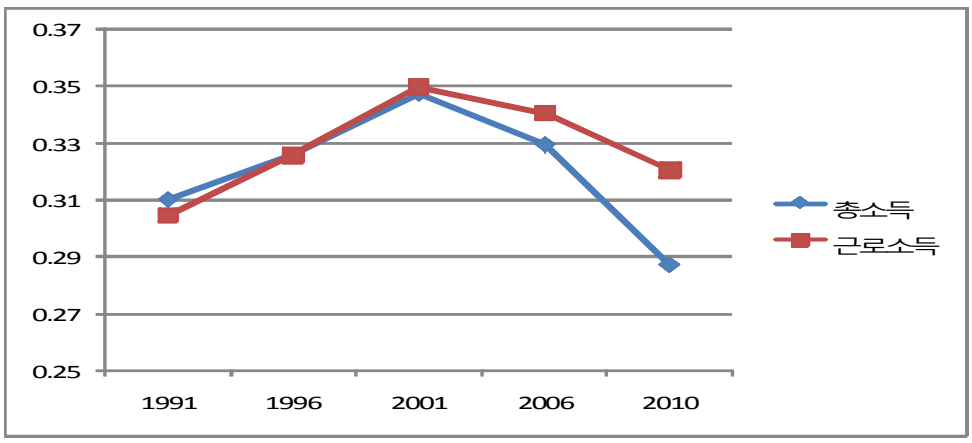
,

1991 IMF 2001

.

.

[그림 3-5]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변화경향



<표 3-4>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1991~2010

	1991	1996	2001	2006	2010
총소득	0.3099	0.3260	0.3472	0.3293	0.28696
근로소득	0.3044	0.3257	0.3497	0.3406	0.32047

2)

[3-6] < 3-46>

, 56 55

.

1991

2001

, , 1996 2001

.

.

, 61~65 1991

1996

2006 . , 56~60 2001

, 66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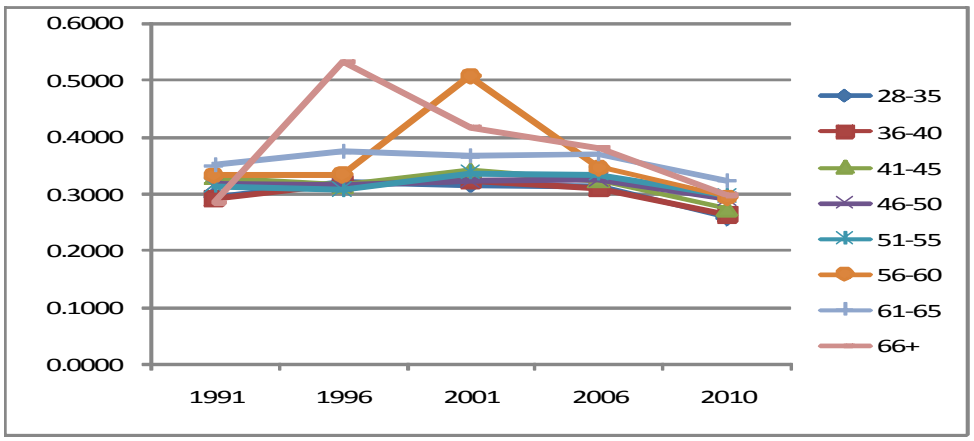
.

( )

( ),

( ) .

[그림 3-6]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변화 경향



<표 3-46> 연도별, 연령별 가구총소득의 지니계수

	1991	1996	2001	2006	2010
28-35	0.2942	0.3207	0.3151	0.3117	0.2581
36-40	0.2931	0.3185	0.3237	0.3105	0.2638
41-45	0.3285	0.3134	0.3404	0.3236	0.2733
46-50	0.3165	0.3146	0.3221	0.3253	0.2914
51-55	0.3133	0.3076	0.3369	0.3346	0.2963
56-60	0.3328	0.3334	0.5057	0.3459	0.2941
61-65	0.3509	0.3744	0.3667	0.3699	0.3225
65+	0.2833	0.5315	0.4162	0.3792	0.2957

3)

, [4-3] < 3-43>

.

,

. ,

28 45

55 .

, 1951-55

,

1946~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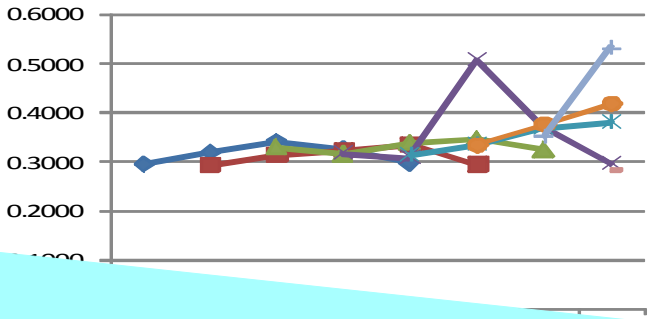
. 1941~1945 56~60 ,

2001 . 1930

, IMF

.

[그림 3-7] 출생코호트별 지니계수 변화



소득				1-935	1926-1930	1925 이전
총소득	5		.3133			
	56		0.3334	0.3328		
	61-		0.3667	0.3744	0.3509	
	66+	57	0.3792	0.4162	0.5315	0.2833

다. 소득불평등의 단기변화 및 요인

20

.

1)

,

,

[3-8] [3-9] .

, 2006

, 2010

. 2001

, 2010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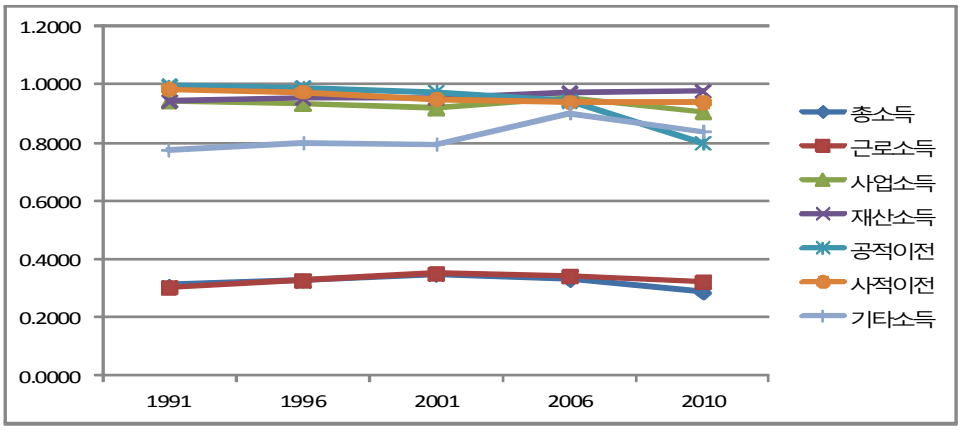
. , 2006 2010

. , 2006

2010 ,

.

[그림 3-8]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경향



, .

, 1991 2001 2001

.

2001

. 2001

201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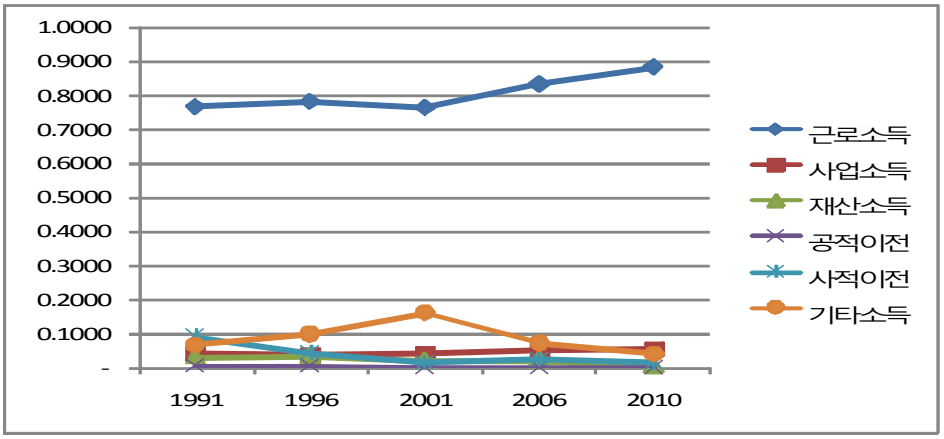
.

. ,

,

.

[그림 3-9] 요소소득의 비중 변화 경향



< 3-48>

.

(Rk), (Gk),

(Sk)

.

, 1991 2001

2006 ,

. 2006

4% 2010 5.1% 1%

.

,

. ,

.

1991 ,

2001

<표 3-48> 연도별 총소득 및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분해결과

년도	요소소득구분	요소소득 평균(원)	Rk	Gk	Sk	I/전체지니
1991	근로소득	451,263	0.92	0.3044	0.85	0.7658
	사업소득	15,088	0.47	0.9443	0.03	0.0404
	재산소득	11,131	0.49	0.9415	0.02	0.0313
	공적이전소득	1,348	0.37	0.9952	0.00	0.0030
	사적이전소득	20,646	0.74	0.9844	0.04	0.0915
	기타소득	30,198	0.48	0.7732	0.06	0.0679
	평균(합)	529,674		0.3099		1.0000
1996	근로소득	1,104,893	0.92	0.3257	0.85	0.7807
	사업소득	40,908	0.41	0.9345	0.03	0.0373
	재산소득	27,085	0.56	0.9516	0.02	0.0338
	공적이전소득	5,766	0.35	0.9895	0.00	0.0047
	사적이전소득	35,562	0.54	0.9742	0.03	0.0443
	기타소득	86,712	0.61	0.7981	0.07	0.0993
	평균(합)	1,300,926		0.3260		1.0000
2001	근로소득	1,324,029	0.92	0.3497	0.82	0.7630
	사업소득	60,323	0.41	0.9179	0.04	0.0402
	재산소득	25,101	0.45	0.9526	0.02	0.0192
	공적이전소득	8,643	0.06	0.9738	0.01	0.0008
	사적이전소득	31,004	0.29	0.9491	0.02	0.0153
	기타소득	165,506	0.69	0.7928	0.10	0.1614
	평균(합)	1,614,607		0.3472		1.0000
2006	근로소득	1,706,121	0.92	0.3406	0.87	0.8310
	사업소득	64,062	0.53	0.9513	0.03	0.0499
	재산소득	24,703	0.60	0.9727	0.01	0.0222
	공적이전소득	28,627	0.01	0.9424	0.01	0.0004
	사적이전소득	53,170	0.29	0.9397	0.03	0.0223
	기타소득	85,195	0.62	0.9015	0.04	0.0742
	평균(합)	1,961,878		0.3293		1.0000
2010	근로소득	1,873,246	0.92	0.3205	0.860	0.8814
	사업소득	93,648	0.40	0.9057	0.043	0.0541
	재산소득	6,245	0.47	0.9775	0.003	0.0045
	공적이전소득	72,437	0.01	0.7993	0.033	0.0005
	사적이전소득	58,608	0.19	0.9384	0.027	0.0169
	기타소득	73,331	0.43	0.8382	0.034	0.0426
	평균(합)	2,177,515		0.2870		1.0000

2) 연령집단별 개별 요소소득의 지니분해

<
3-49> .

,

. ,

. 2001

, .

66 2006 2010

. 66

2010 66

.

, , 2010

.

50 · .

·

, 2006 .

,

. 2010

40 50 , 30

.

,

. , 2001

2006 2010 .

.

<표 3-49> 연령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요소소득	연도 / 연령	1991	1996	2001	2006	2010
근로소득	28-35	0.2734	0.3128	0.3276	0.3136	0.2740
	36-40	0.3019	0.3242	0.3421	0.3247	0.2939
	41-45	0.3025	0.3230	0.3356	0.3370	0.3058
	46-50	0.3287	0.3236	0.3267	0.3295	0.3150
	51-55	0.3216	0.3099	0.3543	0.3383	0.3188
	56-60	0.3822	0.3381	0.4243	0.3493	0.3231
	61-65	0.4249	0.3870	0.3785	0.4181	0.3781
	66+	0.3822	0.4244	0.4465	0.4086	0.4091
사업소득	28-35	0.9459	0.9492	0.9390	0.9785	0.9490
	36-40	0.9392	0.9372	0.9168	0.9542	0.9123
	41-45	0.9489	0.9396	0.9229	0.9388	0.9102
	46-50	0.9360	0.8959	0.9095	0.9422	0.9027
	51-55	0.9426	0.9022	0.8821	0.9285	0.8808
	56-60	0.8995	0.9220	0.8841	0.9499	0.8534
	61-65	0.9428	0.9501	0.8916	0.9286	0.8677
	66+	-	0.9337	0.8531	0.9416	0.8517
재산소득	28-35	0.9628	0.9665	0.9763	0.9861	0.9709
	36-40	0.9348	0.9610	0.9783	0.9911	0.9822
	41-45	0.9315	0.9412	0.9668	0.9757	0.9782
	46-50	0.8982	0.9296	0.9252	0.9570	0.9665
	51-55	0.8816	0.9072	0.8803	0.9573	0.9754
	56-60	0.9037	0.9339	0.9127	0.9430	0.9722
	61-65	0.8985	0.9391	0.8772	0.9334	0.9660
	66+	0.9086	0.8330	0.8829	0.9215	0.9803
공적이전 소득	28-35	0.9979	0.9951	0.9869	0.9281	0.7424
	36-40	0.9949	0.9957	0.9753	0.9244	0.7435
	41-45	0.9955	0.9837	0.9817	0.9591	0.8093
	46-50	0.9889	0.9919	0.9747	0.9661	0.8498
	51-55	0.9868	0.9847	0.9678	0.9668	0.8733
	56-60	-	0.9679	0.9559	0.9095	0.8583
	61-65	-	0.9531	0.8938	0.8277	0.6213
	66+	.	0.9150	0.6347	0.8340	0.5903
사적이전 소득	28-35	0.9901	0.9827	0.9400	0.9338	0.9254
	36-40	0.9723	0.9762	0.9397	0.9391	0.9386
	41-45	0.9919	0.9700	0.9564	0.9499	0.9415
	46-50	0.9689	0.9726	0.9742	0.9529	0.9455
	51-55	0.9587	0.9455	0.9555	0.9583	0.9553
	56-60	0.9246	0.9324	0.9137	0.9349	0.9297
	61-65	0.8057	0.9083	0.8650	0.8198	0.9142
	66+	0.8170	0.8024	0.9098	0.8640	0.8277
기타소득	28-35	0.7525	0.7486	0.7238	0.8913	0.8259
	36-40	0.7788	0.7746	0.6739	0.8697	0.7984
	41-45	0.7537	0.7995	0.7862	0.9188	0.8030
	46-50	0.8373	0.7959	0.7791	0.9156	0.8270
	51-55	0.8239	0.8361	0.7564	0.9174	0.8843
	56-60	0.7610	0.8309	0.9231	0.8730	0.8555

	61-65	0.7254	0.8559	0.7787	0.9197	0.8351
	66+	0.6610	0.9457	0.7914	0.7731	0.7264

,

< 3-50> . 1991

,

2001

.

, 2010

.

, 2010

. .

,

.

.

<표 3-50> 연령별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비중 변화

요소소득	연도 / 연령	1991	1996	2001	2006	2010
근로소득	28-35	0.707	0.788	0.846	0.807	0.868
	36-40	0.811	0.803	0.858	0.871	0.912
	41-45	0.724	0.847	0.731	0.855	0.918
	46-50	0.865	0.794	0.792	0.825	0.871
	51-55	0.821	0.745	0.828	0.817	0.857
	56-60	0.830	0.708	0.469	0.814	0.851
	61-65	0.976	0.723	0.493	0.711	0.704
	66+	0.959	0.353	0.496	0.620	0.677
사업소득	28-35	0.047	0.020	0.023	0.036	0.031
	36-40	0.042	0.059	0.059	0.038	0.048
	41-45	0.038	0.034	0.047	0.060	0.044
	46-50	0.016	0.051	0.051	0.065	0.067
	51-55	0.064	0.024	0.048	0.062	0.072
	56-60	0.011	0.036	0.010	0.032	0.033
	61-65	0.014	0.063	0.093	0.059	0.101
	66+	0.000	0.057		0.035	0.127
재산소득	28-35	0.024	0.009	0.013	0.005	0.002
	36-40	0.016	0.037	0.006	0.031	0.008

	41-45	0.040	0.030	0.022	0.010	0.001
	46-50	0.048	0.038	0.041	0.025	0.005
	51-55	0.029	0.045	0.027	0.023	0.005
	56-60	0.083	0.105	0.015	0.061	0.013
	61-65	0.012	0.083	0.046	0.048	0.006
	66+	0.052	0.038	0.008	0.041	-0.003
공적이전 소득	28-35	0.001	0.003	0.001	0.009	-0.002
	36-40	0.000	0.001	0.003	0.009	-0.011
	41-45	0.000	0.012	0.001	0.008	-0.006
	46-50	0.012	0.000	0.002	0.000	0.006
	51-55	-0.001	0.001	0.000	0.000	-0.002
	56-60	0.008	0.010	0.003	0.024	0.035
	61-65	0.000	0.023	0.035	0.077	0.077
	66+	0.000	0.017	0.010	0.123	0.194
사적이전 소득	28-35	0.130	0.098	0.011	0.035	0.015
	36-40	0.058	0.030	0.005	0.023	0.012
	41-45	0.154	0.012	0.042	0.013	0.025
	46-50	0.005	0.019	0.011	0.023	0.036
	51-55	0.020	0.014	0.008	0.020	0.016
	56-60	0.038	0.001	0.008	0.018	0.001
	61-65	0.012	0.005	0.055	0.010	0.010
	66+	0.100	-0.003	0.083	0.152	-0.012
기타소득	28-35	0.091	0.082	0.107	0.126	0.086
	36-40	0.073	0.071	0.075	0.047	0.032
	41-45	0.044	0.065	0.157	0.070	0.019
	46-50	0.054	0.099	0.107	0.062	0.015
	51-55	0.067	0.171	0.089	0.078	0.052
	56-60	0.030	0.140	0.494	0.051	0.068
	61-65	0.034	0.103	0.279	0.095	0.102
	66+	0.007	0.537	0.320	0.030	0.017

3) 출생 코호트별 개별 요소소득의 지니 분해

(age effect) (period effect)

.

①

3)

. [3-10]

.

1991

, 2010

. , 2001 IMF

1941-45

.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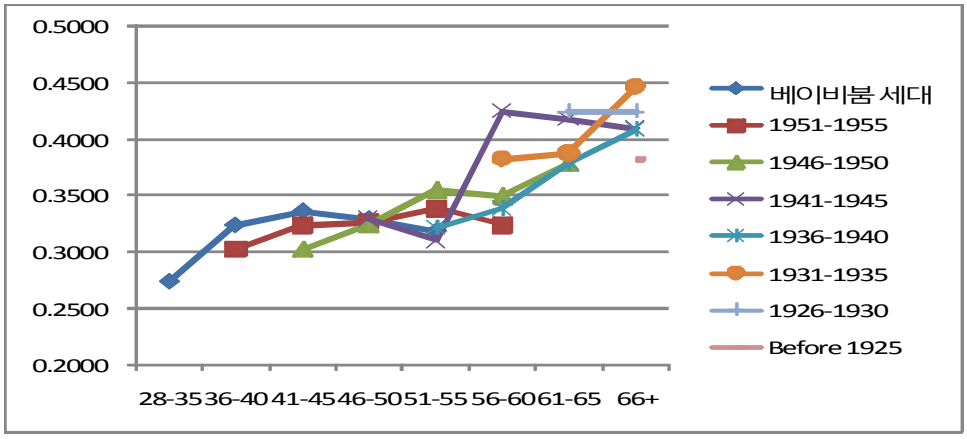
1945 .

46 . 1946

, 45

46 .

[그림 3-10] 출생 코호트별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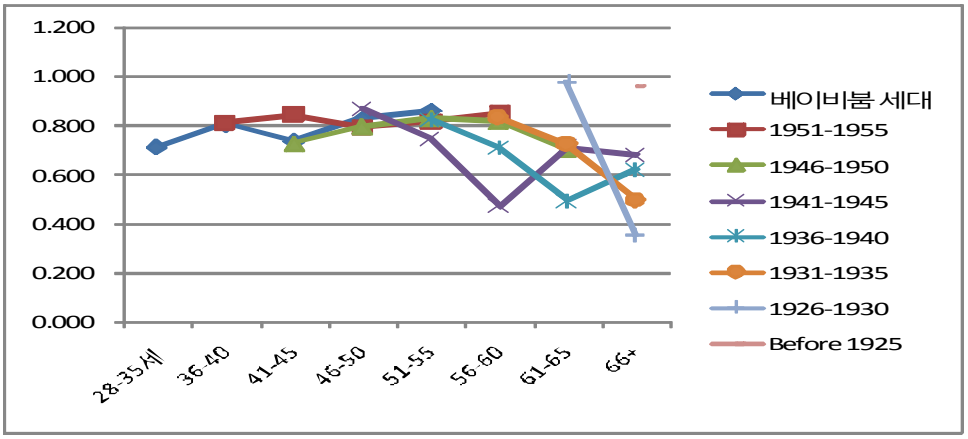
3) 1991 28 -35 . 1991

5 . ,

1996 36 -40 1955 1959

.

[그림 3-11] 출생 코호트별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

. , 1941~45

61~65 66

. 2

.

. 1991

,

2006

.

②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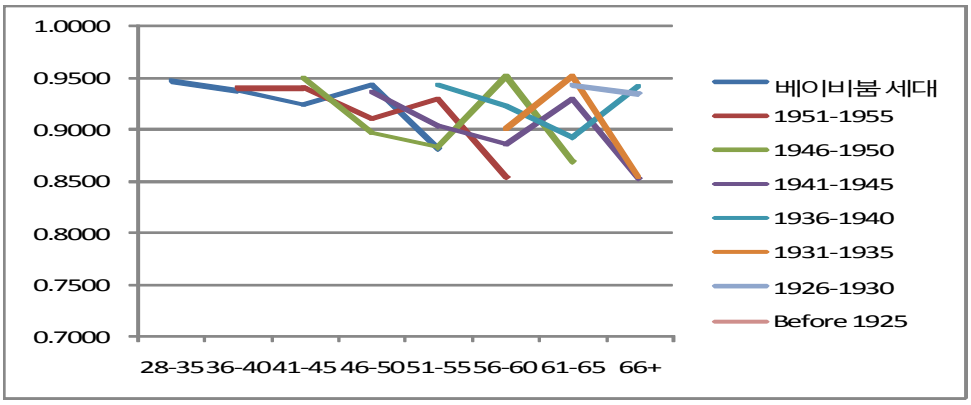
. ,

, 2001

2006

2010 .

[그림 3-12] 출생 코호트별 사업소득의 불평등 변화



, [3-13]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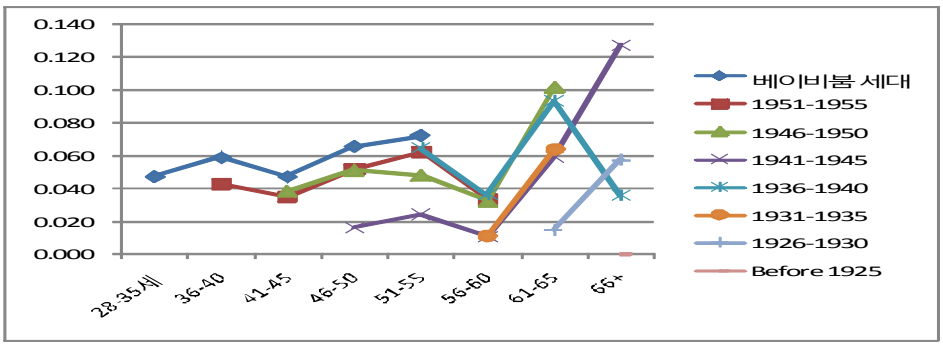
.

. 2010

1936 1950 , 1941

1945 .

[그림 3-13] 출생 코호트별 사업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③

. , ,

. ,

, 1951~6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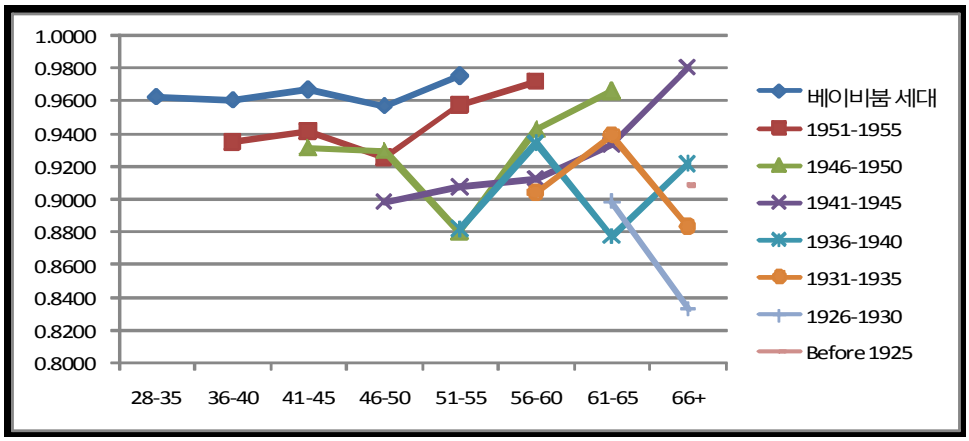
. 1931

2010 ,

. 1945 2006

.

[그림 3-14] 출생 코호트별 재산소득의 불평등 변화



, , [3-15]

1991 1996

2010 .

,

. , 51~56 ,

,

, 1946~19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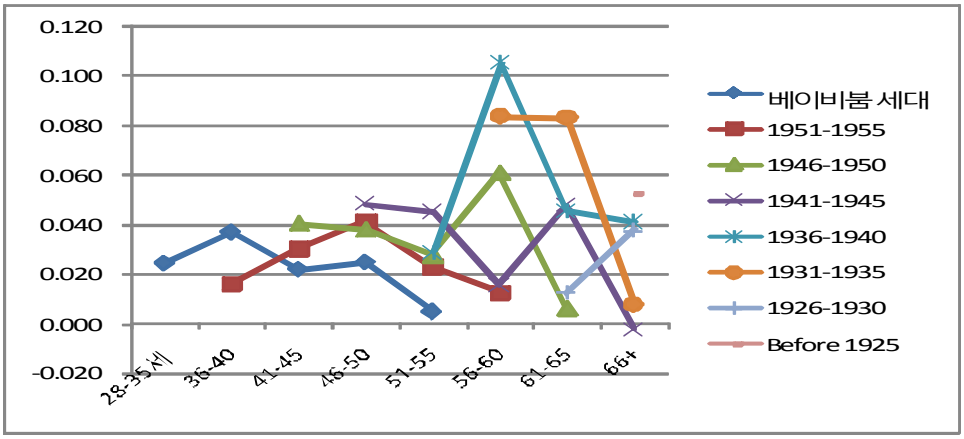
. 56~60

, 1941~1945

. IMF

.

[그림 3-15] 출생 코호트별 사업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④

[3-1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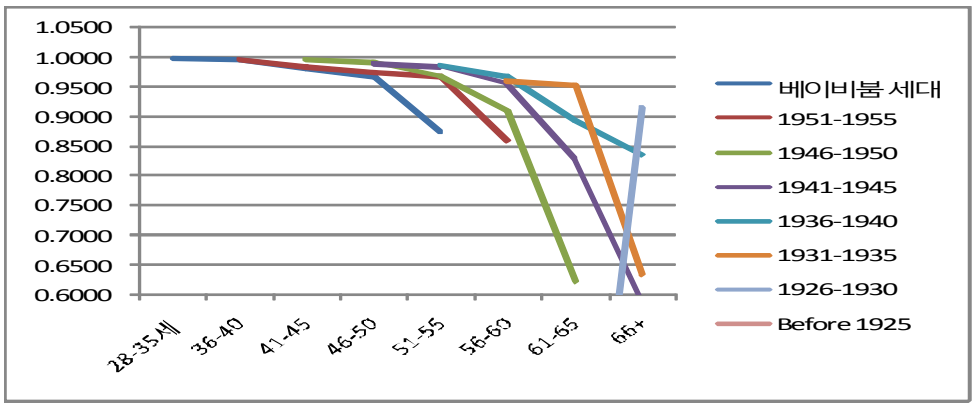
2010 .

56

,

.

[그림 3-16] 출생 코호트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61

. 1926

1936~1940 , 1941~19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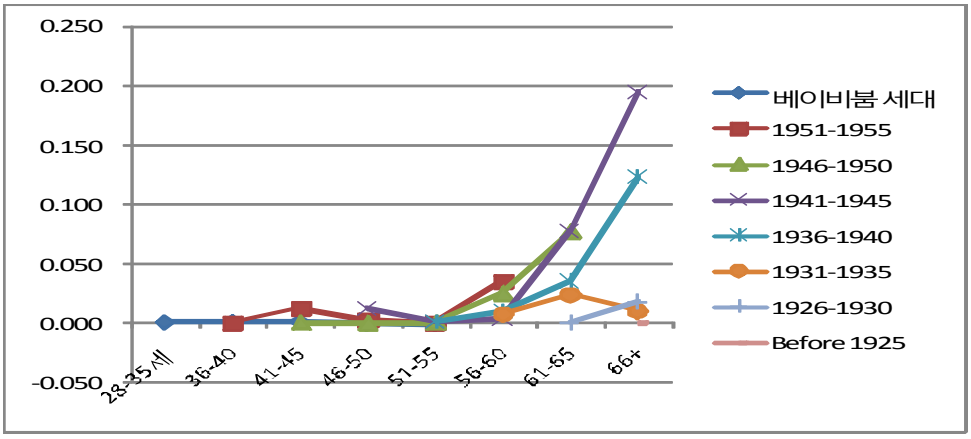
. 1936

1945

. , 1935 1988

.

[그림 3-17] 출생 코호트별 공적이전 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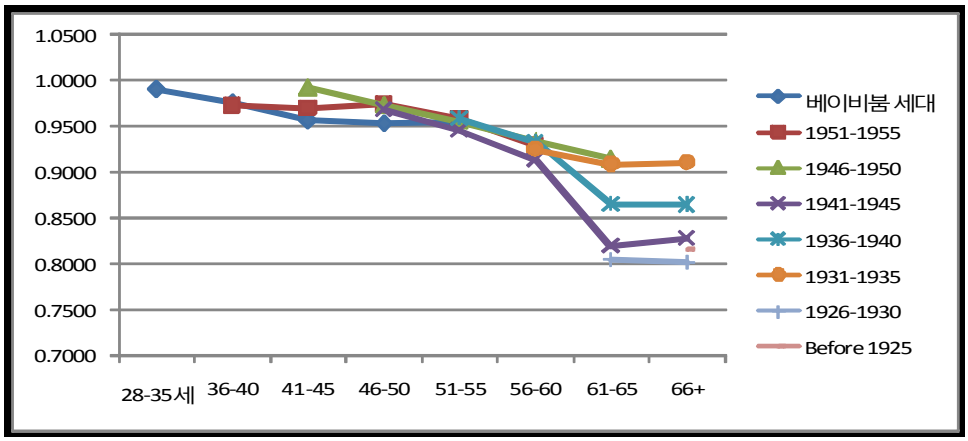
.

.

. ,

.

[그림 3-18] 출생 코호트별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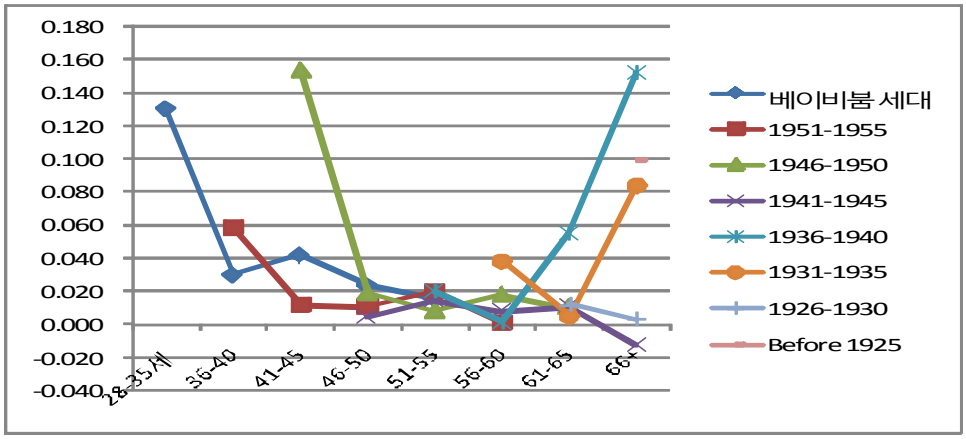
, [3-19] 1945

, 1936

. 1941~1945

.

[그림 3-19] 출생 코호트별 사적이전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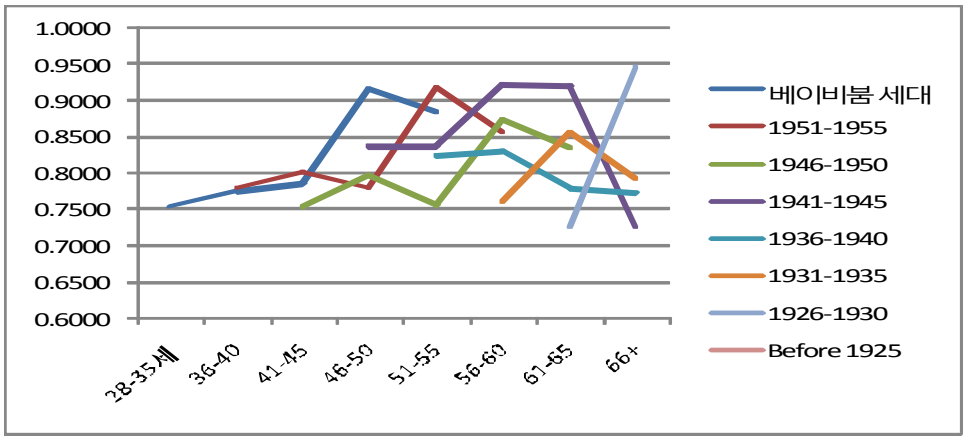


⑥

. 2001 2006

2010 .

[그림 3-20] 출생 코호트별 기타 소득의 불평등 변화



,

1950

. , 1940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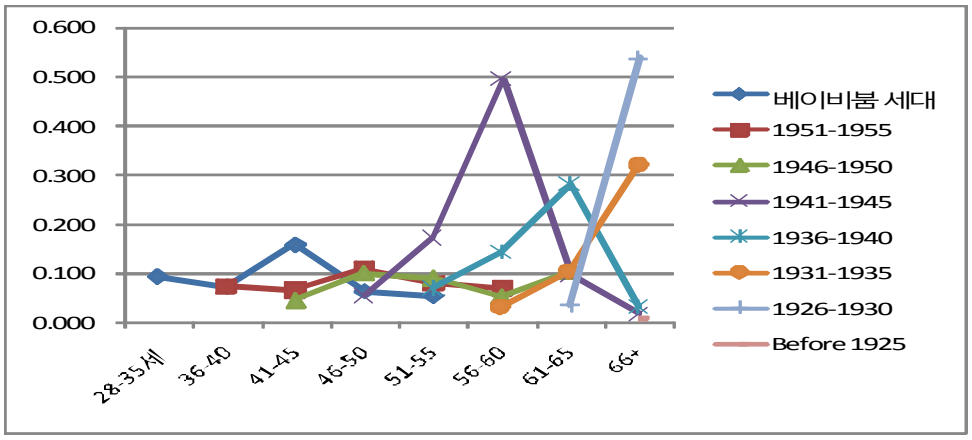
2006 .

. , 2001

,

.

[그림 3-21] 출생 코호트별 기타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비중 변화



<표 3-51> 출생 동류집단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변화

소득원	출생년도 연령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근로 소득	28-35	0.2734							
	36-40	0.3242	0.3019						
	41-45	0.3356	0.3230	0.3025					
	46-50	0.3295	0.3267	0.3236	0.3287				
	51-55	0.3188	0.3383	0.3543	0.3099	0.3216			
	56-60		0.3231	0.3493	0.4243	0.3381	0.3822		
	61-65			0.3781	0.4181	0.3785	0.3870	0.4249	
	66+				0.4091	0.4086	0.4465	0.4244	0.3822

사업 소득	28-35	0.9459							
	36-40	0.9372	0.9392						
	41-45	0.9229	0.9396	0.9489					
	46-50	0.9422	0.9095	0.8959	0.9360				
	51-55	0.8808	0.9285	0.8821	0.9022	0.9426			
	56-60		0.8534	0.9499	0.8841	0.9220	0.8995		
	61-65			0.8677	0.9286	0.8916	0.9501	0.9428	
	66+				0.8517	0.9416	0.8531	0.9337	.
재산 소득	28-35	0.9628							
	36-40	0.9610	0.9348						
	41-45	0.9668	0.9412	0.9315					
	46-50	0.9570	0.9252	0.9296	0.8982				
	51-55	0.9754	0.9573	0.8803	0.9072	0.8816			
	56-60		0.9722	0.9430	0.9127	0.9339	0.9037		
	61-65			0.9660	0.9334	0.8772	0.9391	0.8985	
	66+				0.9803	0.9215	0.8829	0.8330	0.9086
공적 이전 소득	28-35	0.9979							
	36-40	0.9957	0.9949						
	41-45	0.9817	0.9837	0.9955					
	46-50	0.9661	0.9747	0.9919	0.9889				
	51-55	0.8733	0.9668	0.9678	0.9847	0.9868			
	56-60		0.8583	0.9095	0.9559	0.9679	0.9604		
	61-65			0.6213	0.8277	0.8938	0.9531	.	
	66+				0.5903	0.8340	0.6347	0.9150	.
사적 이전 소득	28-35	0.9901							
	36-40	0.9762	0.9723						
	41-45	0.9564	0.9700	0.9919					
	46-50	0.9529	0.9742	0.9726	0.9689				
	51-55	0.9553	0.9583	0.9555	0.9455	0.9587			
	56-60		0.9297	0.9349	0.9137	0.9324	0.9246		
	61-65			0.9142	0.8198	0.8650	0.9083	0.8057	
	66+				0.8277	0.8640	0.9098	0.8024	0.8170
기타 소득	28-35	0.7525							
	36-40	0.7746	0.7788						
	41-45	0.7862	0.7995	0.7537					
	46-50	0.9156	0.7791	0.7959	0.8373				
	51-55	0.8843	0.9174	0.7564	0.8361	0.8239			
	56-60		0.8555	0.8730	0.9231	0.8309	0.7610		
	61-65			0.8351	0.9197	0.7787	0.8559	0.7254	
	66+				0.7264	0.7731	0.7914	0.9457	0.6610

<표 3-52> 출생 동류집단별 요소소득의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변화

소득원	출생년도 연령	베이비붐 세대	1951-1955	1946-1950	1941-1945	1936-1940	1931-1935	1926-1930	Before 1925
근로소득	28-35	0.707							
	36-40	0.803	0.811						
	41-45	0.731	0.847	0.724					
	46-50	0.825	0.792	0.794	0.865				
	51-55	0.857	0.817	0.828	0.745	0.821			
	56-60		0.851	0.814	0.469	0.708	0.830		
	61-65			0.704	0.711	0.493	0.723	0.976	
	66+				0.677	0.620	0.496	0.353	0.959
사업소득	28-35	0.047							
	36-40	0.059	0.042						
	41-45	0.047	0.034	0.038					
	46-50	0.065	0.051	0.051	0.016				
	51-55	0.072	0.062	0.048	0.024	0.064			
	56-60		0.033	0.032	0.010	0.036	0.011		
	61-65			0.101	0.059	0.093	0.063	0.014	
	66+				0.127	0.035		0.057	0.000
재산소득	28-35	0.024							
	36-40	0.037	0.016						
	41-45	0.022	0.030	0.040					
	46-50	0.025	0.041	0.038	0.048				
	51-55	0.005	0.023	0.027	0.045	0.029			
	56-60		0.013	0.061	0.015	0.105	0.083		
	61-65			0.006	0.048	0.046	0.083	0.012	
	66+				-0.003	0.041	0.008	0.038	0.052
공적이전소득	28-35	0.001							
	36-40	0.001	0.000						
	41-45	0.001	0.012	0.000					
	46-50	0.000	0.002	0.000	0.012				
	51-55	-0.002	0.000	0.000	0.001	0.001			
	56-60		0.035	0.024	0.003	0.010	0.008		
	61-65			0.077	0.077	0.035	0.023	0.000	
	66+				0.194	0.123	0.010	0.017	0.000
사적이전소득	28-35	0.130							
	36-40	0.030	0.058						
	41-45	0.042	0.012	0.154					
	46-50	0.023	0.011	0.019	0.005				
	51-55	0.016	0.020	0.008	0.014	0.020			
	56-60		0.001	0.018	0.008	0.001	0.038		

	61-65			0.010	0.010	0.055	0.005	0.012	
	66+				-0.012	0.152	0.083	0.003	0.100
기타 소득	28-35	0.091							
	36-40	0.071	0.073						
	41-45	0.157	0.065	0.044					
	46-50	0.062	0.107	0.099	0.054				
	51-55	0.052	0.078	0.089	0.171	0.067			
	56-60		0.068	0.051	0.494	0.140	0.030		
	61-65			0.102	0.095	0.279	0.103	0.034	
	66+				0.017	0.030	0.320	0.537	0.007

4. 노후소득불평등 장기 추계

.

20

.

가. 연도별 전망

1991 2020 20

2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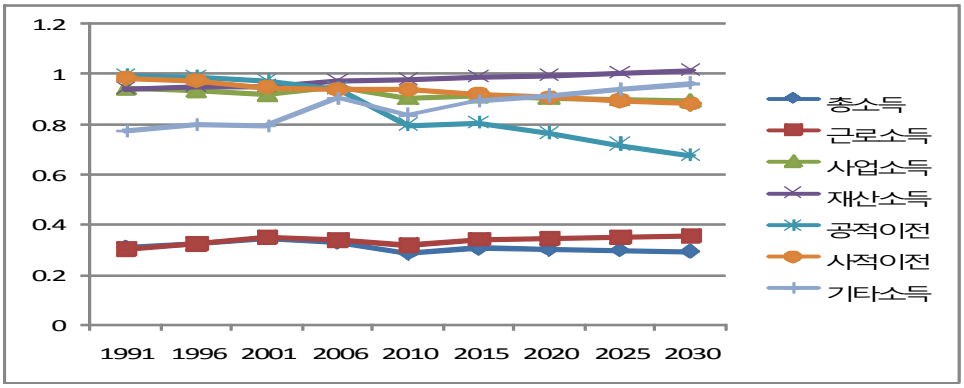
, ,

.

. ,

.

[그림 3-22] 총소득과 요소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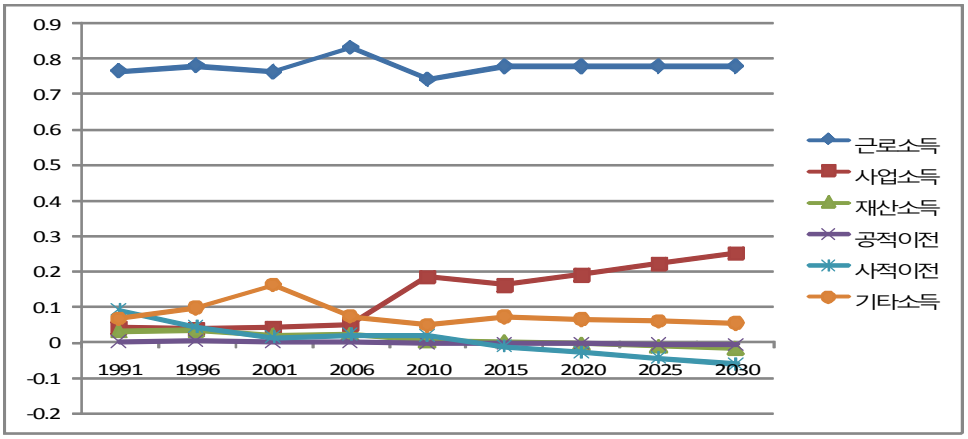
.

,

.

.

[그림 3-23] 요소소득의 비중의 장기 전망



<표 3-53> 총소득과 요소소득의 불평등과 비중의 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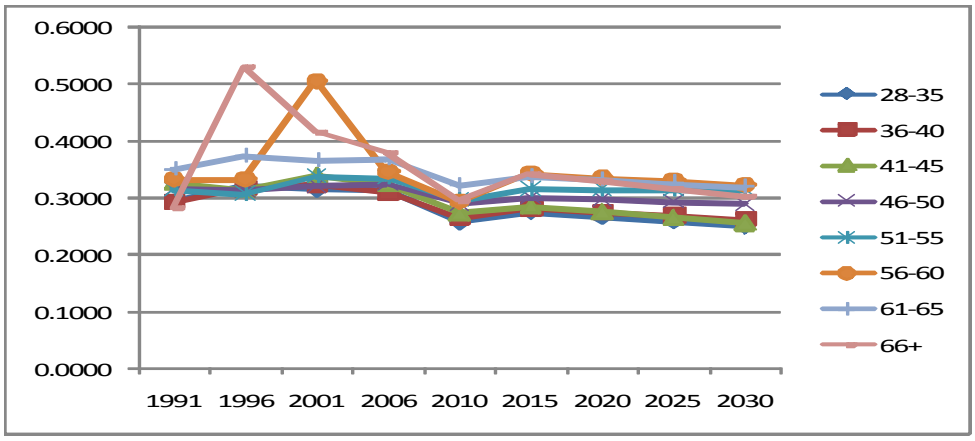
구 분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총소득	0.3099	0.3260	0.3472	0.3293	0.2870	0.3071	0.3028	0.2986	0.2943
근로소득	0.3044	0.3257	0.3497	0.3406	0.3205	0.3423	0.3470	0.3517	0.3564
사업소득	0.9443	0.9345	0.9179	0.9513	0.9051	0.9121	0.9060	0.8998	0.8937
재산소득	0.9415	0.9516	0.9526	0.9727	0.9775	0.9871	0.9964	1.0057	1.0150
공적이전	0.9952	0.9895	0.9738	0.9424	0.7993	0.8084	0.7645	0.7206	0.6767
사적이전	0.9844	0.9742	0.9491	0.9397	0.9384	0.9192	0.9065	0.8939	0.8812
기타소득	0.7732	0.7981	0.7928	0.9015	0.8382	0.8907	0.9141	0.9374	0.9608
비중	1991	1996	2001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근로소득	0.8520	0.8493	0.8200	0.8696	0.7424	0.7776	0.7780	0.7783	0.7787
사업소득	0.0285	0.0314	0.0374	0.0327	0.1848	0.1610	0.1911	0.2213	0.2514
재산소득	0.0210	0.0208	0.0155	0.0126	0.0036	0.0019	-0.0048	-0.0116	-0.0183
공적이전	0.0025	0.0044	0.0054	0.0146	-0.0009	-0.0020	-0.0032	-0.0044	-0.0056
사적이전	0.0390	0.0273	0.0192	0.0271	0.0197	-0.0111	-0.0277	-0.0443	-0.0608
기타소득	0.0570	0.0667	0.1025	0.0434	0.0501	0.0723	0.0662	0.0602	0.0541

나. 연령별 요소소득의 불평등 전망

. 56

.

[3-24]



c3³ GZT\ [e ©%G G¡

%G	X`X	X`

uæÙƒI uñz¡uîue ku j± t• oyoybÊua u'\ uîu)fI s¡c•ƒI

iå|M Zpuew- n¡•¡ jáu}

Z [illegible]

y1 ƒZ1 Ô¶bÞ DPƒ ñƒ|"ÖÜEuEuEb u mt'G ×I p×AI@° u DP

t• `•|"

[éfI oybÊuE ku•¶bÞu- [éfI sÝf&|" uE Zªt• `• Z]uE ƒ ñ×Â

X^]

÷
&Ë
›
ç
•
W
&G
1K
fG
7G
•
5«
%'
+G
Ï
'|G
+œ
!o
€G
4ü
%GG
Â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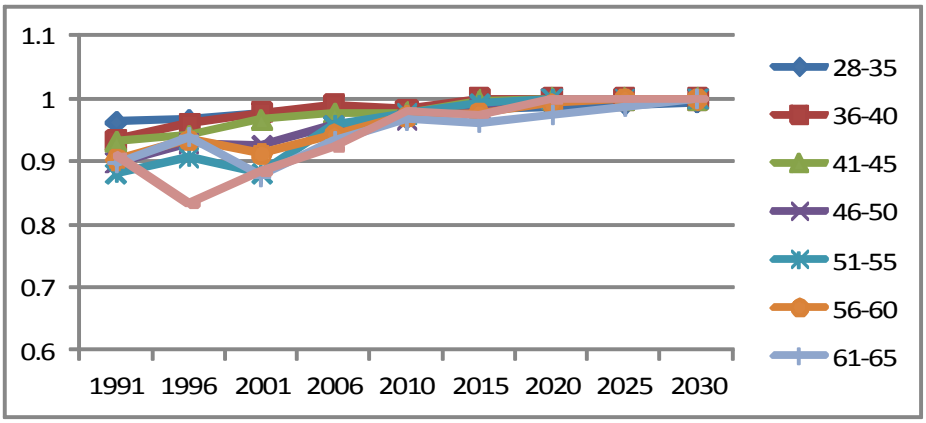
,

,

.

.

[그림 3-27] 연령별 재산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④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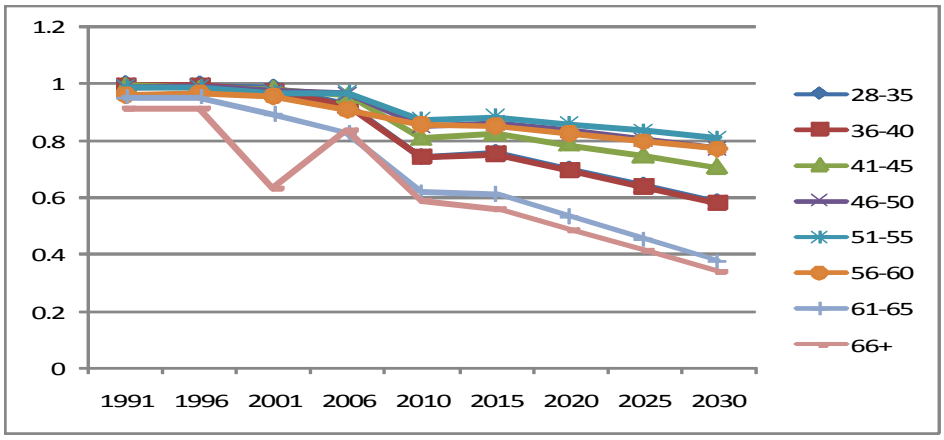
,

.

,

.

[그림 3-28] 연령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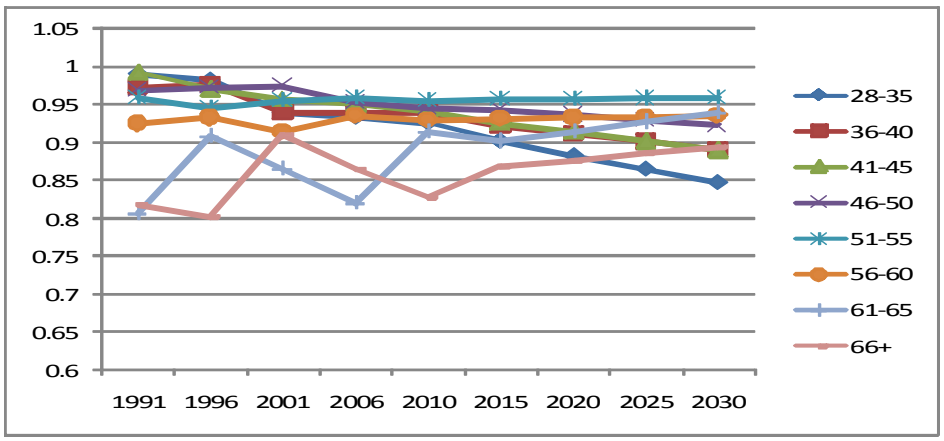
.

,

.

.

[그림 3-29] 연령별 사적이전 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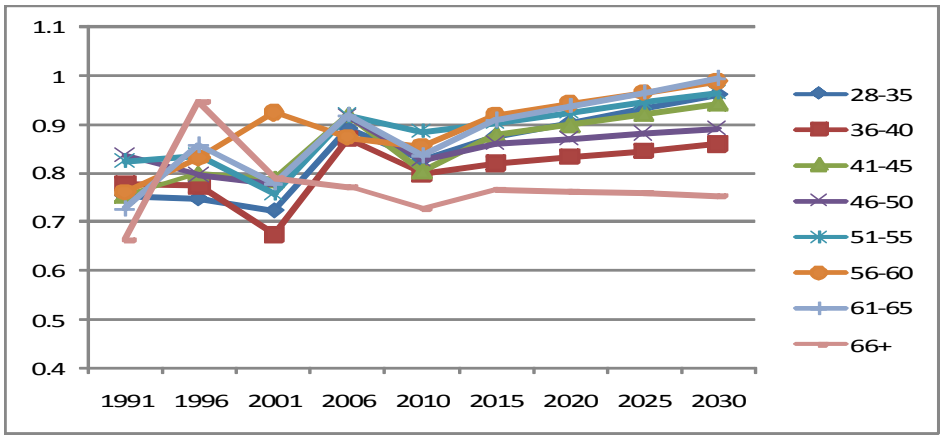
,

,

.

.

[그림 3-30] 연령별 기타소득의 불평등 장기 전망



5. 결론

1991 2001

2010

2001

2010

2001

2001

, 66

.

, .

.

, 2006 .

,

.

, .

. 40 -55 40

.

. ,

,

. ,

.

. , 2006

2010

. 2001

2010 .

.

1931 2010 ,

2010 . 1945

1991 .

.

2010 ,

1941-1945 2006

, 1936-1940

1931

1945

, 1936

1940 2001

2010

2001

2001

(EITC)

04

KIHASA

영역별 현황 및 정책과제

제4장 영역별 현황 및 정책과제

11 『 』

.

, , ,

. 『 』

.

『 』

.

.

.

.

제1절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현황과 전망[4)]

4) (2011a) .

가.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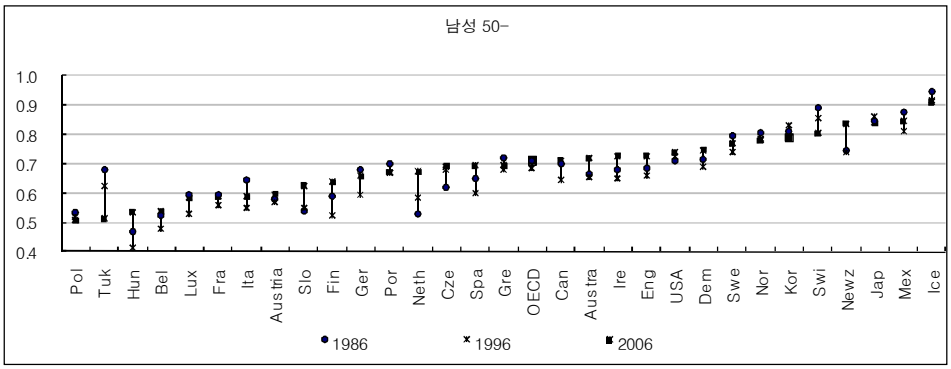
. OECD

(· , 2008). 55~64 2007 OECD

53.4% 6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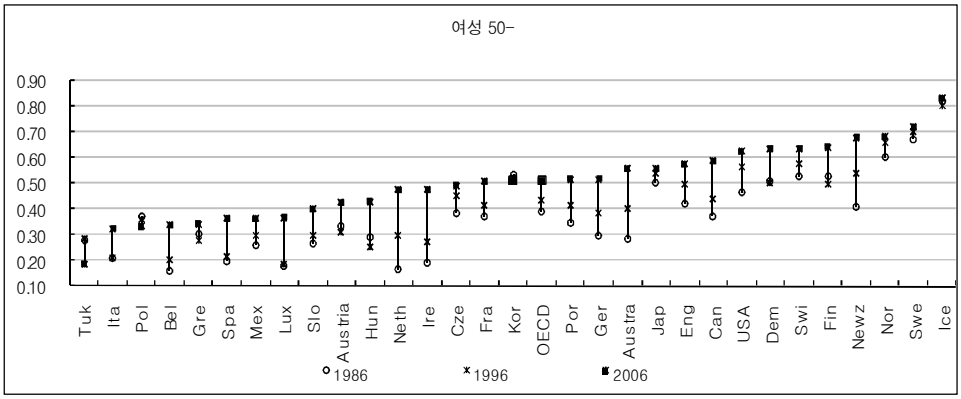
.

[그림 4-1] OECD 국가의 고령자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1986, 1996, 2006년



자료: 장지연·신현구(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4-2] OECD 국가의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86, 1996,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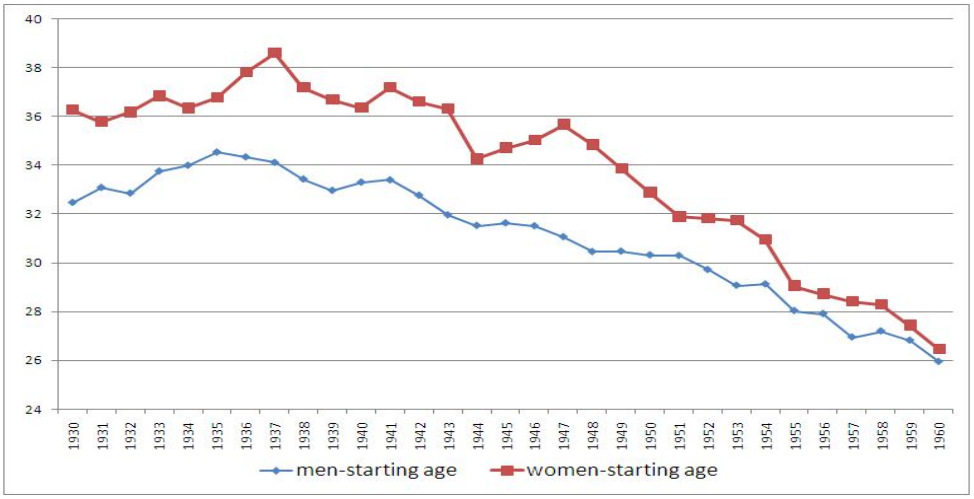
자료: 장지연·신현구(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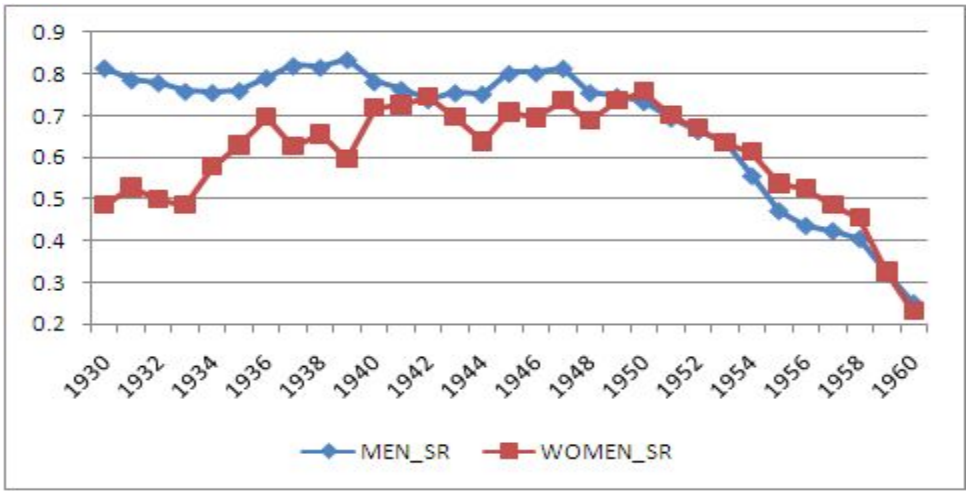
.

[그림 4-3] 출생연도별 생애 주된 직장 시작 연령



주: 출생연도 전후를 이용한 3년 이동 평균, 임금근로자 대상.
자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자료 및 직업력조사 자료.
자료: 신동균 외(2010). 한국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Work-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4-4] 45세에서의 생애 주된 직장 생존율



주: 출생연도 전후를 이용한 3년 이동 평균, 임금근로자 대상.
자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자료 및 직업력조사 자료.
자료: 신동균 외(2010). 한국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Work-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0 (2001~2010) 10

2010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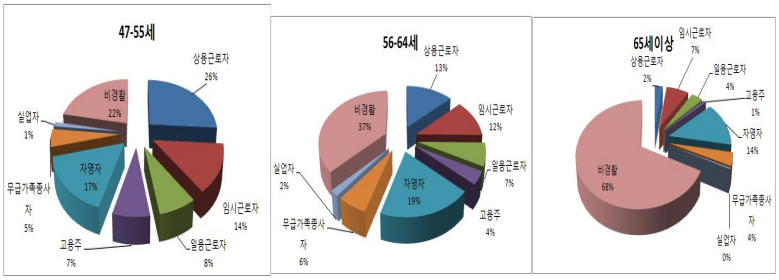
<표 4-1> 중년층 취업자의 직업 변화

(단위: %)

		2000년			2010년		
		36~45세 (1955~1964)	46~55세 (1945~1954)	56세이상 (~1944)	36~45세 (1965~1974)	46~55세 (1955~1964)	56세이상 (~1954)
남성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1.4	12.3	8.9	26.0	20.0	12.2
	사무종사자	14.9	10.8	4.5	17.8	11.5	4.1
	서비스판매종사자	24.4	22.0	13.5	15.6	14.4	12.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7	10.2	37.9	2.0	5.0	22.8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37.7	33.7	15.4	31.9	39.4	25.7
	단순노무자	6.8	11.0	19.8	6.7	9.6	22.6
여성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2	3.1	0.9	22.9	9.9	3.5
	사무종사자	5.4	2.4	0.5	18.2	7.0	2.2
	서비스판매종사자	50.8	45.2	26.9	36.8	43.7	25.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3	14.6	43.4	1.3	5.3	24.8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15.1	14.1	5.8	7.8	10.9	5.2
	단순노무자	18.2	20.7	22.5	12.9	23.2	38.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원자료..

[그림 4-5] 중고령층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상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2010.5), 권혜자(2011)에서 재인용

,

(, 2011).

,

( )

. ,

29.5%, 28.1%, 24.6%

.

나.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관련 욕구

. ,

(,

2010). 77.8%

. 63.9%

. 70.9%

.

,

.

58.5% ‘ ,

16.2%, ‘ ’ 14.4% .

, , , ,

41.5%

.

.

,

. 70%

,

.

30% ,

.

<표 4-2> 베이비 부머의 현업에 대한 태도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현업에 대한 지속의지	10.6	67.2	8.9	11.5	1.9	100.0
현업에 대한 불안 정도	2.6	25.7	13.6	50.7	7.5	100.0

자료: 정경희 외(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표 4-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창업준비	직업교육 참여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취미·여가개발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	기타	계
준비내용	6.0	2.3	2.0	5.7	83.4	0.5	100.0

자료: 정경희 외(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 83.4%

. (, 2008; 2010)

38.1%

.

다. 전망

,

2020

(, 2010; , 2010).

(2010) , 10 1

‘ ’

. 10

, 10 45~54

.

2 ( )

, 1,068

14.7% .

, 1370 .

<표 4-4> 주된 일자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규모(2010년 말 기준)

(단위: 천 명, %)

	인구	상용고(경활)	고용보험 순 피보험자	고용보험 순 피보험자(근속 2년 이상)
수(천 명)	7,261	1,887	1,757	1,068
비율(%)	100.0	26.0	24.1	14.7

주: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2010년 현재 712만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726만 여명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2010.12, 권혜자(2011)에서 재인용

(2010) 10 14~15

.

2009 549.2 189.1

.

2~3 140~150 75~80%

.

. . , ,

. 1/4

.

.

• ,

10

.

,

.

,

,

.

(, 2011).

2. 중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현황[5][6]

2

, ,

, ,

(, 2010).

.

가. 고용 연장

2006 ('09 100

9.2%), ,

.

2011 9 15

‘ ’, ‘ ’, ‘ ’ .

50 56

,

(6). 54 50

, 6 10

---

5) (2011a) .

6) < >

50 ~55 , 55

‘ ’, ‘ ’,

.

. 45 50 55

, 60 65 . 40, 50 ‘ ’

‘ ’ , 60 ‘ ’

, .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50

. 45

,

.

.

50% 3

.

57

5

.

나. 맞춤형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및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 지원

.

,

.

,

, . 50

.

.

<표 4-5>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명, %)

	계획인원	참여인원	취업인원(취업률)
2007년	900	328	45(17.1)
2008년	855	802	222(31.9)
2009년	700	649	308(53.4)

자료: 고용노동부(2010). 고용보험백서.

, ( ) .

.

40

.

.

( )

.

<표 4-6>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사업장수	4,279	4,221	5,226
인 원	6,704	6,384	8,085
금 액	54,922	41,938	57,890

, , ( )

(2010: · , 2010).

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조기정착

2

『 』 Age Campaign

, , · ,

라.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 2007.7

300

12,000 (, 2010).

<표 4-7>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상자 비교

	노인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대상자 연령	65세 이상(60-64세 포함 가능)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연령규정 없음
대상자 소득계층	명시되지 않으나 주로 저소득층 참여	가구소득 최정생계비의 150% 이사, 재산 1.35억원 이하	취약계층

. .

.

.

.

3.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외국 사례[7)]

가. 고용 연장

1970

1994

60 2004

65 ① ② ③

3 .

70%

(, 2006).

‘Initiative 50 Plus’

2010 55 50% , 2012

.

(firm-specific)

.

나.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서비스

,

.

.

7) (2011a) .

.

(employment)

(workability) (employability)

. ‘ (Finnish

National Programme for Ageing Workers)’

,

(age-management training)

. (work capacity)

, ,

,

(· , 2005).

2003 ‘ ’

. 10 1.6%, 0.55%

, 20 1

45 ‘ ’

(, 2010).

(, 2009).

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조기정착

. 1967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40

, (ILO)

1980 ‘ (162)’ . EU ‘

EU (2000 78)’ 2006

(, 2004).

(EU) 2001 (Stockholm Target) 2002
(Barcelona Target) [8]
①
, ② , ③
, ④

.

, (Anti-ageing)

.

“ (Experience is a national asset)”, ‘
(Prime Years)’ (·
, 2005).

‘ ,
(· · , 2006).

, ‘ EU
(2000 78)’ ‘ ,

.

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9).

8) 2010 55~64 50% ,
2010 5 (· , 2005).
9) . (2011). .
. .

Civic ventures

, ,

3

.

<표 4-8> 국외 고령자 재취업 및 사회참여 사례

국가	기관	세부 사업명	대상자	내용
미국	Civic Ventures	Encore Fellows	고령인력	- 실리콘밸리지역 실험프로그램 - Encore Fellowships는 공공서비스와 midlife careers를 연결
		Local Organizations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직업에 대한 준비와 직업소개, 삶에 대한 계획과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동료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 세션
		Next chapter	퇴직자	- 지역사회 보람된 일을 원하는 퇴직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 진행
	Experience CORPS.		50세 이상 고령인구	- 교육 분야 - 퇴직자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연결 -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는 역할, 아이들의 읽기 쓰기의 기초 교육 등 봉사활동
	AARP Foundation SCSEP	Experience Works의 프로그램	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 고용전망 낮은 실업 노인	-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 - 고령자 대상 고용과 직업훈련 - 최저생계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전액 국고 지원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인력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전국노인봉사단의 프로그램		
	Score in NYC		전문직 종사자 (현장 경험자)	- 비영리기업인 미국 내 작은 기업을 상담 - 기업과의 일대일 상담을 무료로 제공 - 세미나와 워크숍을 일련의 낮은 비용으로 제공 등
영국	Prime Timers		50~60대	- NPO들과 민간 부문의 전문 인력들을 이어주는 사회적 기업 -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사회적 단체 혹은 자선사업사업 단체의 필요한 곳에 배치시켜주는 징검다리의 역할 - 예: 사회적 단체 혹은 자선사업사업 단체 등의 이사가 되어 지도를 해 줌. 또는 멘토가 되어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해줌 - 1:1 면접에 의하여 시니어와 기관을 매칭
	Reach		3년 이상	- 전문직 퇴직자, 전문직 종사자들과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

국가	기관	세부 사업명	대상자	내용
			경력 전문직 퇴직(예정)자	는 비영리단체들을 서로 연결 - 인터넷 기반 매칭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NPO 법인 심포니	삶의 보람 일자리 서포트 센터	40대~60대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사회경험과 경력,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NPO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지역사회 비즈니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진행하고 있음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사오시민활동서포트센터'		시니어	- 대부분 대기업 또는 대학, 시민단체의 퇴직자 출신 - 전문성을 토대로 각각의 역할을 맡음
	전국 실버인재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60세 이상	- 연령자고용촉진법에 법적성격 규정 - 노동을 임시적·단기적인 일로 제한하여 4대 보험에서 적용에서 제외
캐나다	YourEncore		은퇴한 과학자와 기술자	- 과학자와 엔지니어 전문가 퇴직자들을 관리하여 기업과 연계 -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식품혁신, 생명공학, 소비자 식품 영역 등
네덜란드	'65+'		65세 이상 자력활동가능한 자	- 고령자 취업알선 전문기관 - 취업직종의 특징: 임시고용, 파트타임, 낮은 책임성, 청장년층과 공동수행, 단순하고 낮은 난이도 - 일반직종으로는 검표원, 안내원, 버스운전, 우편배달, 주유원, 식사배달 등이 있고, 식품검역, 시험관리, 서류정리, 공사현장 관리, 기술자, 간호사, 임상 병리사, 문제 아동 지도사 등의 전문직종 등

자료: 이소정 외.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자원 수요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3> 재구성.

4. 베이비 부머의 고용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

,

.

.

,

.

나. 정책과제

1) 맞춤형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가) 인력부족이 확실히 예견되는 업종의 중고령자 친화성 제고

(, 2010).

.

.

.

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지속성 제고 및 창업 지원

.

(, 2010; · , 2010; , 2008).

,

.

.

,

.

(· , 2010).

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점진적 퇴직제도의 적용

( ) .

.

.

2) 베이비 부머의 근로능력 제고를 위한 공사협력체계 구축

가) 진로전환 지원을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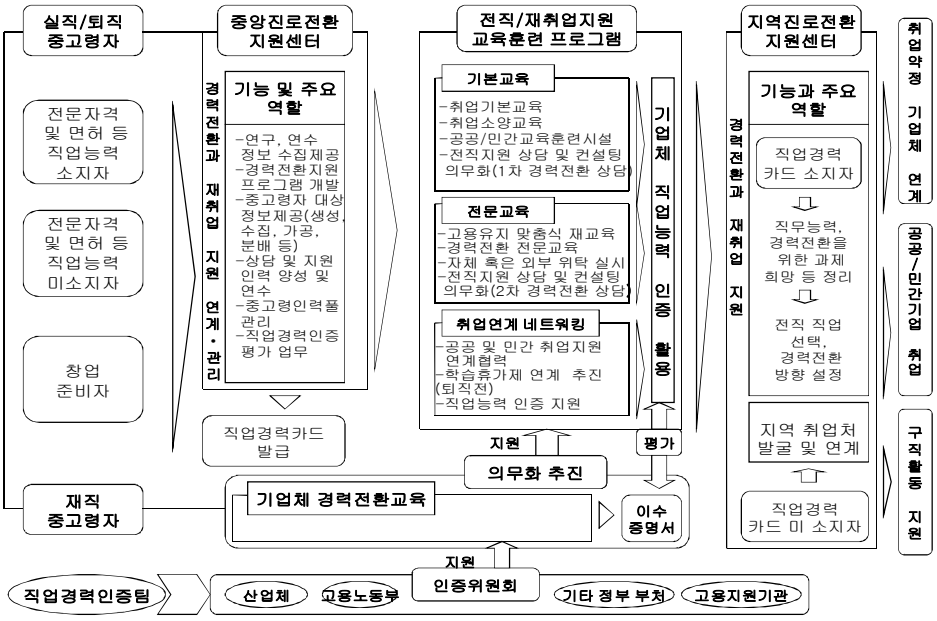
.

‘ ’ .

, .

(Hub) .

[그림 4-6] 가칭 '중앙진로전환센터'와 '지역진로전환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나) 평생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연계한 직업경력카드제 도입

.

‘ ’ .

‘ ’

,

.

.

‘ ’

‘ ’

.

(Portfolios)

,

,

.

다) 재직 중고령자에 대한 학습휴가제 도입

‘ , ‘

,

.

라) 중고령자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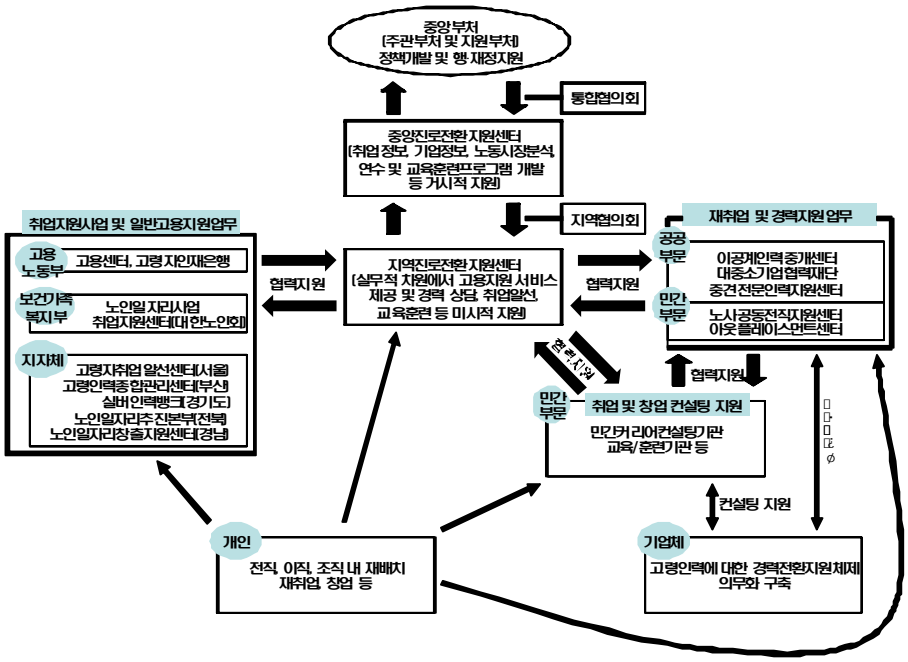
, ,

.

, ,

.

[그림 4-7]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진로전환 지원 서비스 연계체제



마) 전직지원시스템의 확대개편

10 ’ ( )

( )

바) 기업 차원의 개선 과제

. .

‘

, ,

.

. (

, ,)

.

.

.

.

, 2

.

3) 고용 연장과 정년 보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대

60 . 65 , 70

,

60 .

(

)

. 50 (

) ,

.

4) 사회공헌 일자리에서의 고령자 고용

( )

3

. (3)

.

3

3 ( )

(, 2011).

.

3 .

, .

, , .

,

(case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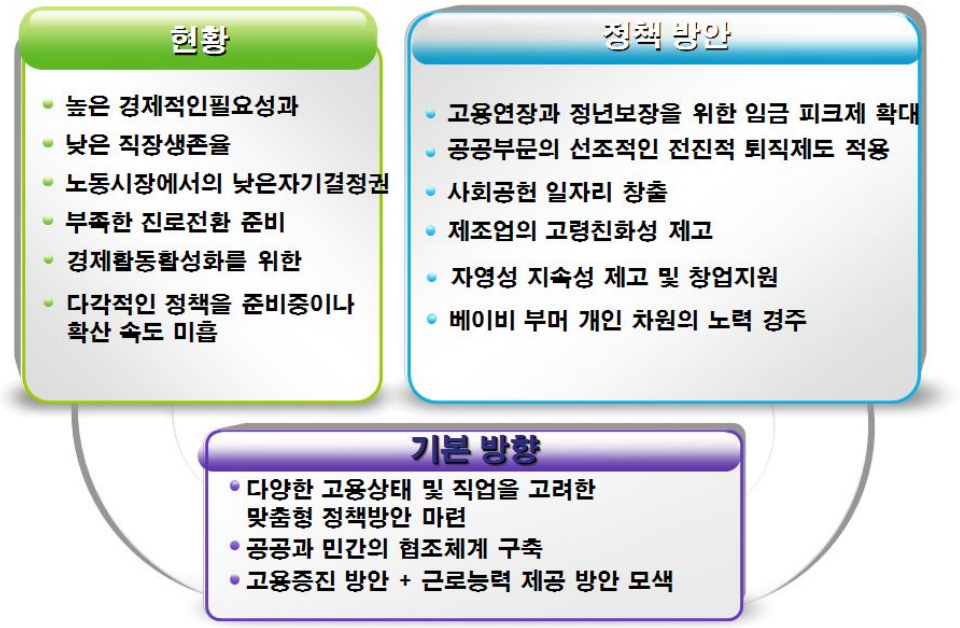
.

,

5) 베이비 부머 개인 차원의 노력 경주

(, 2008, 2010).

[그림 4-8]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2절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1.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 실태

.

,

.

.

,

10)

10)

(, 2011a).

가. 자원봉사활동

.

7.3% .

,

, 40 50 2009 18.6% 15.5%

, (2008) 25.4% 26.5%

.

.

,

10 .

(period effect)

(ageing effect)

. , (period effect)

, (ageing effect)

. .

나. 여가문화활동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의 특성 및 욕구를 하루 평균여가시간 희망여가시간,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여가의 목적과 여가불만족 이유 등으로 살펴보면서 더불어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의 제반 특성들과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도출되었다[11].

.

11) 3 .

, .

3.68 6.56 . ,

. , 평일과 휴일 모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동일한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셋째, 베이비 부머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여가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반면에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넷째, 성별 여가활동 행태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지만, 남성(월 평균 약 22만 2천원)이 여성(월 평균 약 13만원)보다 약 9만2천원 더 많이 여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여가활동의 목적에도 성별 차이가 커, 남자는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베이비 부머는 현재의 예비노인이나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점이

(period effect)

(ageing effect) .

. 베이비 부머가 여가활동을 하는 목적은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3%), 스트레스 해소(21.0%), 즐거움(20.0%), 건강(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인관계, 자기계발, 자기만족, 시간보내기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예비노인 세대나 노인세대는 여가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 건강(예비노인 26.9%, 노인세대 32.3%)으로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의 목적은 세대별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일과 관련된 여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퇴직 전으로 일 중

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는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 등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는 즐거움이나 건강을 위한 여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는 경제활동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현실에서 여가를 시간보내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4(5점 척도;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로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41.6%)이다. 경제적 부담은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시간 부족의 비율은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여가비용은 세대와 무관하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시간부족 문제는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

69.4%, 83.7% .

(, 2010b).

. (2011) (2010)

,

,

.

(, 2010) ,

.

, , , , ,

.

2.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 현황

가. 자원봉사활동

2 .

.

.

.

, , ,

. .

(http:www.kfvc.or.kr),

, .

.

.

,

12). , ,

,

,

.

, ,

. . .

, , , ,

. .

, . ,

12) www. mw. go.kr .

13)

13)

나. 문화여가활동

.

.

‘

,

‘ , , ’ 3

10 (

, 2010).

14).

,

.

2008 6

.

‘

. ‘

, ‘ ,

(· , 2007).

(60) 4~12

,

(,

2011).

,

14) (2011a) .

.

,

,

, (, 2011a).

3. 고령자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외국 사례

가. 자원봉사

1)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구축[15]

. AmeriCorps, Senior Corps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 1993
ACTION .
. ACTION
CNCS
. CNCS AmeriCorps( ), Senior Corps
( ) Learn and Serve America(· ·) .
CNCS 1990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NCSA, '90) 1993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NCSTA, '93) [16]
(Serve America Act)
. 2009 ,
, (P.L.

15) (2011a)
.

16) http://www.nationalservice.gov/about/role_impact/history.asp

111-13, 2009). 2017 25

, , ,

AmeriCorps SeniorCorps , ( )

.

(

) .

AmeriCorps 3,000 , ,

7

. ,

, , ,

.

55 50

SeniorCorps .

(, 2010).

1971

RSVP ,

. SeniorCorps RSVP

.

55 40

.

(,)

. 45 RSVP

6 755 .

2) 자원봉사 민단 단체 구성

[17].

WRVS(Women's Royal Voluntary Service) ,

. 2008

78,000 56,000 2,500

. , ,

, , ,

.

WRVS

. , ,

,

.

CSV(Community Service Volunteers) ,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me)

50 12,000 .

,

, , (, 2010).

Nippon Active Life Club(NALC)

50 26,500 .

[18] , , ,

.

,

17) 1990 ,
1999 (Millenium Volunteer: MV) 16~24
(,2010).

18) 1950 2006 126,504 8,047,333
.
. , , , ,
, (,
2008).

(Time Dollar System)

.

3) 개별 사례

가) 자원봉사활동과 일자리 사업의 결합

「 」

,

. ‘ ’

‘ ’

,

bottom-up .

.

「 」 ,

NPO

. , , NPO NPO

‘Prosumer'( ) . NPO

,

.

나) 평생학습과 자원봉사의 결합

, , ,

.

.

「Legacy Leadership Institute」 . 55

, , ,

. Legacy Leadership Institute

, ,

(Sharon, Laura, and Karen, 2006; Laura, Jack, Sharon, and Karen, 2006)

나. 여가문화활동

.

. 2001

,

DC ‘ (NCCA: The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 .

,

, ,

.

.

2009 163 ,

NCCA , (洲) , ,

.

4.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

, .

,

.

, ( ) ,

. ( )

,

.

, Bottom-up

. ,

bottom-up

. ,

,

.

, .

.

.

(structural lag) .

.

,

.

,

.

나.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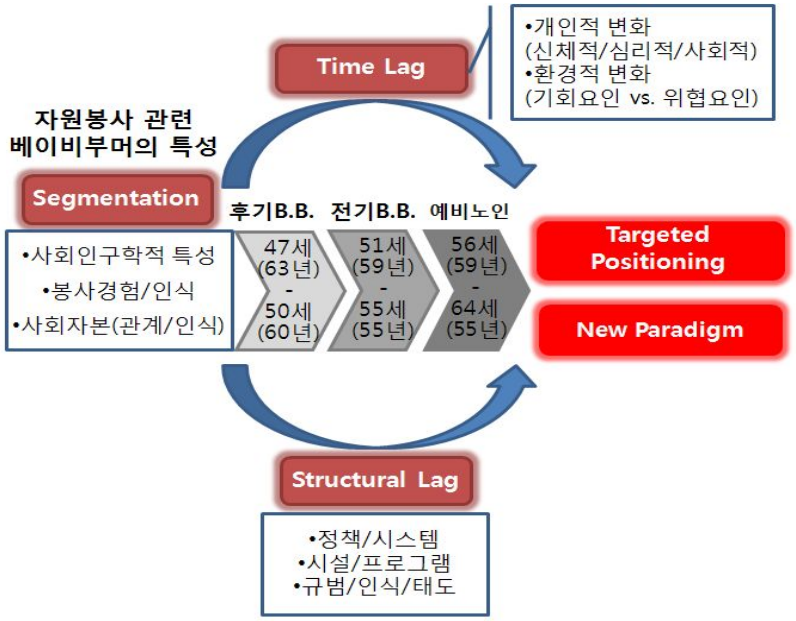
1) 자원봉사

. , ,

,

.

[그림 4-9] 베이비 부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모형



가)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수준과 동기에 대응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

. ,

, .

.

.

,

.

,

나) 다양한 특성에 대응한 맞춤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OB

.

,

, .

. professional ‘ ’ , ‘ ’

. , , ,

‘

’ . 50

.

[4-10] ( ) ,

, (, , ,)

, ,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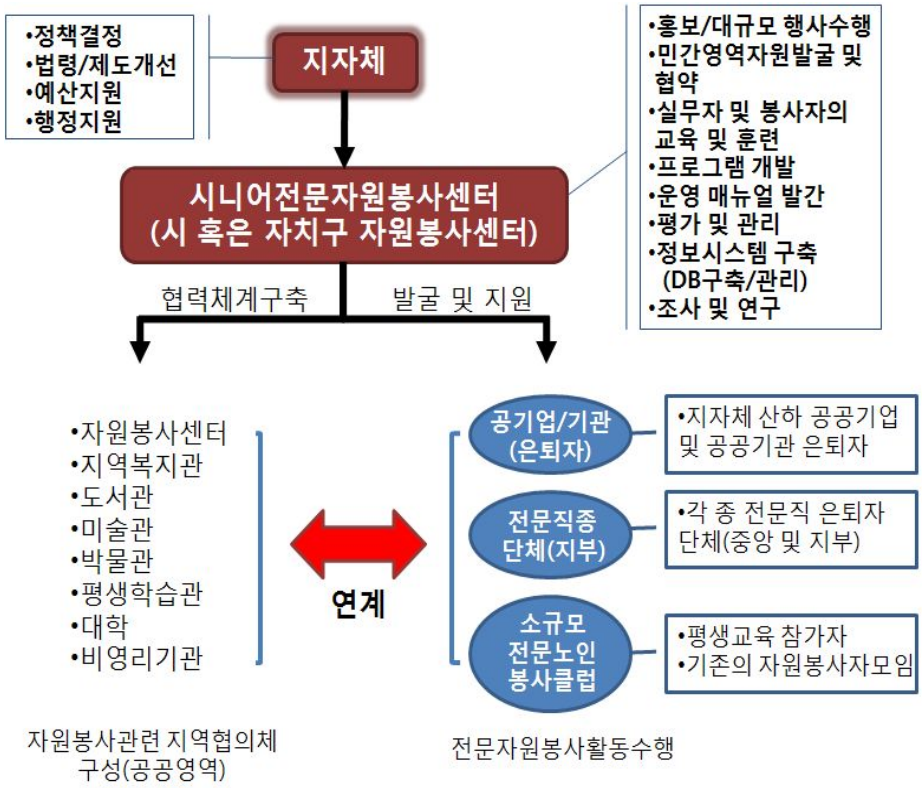
. ,

. ,

,

.

[그림 4-10] 지방자치제 중심의 시니어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형도



. IT

2005 70% .

,

20.4% 16.6% .

.

다) 자원봉사관련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

.

.

, ,

40

(ageing effect) , ,

.

,

.

,

.

, , ,

.

2) 여가문화활동

가) 대상의 세분화를 통한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다) 여가인식의 강화

SOC , ,

( ) (selection) (optimization),

/ (compensation) (resilience)

‘ ’ .

(elective selection) (loss-based selection) , (

) ( )

. ,

,

.

‘ ’

.

.

, ,

.

,

.

. ,

.

4) 여가활동의 비용 부담 완화

. ,

,

. ,

.

, (41.6%)

(53.8%) . ‘ ’ 27

8 , ‘ ’ 11 2 15

. 10

12 .

-

.

5)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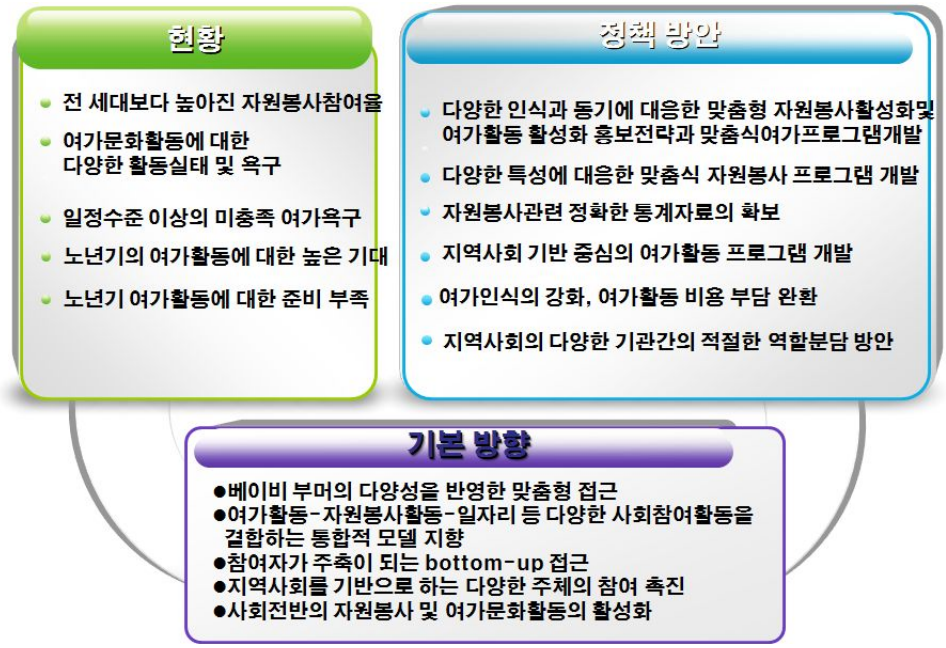
, ( )

,

, .

.

[그림 4-11]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1. 베이비 부머의 경제상황 및 노후소득준비 실태[19)]

가. 경제상황

448 ,
364 , 1 29.2%, 1~3 31.7%, 3~5
15.9%, 5 23.2% . 66.74%
. 42.8%, 30% 36.1%, 30~60%
12.2% , 6.5% (,
2011a).

19) (2011a, 2011b) .

<표 4-9> 베이비 부머의 소득 및 자산 실태

가구소득	평균 액수	200만원 미만	200~400 만원미만	400~600 만원미만	600 만원이상	계(명)
	448.07	15.9	34.1	28.3	21.7	100.0(3,027)
자산	평균 액수	1억미만	1~3억 미만	3~5억 미만	5억이상	계(명)
	364.48	29.2	31.7	15.9	23.2	100.0(3,022)[1)]
자산대비 부채비율	평균 비율	없음	30% 미만	30~60% 미만	60~100% 미만	100% 이상
	66.74	42.8	36.1	12.2	2.4	6.5

자료: 정경희 외(2011b).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표 4-10> 베이비 부머의 10년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

특성	매우좋아짐	좋아짐	지금과 유사	나빠짐	매우 나빠짐	계
전체	3.0	38.0	40.3	16.6	2.2	100.0

자료: 정경희 외(2011a).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8 45

55

.

나. 노후준비 실태

. 20% ,

29.1% .

<표 4-11> 베이비 부머의 공적 및 사적 연금 가입 실태

(단위: %)

종사상의 지위	연금가입율	납부형태			개인연금	퇴직연금	전체(명)
		납부자	납부예외자	체납자			
상용직	91.1	96.9	3.0	0.1	42.4	21.5	100.0(1,310)
임시직	93.1	49.4	46.4	4.2	16.6	2.4	100.0(332)
일용직	89.8	18.2	81.0	0.9	14.2	0.0	100.0(374)
고용주	97.9	93.6	4.3	2.1	49.5	0.0	100.0(96)
자영업자	94.8	61.5	29.9	8.7	29.1	0.0	100.0(596)

자료: 윤석명외(2011a),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 위한 국민연금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50%

(a, 2011). 90%

, 10 ,

50~70% . ,

50% , 5 ,

30% .

34 714

4.8% ,

( ) 55% .

,

A 20~30%

.

.

26.9% , 0.6%, 7.3%

9.6% .

32.5% .

, , 16.7%

. 29.0% , 0.7%,

3.5% .

<표 4-12> 베이비 부머의 노후 준비 연금 가입 현황

구분	공적연금만	퇴직연금만	개인연금만	공적+개인	공적+퇴직	공적+퇴직+개인	무연금[1)]	계
개인단위	26.9	0.6	7.3	26.4	7.1	9.6	22.1	100.0(2,232)
남자	32.7	0.4	3.3	29.5	10.0	12.3	11.7	100.0(1,126)
여자	21.1	0.7	11.3	23.3	4.2	6.9	32.5	100.0(1,106)
부부단위	29.0	0.7	3.5	31.3	10.0	16.7	8.8	100.0(2,232)

자료: 정경희 외(2011a).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표 4-13> 베이비 부머의 다층적 노후소득준비 실태

(단위: %)

구분	가입안함	본인만 가입	배우자만 가입	본인+배우자 가입	전체(명)
전체					100.0(2,250)
공적연금	13.7	26.9	16.6	42.8	
퇴직연금	72.1	10.5	10.2	7.2	
개인연금	48.1	15.2	8.3	28.4	
남자					100.0(1,134)
공적연금	13.2	43.2	2.9	40.7	
퇴직연금	74.3	17.3	2.2	6.2	
개인연금	50.4	18.5	4.1	27.0	
여자					100.9(1,116)
공적연금	14.2	10.4	30.4	45.1	
퇴직연금	69.8	3.6	18.4	8.3	
개인연금	45.8	11.7	12.6	29.8	

윤석명 외. (2011a),「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 위한 국민연금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2.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현황[20)]

2

.

20) (2011) .

.

,

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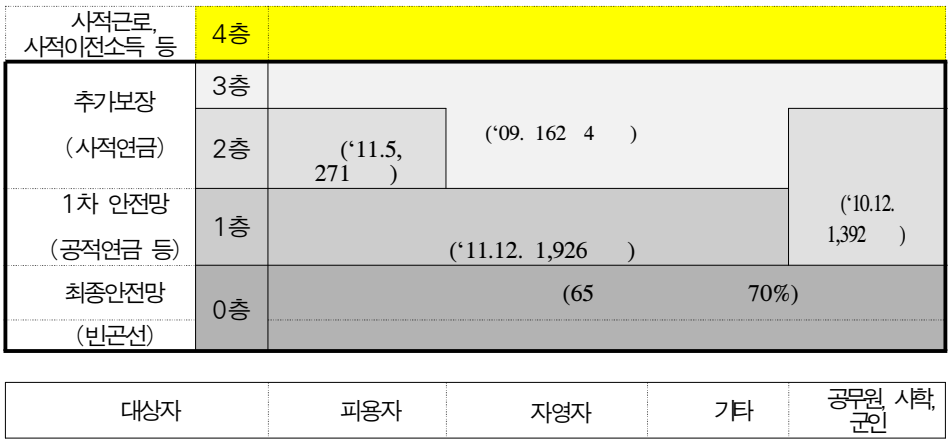
.

. 1 1988 , 0

2008 . 2

2005 3 1994 .

[그림 4-12]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자료: 김성숙(2011)을 수정보완한 것임.

, .

. 42.1%

9.0%

.

30% 12.5%

(OECD, 2010).

, .

2044 ,

1993 ,

1973 , 2033

. 2044

2060 .

, 2001 2010

58,676 .

2009 , 80 100

.

2010 16,872 ,

. 2010 100 29

, 2020 50 , 2030 71

. 2020 70,975 2030 162,170

.

2020 21,490 2030 31,830 .

2029 2033

. 2009 2060 102,471 2080

202,546 , 2021 , 2033

.

.

2008

65 70% ,

A 5% . 2028 A

10% 65

.

, , 2011 7 37

1,058 2 , 2015 105 , 2020

192 (, 2011; ,

2011).

,

(, 2011.7).

10% 2010 158 ,

20 32.2%

3 400

(, 9,000 , 2,750 , , 850)

.

(2007. 7)

(2011. 1)

(,

2011a).

.

3.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외국 사례[21)]

가. 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 ,

.

.

, ,

.

, . ‘

(prefunding)’ . 1997

,

.

(Premium Pension

Reserve: PPR) . 18.5% 2.5% ,

.

(SERPS) 2 (S2P)

.

. (contracting-out)

(Stakeholder pension) 2

.

‘ ’

.

21) (2011)

.

(NDC)[22]

.

,

,

.

. (credit)

. (minimum

pension) ,

.

,

, (targeting)

.

,

.

,

, .

, ,

,

.

1980 ,

. 1989

.

, ,

10～

, , , ,

22)

.

20 65 .

67 .

, ,

, , ,

, .

나. 취약집단에 대한 공적노후보장 강화

.

,

.

1999

S2P SERPS

, 2007 . 1998

. ,

. 2001 65 , 18

,

.

OAS , GIS

, .

.

,

.

.

,

.

.

(workfare)

.

다. 성역할 변화 등 사회변화에 대한 연금제도의 대응성 강화

. (bread-winner model)

. (credit)

.

(credit) .

1 1

.

1992 1

3 , 100% .

1998

.

4 ,

.

, 75% ,

.

. 2001

10

50% ,

.

.

1997 ,

3

.

. 1992

13 1990 7 , 3

. 1998

20%

50%,

.

100% .

1997 , 2001

.

.

, .

2003 1 1

,

. 18

40%

25 1 1

.

. ,

, .

.

. (widow's pension)

(widow's and widower's

pensions) , .

(child's pension) . 18

, 20

. (BA) 25%,

50% , ATP ATP 30%

. 60% 55%

.

2 ,

100% . 1986

50% .

.

라.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1986 SERPS (contract-out)

.

.

,

.

. .

, (mis-selling scandal)[23]

.

. ,

.

.

(Stakeholder Pension)

[24].

.

2001

.

,

1 .

.

(PPR) 2.5%

---

23) mis-selling scandal 1980 1990 2 (SERPS)

.

, .

.

24) 1986

SERPS .

.

900 500 ,

.

.

1%

.

.

.

, , , ,

,

.

(PPR)

(PPM: Premiepensionsmyndigheten, Swedish Premium Pension Authority) . ,

.

.

. ,

PPM , PPM

.

4.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

,

.

,

. ,

.

M .

100

(, 2011b).

, .

. IMF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정책과제 25)

.

.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 재구조화 방안의 구체화

.

2008

.

.

.

•

,

.

25) (2011) .

. , 1 1

.

.

2) 퇴직금의 노후소득으로의 활용도 제고

.

.

.

,

gap .

3)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축소

. ,

. 10 5

2030 1950~1966 2 28

(,).

10 5

.

(5)

4)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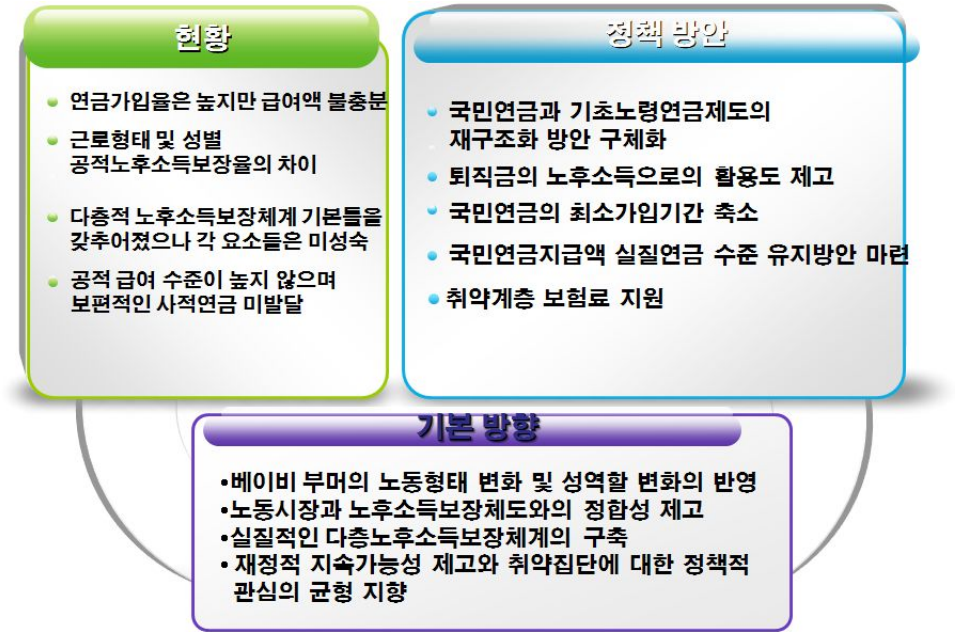
. 26)

.

.

.

[그림 4-13] 베이비 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6) 2012 5 1/3 .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1. 베이비 부머의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27]

40 50 .

. ,

.

가. 건강실천 행위

, 23.8%

, 46.4% ,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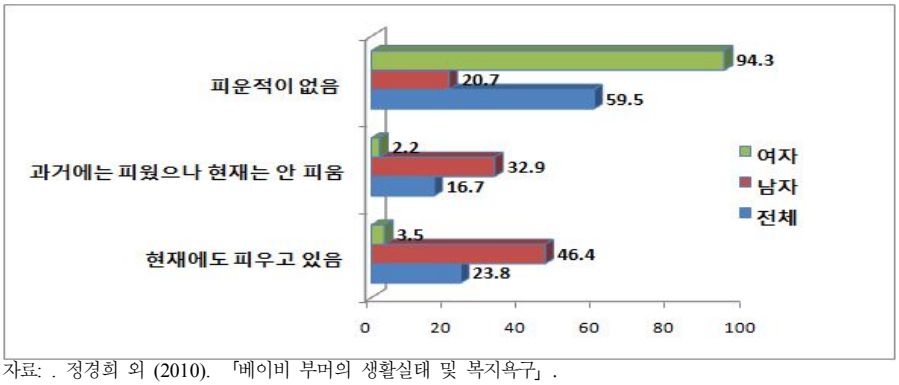
40

, ,

. ,

.

[그림 4-14] 베이비붐세대의 흡연실태(2010, %)



자료: . 정경희 외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7) 4 ‘ ’ (2011a) .

, 27.8% ,

9.4%,

62.8% . 3/4

, 50.2%

.

.

, 3/4

. , ,

.

68.5%

. 67.9%, 69.0%

.

,

.

, 40

.

80.8%

.

.

79.4%, 82.1% .

, .

,

.

.

<표 4-14>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생활실천행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소계	취업	미취업	소계	취업	미취업	소계	취업	미취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299)	(728)	(1,433)	(1,342)	(91)	(1,594)	(957)	(637)
흡연습관									
피운적 없음	59.5	50.9	86.7	20.7	21.1	15.4	94.3	92.7	96.7
과거 흡연 경험	16.7	20.1	5.9	32.9	32.6	37.4	2.2	2.6	1.6
현재도 피움	23.8	29.0	7.4	46.4	46.3	47.3	3.5	4.7	1.7
음주습관									
마신 적 없음	27.8	23.7	40.7	11.2	11.3	9.9	42.7	41.1	45.1
과거 음주 경험	9.4	9.0	11.0	12.0	11.5	19.8	7.2	5.4	9.7
현재도 마심	62.8	67.3	48.4	76.8	77.2	70.3	50.2	53.5	45.2
운동습관									
운동함	68.5	65.6	77.6	67.9	68.6	57.1	69.0	61.2	80.5
운동하지 않음	31.5	34.4	22.4	32.1	31.4	42.9	31.0	38.8	19.5
건강검진 수진									
받은 적 있음	80.8	80.5	81.8	79.4	80.5	64.8	82.1	80.6	84.3
받지 않음	19.2	19.5	18.2	20.6	19.5	35.2	17.9	19.4	15.7

자료: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자료의 재분석 결과임. 정경희 외(2011)에서 재인용.

,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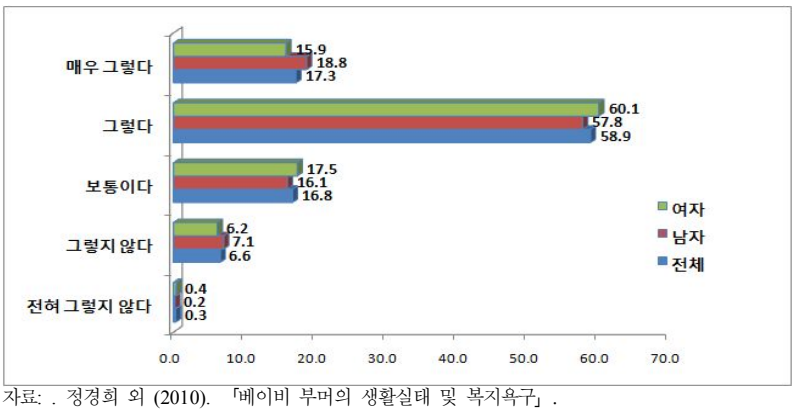
259

. , ,

.

제4장 영역별 현황 및 정책과제

[그림 4-15] 베이비붐세대의 다양한 식품섭취 유지경향(2010, %)



자료: . 정경희 외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45~49

, 2001 38.80%, 2005 39.44% ,

. , 31.00%

36.52% , 46.47% 42.76% ,

.

.

, ,

1998 25.87%, 2001 41.33%, 2005 46.01%

.

,

( ) .

, ( )

,

.

<표 4-15> 중·장년층의 비만: 45~49세 연령층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05년	(N=2,808)	(N=1,370)	(N=1,438)
주관적비만인지			
비만 아님	60.56 (1.7440)	63.48 (2.6810)	57.24 (2.5990)
비만	39.44 (1.7440)	36.52 (2.6810)	42.76 (2.5990)
체중조절			
조절노력 안함	53.99 (1.8190)	57.28 (2.6930)	50.25 (2.1910)
조절노력 함	46.01 (1.8190)	42.72 (2.6930)	49.75 (2.1910)
2001년	(N=2,146)	(N=1,107)	(N=1,039)
주관적비만인지			
비만 아님	61.20 (2.3890)	69.00 (3.2860)	53.53 (3.2190)
비만	38.80 (2.3890)	31.00 (3.2860)	46.47 (3.2190)
체중조절			
조절노력 안함	58.67 (2.3750)	59.85 (2.9270)	57.51 (2.3750)
조절노력 함	41.33 (2.3750)	40.15 (2.9270)	42.49 (2.3750)
1998년	(N=2,321)	(N=1,178)	(N=1,143)
체중조절			
조절노력 안함	74.13 (1.4870)	82.06 (2.0530)	65.83 (2.3170)
조절노력 함	25.87 (1.4870)	17.94 (2.0530)	34.17 (2.3170)

주: 1998년의 경우 주관적 비만인식률과 관련된 설문 항목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서 재인용.

나. 건강상태

,

3.9%, 50.4%, 34.7%,

9.9%, 1.1%

.

.

.

<표 4-16>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소계	취업	미취업	소계	취업	미취업	소계	취업	미취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299)	(728)	(1,433)	(1,342)	(91)	(1,594)	(957)	(637)
매우 좋다	3.9	4.5	2.1	5.5	5.9	-	2.5	2.7	2.4
좋은 편이다	50.4	54.9	36.2	55.3	57.2	27.8	46.1	51.8	37.4
보통이다	34.7	33.4	38.4	31.0	30.8	34.4	38.0	37.3	39.1
나쁜 편이다	9.9	6.5	20.4	7.4	5.7	32.2	12.1	7.6	18.8
매우 나쁘다	1.1	0.6	2.9	0.8	0.5	5.6	1.3	0.6	2.4

자료: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의 재분석 결과임.

, 27.1%

. ,

(30.6%) , (28.4%) .

, (8.4%p)

(6.7%p)

, 10.2% .

(12.3%) , (13.2%) .

(6.1%p) (3.1%p)

.

.

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나타난 질환 실태

2002

.

2002

. 5

.

2002 , .

, , ,

. 2009 1

2 .

, ,

. 1 .

2002 , 2005 3

1 ,

(, 2010).

라. 건강관리서비스 욕구

,

38.4%, 17.4%, 13.3%,

8.8%, 5.9%, u- 4.8%,

4.0% . ,

(· , , ,) 45.4%

.

u- ( )

, ,

.

.

<표 4-17> 베이비 부머의 성 및 취업상태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 내용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소계	취업	미취업	소계	취업	미취업	소계	취업	미취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299)	(728)	(1,433)	(1,342)	(91)	(1,594)	(957)	(637)
없음	5.2	5.3	5.2	6.6	6.3	10.9	4.0	3.8	4.4
건강 및 질병상담	13.3	12.6	15.5	13.0	12.9	14.1	13.6	12.2	15.7
건강교육	8.8	9.5	6.6	9.1	9.1	8.7	8.6	10.1	6.4
식이 또는 운동처방	17.4	17.1	18.2	16.1	16.1	16.3	18.6	18.6	18.5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	5.9	5.1	8.5	2.9	2.3	10.9	8.7	9.0	8.2
약물오용관련 교육 상	0.5	0.4	0.5	0.5	0.4	1.1	0.4	0.4	0.5
정기적 건강검진	38.4	40.0	33.3	41.7	42.8	23.9	35.4	35.9	34.6
질병관리서비스	4.0	3.7	5.2	3.3	2.9	9.8	4.6	4.7	4.5
u-헬스(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4.8	4.9	4.5	5.9	6.0	3.3	4.0	3.4	4.7
방문간호서비스	1.6	1.3	2.3	1.0	1.0	1.1	2.0	1.7	2.5
기타	-	-	-	0.1	-	-	0.1	0.1	-

자료: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자료의 재분석 결과임.

2.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 관련 건강정책 현황[28)]

.

.

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

,

, ,

28) (2011a) (2011)

.

, , U-health .

1)

1 , . 2)

2 ,

. 3) 1, 2 ,

3

.

나.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 」

29).

,

. 1) , 2)

, 3) , 4)

.

.

,

.

, , ,

.

,

, ,

, (:)

29) .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2010.

.

, .

. ,

.

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요

3 Health Plan 202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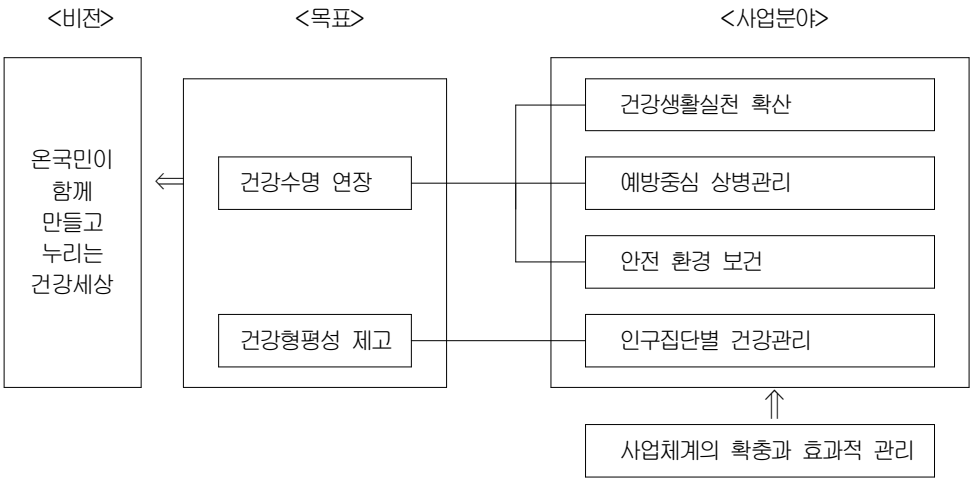
.

HP2020 ,

, , 4

.

[그림 4-16] Health Plan 2020의 기본 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공청회 자료.

HP2020

,

, , .

,

, , , , ,

,

.

/

.

라. 국가건강검진사업

2008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5

(5-5).

2 1 (, 1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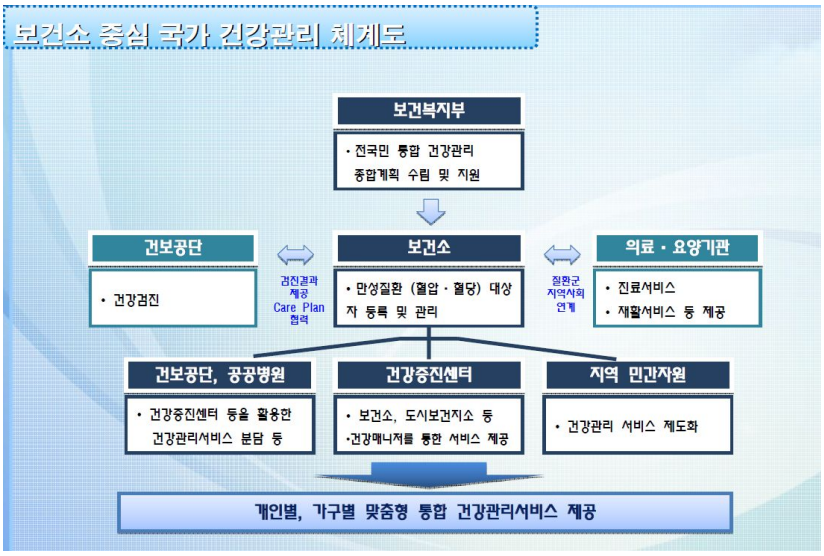
.

1999 2001~2002 5
, 2004 5 (, , , ,
) . 2002
, 2005 18
.
. . . ,
. . ,
.

라.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
, ,
, .
, , ,
.
(10%) ,
.

[그림 4-17] 보건소 중심 국가건강관리체계도



마. 만성질환 관리사업

,

,

.

(

, ,), (, , ,

), (, ,),

(, , , , ,) .

2000 · 2003

. 2006 · ,

(1), (high risk group)

(2), · (3),

1970

1990

2

3.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된 외국 사례[30]

30) (2011a) (2011)

.

가. 미국의 건강노화프로그램 및 질병관리프로그램

2000 ‘Healthy people 2010'

,

,

.

(,

2009). , ,

. Healthway , ,

‘Health & Wellness Programs’ .

. WebMD 950 ,

MyWebMD , ,

.

, 50-64

,

.

(

4-18). , 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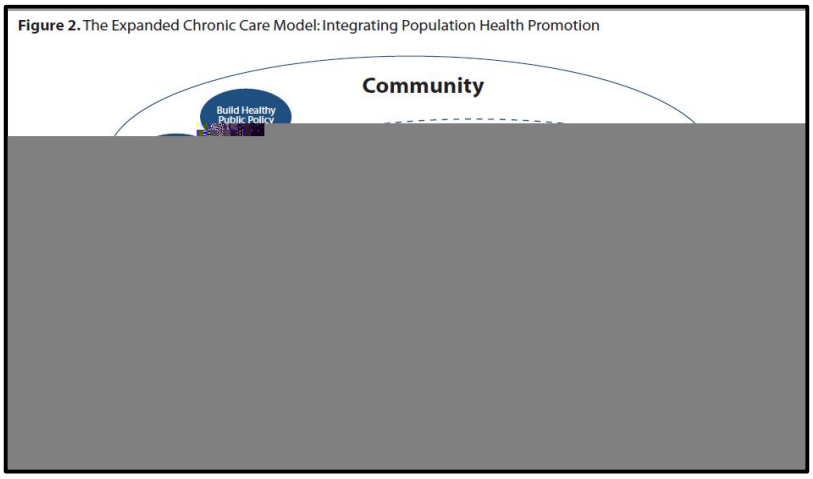
.

.

.

(CDC , 2009).

[그림 4-18] 건강증진이 통합된 만성질환관리 확장 모형



2007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50-64 . 「 (The Community Guide to Preventive Services)」 .

나. 호주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 .

(General Practitioner, GP) Smoking, Nutrition, Alcohol and Physical Activity(SNAP) . 2006 “Plan for Better Health for All Australians" SNAP , (Harris M, 2008).

1 5 GP , GP .

,

. , GP

7.4 , GP

. GP

.

75

, 45~49 (Medicare Benefit Schedule; MBS) . 40~49 2 (MBS 73) .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RAGGP) Guidelines for Preventive Activities for General Practice GP

, .

RAGGP Guidelines for Preventive Activities for General Practice GP ,

5As(Ask, Assess, Advise, Assist, Arrange)

.

다. 캐나다의 건강증진사업

(Population Health)

, ,

. , ,

, , , , ,

, (, 2009).

(public health strategies)

, , .

(health promotion strategies)

, (health protection strategies)

,

(clinical approach) (, 2007).

(public health)

, ,

“

” . Core Programs

, . . , ,

4 .

다. 일본의 건강증진사업

3 2000 ,「 21」

21 . ,

,

(,

2009).

2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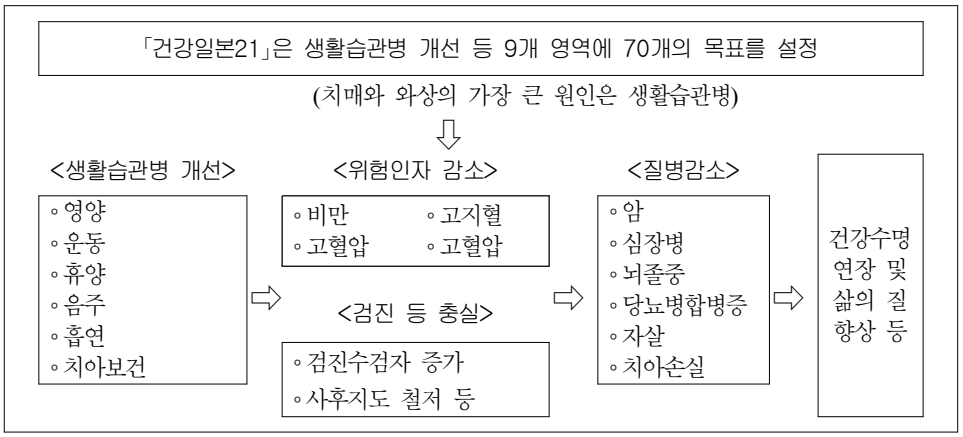
, ,

, 9

, , , , , ,

, , .

[그림 4-19] 「건강일본 21」 과제 선정의 틀



자료: 이상영 외(200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편집.

2006 ,

. 2008 4

40 ~74

. 1

2

(, 2008).

,

.

,

, , 3

,

. (active support)

(motivational support) .

3~6

. , ,

.

.

(, 2010)

4.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과제[31)]

가. 기본방향

.

.

.

, .

.

, , , ,

.

, .

,

.

나. 정책과제

가. 집단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활성화

(68.5%)

(80.8%) , (62.8%) (23.8%)

(2008 68.6%) (2008 27.3%)

.

31) (2011) .

, .

40 2 1 (1 1)

, 20% .

.

75% ,

,

. ,

, , ,

, .

나.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서비스의 질적 강화

90% ( )

27.1% , 10.2% .

,

.

.

2007 (

)

.

(40 66)

.

. .

. ,

( )

,

.

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강화

.

, , ,

.

, ,

,

.

.

277

제4장 영역별 현황 및 정책과제

라.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38.4%) (17.4%), (13.3%),
(8.8%), u- (4.8%) .

,

.

.

,

.

.

마.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

,

.

.

, ,

.

.

, .

,

SNAP .

, ,

.

바. 건강증진과 예방이 통합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

, .

.

(, 2010).

CDC

, ,

.

.

.

, ,

. 2011

30 ~6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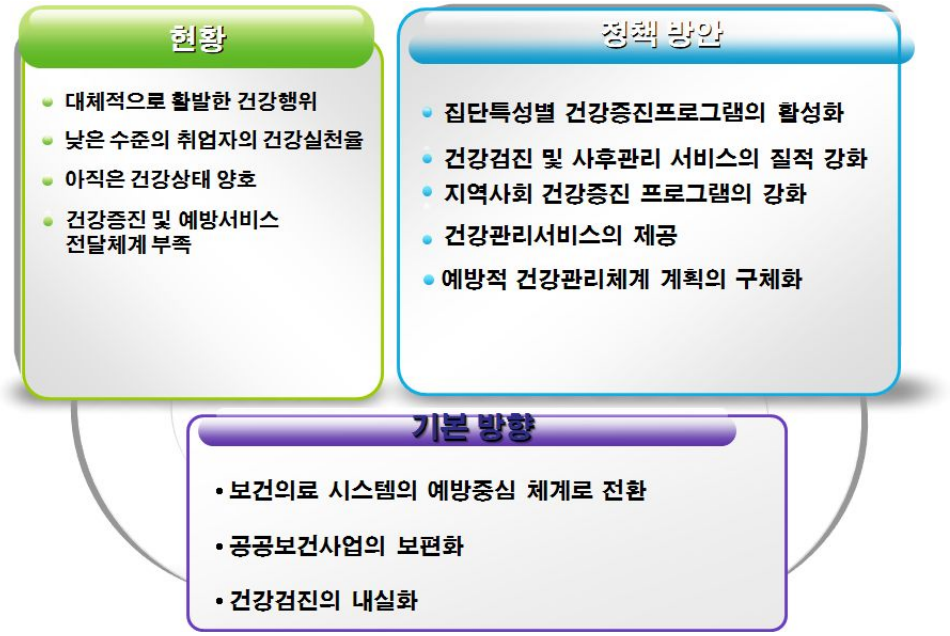
) . ,

(:)

.

.

[그림 4-20]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제5절 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베이비 부머의 주거 현황 및 서비스 욕구

가. 현재의 주거실태

2,000 2011 (,
2011a) , 82.1% ,
,
.

.
. 1 23.7%, 1 ~5 61.6%, 5 14.8%

. 5

20.6% 12.1%, 0.9% .

,

,

49.3% 37.3% 42.9% (,

2011).

나. 주거비부담(PIR, RIR) 현황

.

PIR 5.6 5.8

4.9 . RIR 21.4%

22.3% 22.8% .

PRI 5.7

5.3 , 7.8 , RIR 20.4%, 20.9%, 25.8%

(, 2011).

<표 4-18> 베이비 부머의 소득계층별 PIR, RIR 현황

(단위: 만원, 배, %, 호)

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전체
자가	저소득층	주택가격	9,865.0	10,626.9	12,014.7	10,610.6
		월소득	126.7	113.5	108.4	89.5
		PIR	6.5	7.8	9.2	9.9
	중소득층	주택가격	16,707.9	16,759.2	17,338.6	17,477.3
		월소득	271.6	264.3	259.2	261.0
		PIR	5.1	5.3	5.6	5.6
	고소득층	주택가격	28,116.8	35,410.5	33,900.7	32,388.9
		월소득	502.7	517.7	550.2	518.9
		PIR	4.7	5.7	5.1	5.2
	전체	주택가격	20,313.2	22,738.4	19,516.6	18,392.5
		월소득	344.0	336.2	278.4	258.0
		PIR	4.9	5.6	5.8	5.9
차가	저소득층	월임대료	31.7	27.6	28.1	29.0
		월소득	120.7	106.7	94.7	91.8
		RIR	26.3	25.8	29.7	31.6
	중소득층	월임대료	56.3	53.6	48.8	54.1
		월소득	255.6	256.6	250.6	252.0
		RIR	22.0	20.9	19.5	21.4
	고소득층	월임대료	113.4	108.3	98.4	102.8
		월소득	494.5	531.8	497.1	504.0
		RIR	22.9	20.4	19.8	20.4
	전체	월임대료	61.9	54.7	42.7	49.9
		월소득	271.1	255.9	191.2	215.4
		RIR	22.8	21.4	22.3	23.2

자료: 손경환 (2011)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다. 자산 구성 및 자산활용 의사

.

3.4 2.6 , 7

, 950 .

76.3%, 20.8%, 2.8% .

90% .

.

84.4% , 60.4%

(, 2011).

<표 4-19> 베이비 부머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 부머	이후세대
가구 수	10,000.0	3,504.0	2,212.0	4,284.0
(가중치)	100.0	35.1	21.8	43.1
총자산	27,268	30,697	33,775	21,191
-부동산자산	20,661	25,912	25,785	13,798
·거주주택	11,564	13,803	13,738	8,644
·거주주택 이외	8,917	12,033	11,725	4,962
-기타자산	779	523	948	902
·자동차	587	354	740	699
-저축총액	5,828	4,262	7,042	6,491
·저축액	4,089	3,614	5,387	3,821
·전세보증금	1546	559.4	1480.8	2381.7
·월세보증금	193	88.4	174.0	287.9
순자산액	23,005	27,191	28,015	17,067
부채총액	4,263	3,506	5,761	4,124
-부채액	2,884	1,932	4,084	3,052
·금융대출	2,880	1,930	4,079	3,047
·임대보증금	1,380	1,573	1,677	1,072
경상소득	3,771	2,533	4,760	4,279
가처분소득	2,912	1,971	3,619	3,321

자료: 통계청(2010). 가계금융조사

. 2007 7

( ) .

,

85.2% 23.0%

. ,

, , (,

2010).

라. 주거관련 욕구

.

.

.

60%

. 54~56

,

.

(, 2011a).

32)

.

.

.

(, 2011).

.

.

( ) .

.

,

.

.

32) (ordinary least square)

.

, (human capital model) .

, ,

. 「 」 .

(2011) .

.

,

. 49.5%

, 32.0% .

44.8% , 50.7%,

81.7%

. ,

(

2011).

17.4%, 9.5%, 21.4%,

12.8%, 38.8% . “

”

. ,

(, 2010).

36.0%

(, 2011a).

.

2. 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현황

2

. ,

, .

,

.

.

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부족

55 65

, .

55 55

.

(, 2011).

, ,

.

[그림 4-21] 베이비붐세대의 연도별 주거소비 추세

.

2008 42.7㎡ 2023 32.3㎡

.

나. 특화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

. ,

.

.

, . , .

.

.

<표 4-21> 생애주기별 현재 주택정책의 개요

기준	목표대상	주택정책
소득수준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마련
	중·저소득층	보금자리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중소득층	중소형 민간분양 주택기금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다세대·단독주택 공급
	중·고소득층	중대형 민간분양 규제 개선
	사회취약계층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	무주택서민	소형주택 구입·보유·매각시 세제지원
		무주택자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지원
		소형 공공주택 용지의 저가 공급
가구특성	신규형성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보급자리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확대
	다자녀 가구	3자녀 특별공급
	장애인 가구	장애인 특별공급
	고령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 노인주택 개조기준,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준주택 제도 활성화

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진행

.

.

( )

.

2015 60

2025 10 3 ~6

. 61 2015 , 64

2018 , 71 2025 3

(, 2010).

.

(1947~49) 2000

1990 .

. (1946~64)

. 80%

.

3. 주거안정과 관련된 외국 사례[33]

가. 지속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

2006 7

Universal Design Guidelines HDB

. LIFE(Lift Improvement & Facilities Enhancement for Elderly)

Senior Activity Center

.[34]

2006 (Committee on Aging Issues) ‘

(Report on Aging Population)'

(Elderly-Friendly Housing) (Barrier-free Society) 2 .

,

(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s, VWOs)

, (Retirement Housing)

[35] .

CAI ‘ (Accessible City)’

, Town Council HDB

, , Universal Design ,

33) (2011a) .

34) LIFE Project 2014

, 55 (4 6))

35)

.

.

,

(Challenges in Achieving Continuum of Care between Community and Residential Care Service)

.

.

나. 다양한 주거비 비원

,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CPF(Central Provident fund)

.

(Monetization)

.

35~45㎡ (Studio Apartment, SA)

.

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Studio Apartment Scheme) .

1998 3

. 55 HDB

10 .

. 30

.

, ,

1950 (Public Rental Housing, PRH)

. .

2008 3 60 39% 439,500

.(Secretary of Transport and Housing Bureau, 2008, , 2009).

(Priority)

. (

, 2 ,)

.

.

,

.

‘

(Single Elderly Person Priority Scheme)' .

58 7

.

2

‘ (Elderly Persons Priority Scheme)’ .

2

.[36]

(Harmonious Families Priority Scheme) 2009 1 .

1 2

.

2

. (Housing for

Senior Citizen) 3 .

(Small Self-Contained Flat)

3 .

4. 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

.

, .

.

.

나. 정책과제

36) .

1) 주거정책공백기간인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 마련

. , ,

.

. 55~65

.

(55)

.

.

2)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

.

.

3) 주택의 활용방안 다양화

.

.

.

4) 주택연금의 내실화

.

(silver grant)

. 55

65 .

10 .

.

,

(, 2011a).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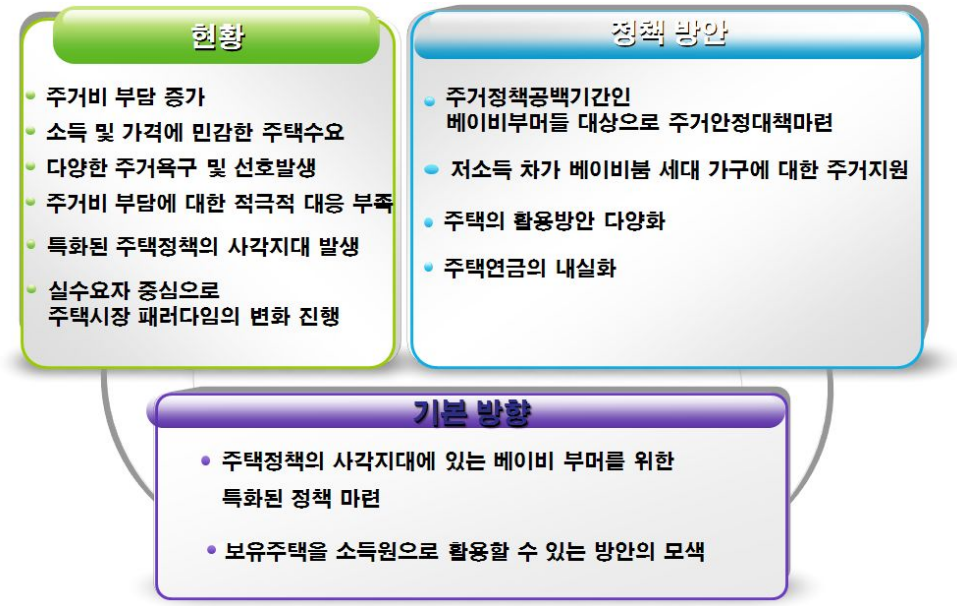
HUD( )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FNMA( ) Home Keeper, .

.

.

.

[그림 4-22] 베이비 부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제6절 베이비 부머의 적절한 노년기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

1. 베이비 부머의 노후설계 현황 및 서비스 욕구

2008	3 ~4	1000	563
2010	11~12	1000	523

,

.

.

가. 베이비 부머의 노후에 관한 인식

. 54

,

.

.

.

. 78.1%

8.7%

.

1/3 .

.

,

.

(39.8%),

(34.3%), (10.1%), (8.3%)

.

.

,

.

40% 30

.

30 .

51% , 15.1% .

.

,

.

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정도

, .

.

19.5%

41.3%, 49.14%

.

.

.

,

.

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설계서비스 욕구

, ,

(55 ~64)

.

.

.

,

28.2%

24.4% . 42.4%

36.4%

.

, , ,

.

2. 정책 현황

가. 개요

2

. 2

‘ ’

‘ ’ ‘

, .

(, 2009).

.

. , , NGO·NPO, ,

,

(, 2008).

<표 4-22> 민간영역의 노후설계 프로그램 사례 현황

유형	주최기관	프로그램 내용	대상
기업	POSCO	그린라이프 서비스 노후설계준비과정	정년퇴직 1년 전 대상자 및 희망자
민관 공동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현대중공업	Life Navigation Program 은퇴준비프로그램	지역 제조업 퇴직예정자 및 현대중공업 재직자
NPO	한국은퇴자협회	타오름 아카데미, 노후설계교육	50세 이상
컨설팅	DBM KOREA	정년/임원 퇴직관리 컨설팅, 은퇴설계	정년예정자, 퇴직임원
학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장수과학 최고지도자 과정	고위 공직자 최고위경영자

자료: 이삼식 외. (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나. 구체적인 사례

,

.

1) 국민연금공단의 행복노후설계센터

‘ ’

.

2011 4

.

[4-2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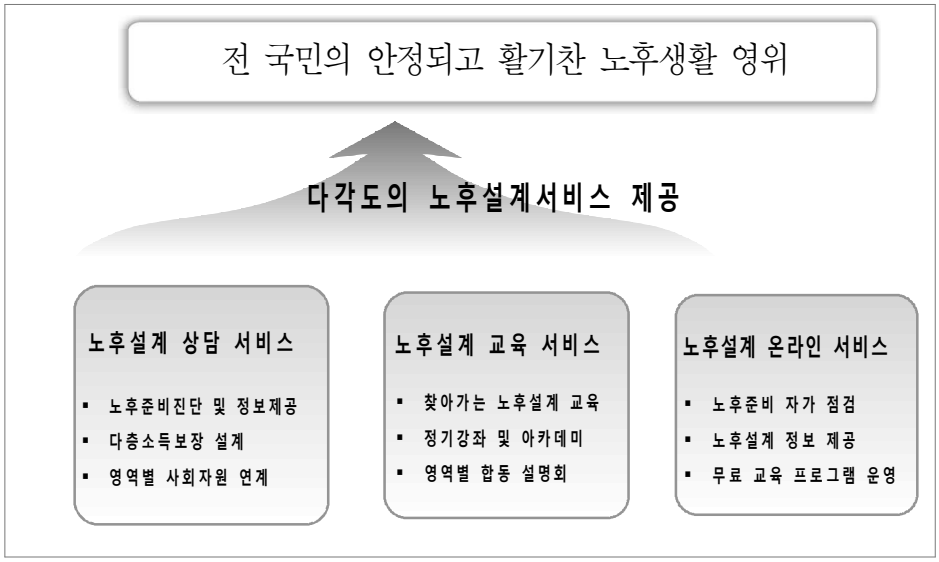
「 」 .

, · · One-Stop

,

.

[그림 4-23]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의 서비스 개요



2011 4 140 .

2010 275,559 .

<표 4-23>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적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노후설계 상담(건)	607,758	107,410	224,789	275,559
노후설계교육(회/명)	7,512/342,583	-	1,385/56,382	6,127/286,201

.

. ,

,

,

. ,

, , , ,

.

.

<표 4-24>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상담서비스의 연령대별 주요 이슈 및 주요 상담 내용

구분	연령대	주요 이슈	주요 내용	사회자원 연결
재무	20-30대	결혼 준비 가족 형성	◦결혼, 주택 마련 자금 준비 ◦합리적 소비 지출 및 부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40-50대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자녀 교육 및 결혼 자금 마련 ◦개인연금·퇴직연금 정보	
	60대 ~	노후 자금	◦즉시연금, 주택연금 활용 ◦기초노령연금 상담 및 접수	
일	20-30대	직업 선택	◦노동부 워크넷 채용정보 ◦직업훈련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40-50대	조기 퇴직	◦재취업 및 창업 준비 ◦퇴직자 교육 훈련	
	60대 ~	노후 자금	◦노인 일자리 제공 기관 ◦직업 훈련 무료서비스 기관	
건강	20-30대	노화 시작	◦노화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장기요양센터 ◦한국치매가족협회
	40-50대	질병 예방	◦성인병 종류와 예방, 식이요법 ◦갱년기 극복	
	60대 ~	노화 지연	◦노후 식생활, 운동, 수면 관리 ◦치매 예방, 장수 비법	
주거	20-30대	주택 준비	◦청약통장 활용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40-50대	주택 마련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해외 은퇴이민, 전원생활	
	60대 ~	주거 환경	◦노년기에 적합한 주거환경 ◦노인 복지시설 및 실버타운	
대인 관계	20-30대	가족 형성 사회 참여	◦가족 관계 형성 시 유의사항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
	40-50대	역할 증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개선 방법 ◦좋은 인간관계 형성 10계명	
	60대 ~	관계 축소	◦원만한 노년기 사회관계 유지	
여가	20-30대	취미 위주	◦지역별 여행정보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주민자치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40-50대	여가 부족	◦문화바우처 사업 안내 ◦자원봉사	
	60대 ~	시간 증가	◦지역별 축제 및 행사 정보 ◦자원봉사 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안내	

2) 노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노년기 적응 지원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Anytime Together) ( ), ( ).

(,),

( ),

(,), ‘

’( ) .

,

. 2007~2009

.

. 2007 ~2009 3 750

, . , ,

, , ,

,

.

( ),

( ),

( ), ( )

.

다.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

<표 4-25>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의 장단점 비교

유관기관	장점	단점
국민연금공단	·접근성 용이(지역 접수창구) ·대상의 적절성(4,50대) ·CSA 양성프로그램 보유 ·재무영역 강점	·비재무영역 서비스 취약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전문인력의 범위 협소(공단인력 활용]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노인인력개발원	·노후설계 교육컨텐츠 보유(SLCA) ·일자리 연계서비스 강점	·전국적 인프라 부족(접근성 미흡)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사회복지관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강점 ·중장년층 대상 사업 경험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사회적 편견(저소득층 중심 사업수행 기관) ·지자체별/지역별 인프라의 편차
노인복지관	·지역내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강점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노인복지서비스 노하우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 보유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중장년층 대상 사업수행 경험없음 ·중장년층의 인지적 접근성 낮음 ·지자체별/지역별 편차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보유 ·기존 전문가(건강가정사) 활용	·다양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 미흡 (가족자원중심 사업 수행) ·접근성 미흡

3.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외국 사례

37).

.

CLIC-Point Paris Emeraude(PPE) .

PPE (15) , ,

(Conseilleres en economie sociale et familiale) . PPE

, (Concours)

.

. .

Life Academy ,

(think-tank)

, ,

. (life planning) .

(Later Career & Retirement Planning), (Postgraduate Certificate in Life Planning), (MSc in Mid-Life, Pre-retirement and life planning) .

,

. 50

seniors.gov.au

37) · · · · (2008). 3

, .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 Centerlink

( )

.

, , ,

. On-Purpose

Partners(www.onpurposepartners.com) .

(holistic retirement plan) .

(Lifestyle

Retirement Plan) , ,

3aoptions(www.3aoptions.com) .

The Third Age Coaching Academy

.

.

(http://thecenter.berkeley.edu)

, , ,

, , , ,

. ,

4 6 .

,

.

4.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가. 기본 방향

. ,

.

.

.

, . (,

, ‘ ’)

.

.

.

1 , 2

.

, .

.

.

.

.

,

.

,

,

.

.

.

.

.

나. 정책과제

, ,

(, 2008).

.

, ,

,

.

. , ,

,

309

제4장 영역별 현황 및 정책과제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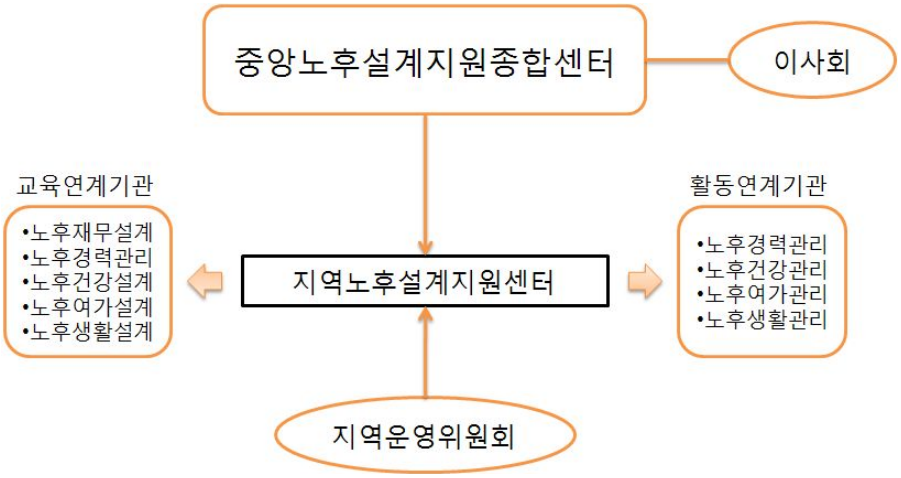
1)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 .

[그림 4-24]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

.

, ,

,

, , .

2) 노후설계 컨텐츠 개발 및 제공

.

.

.

.

. ,

.

3) 노후설계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마련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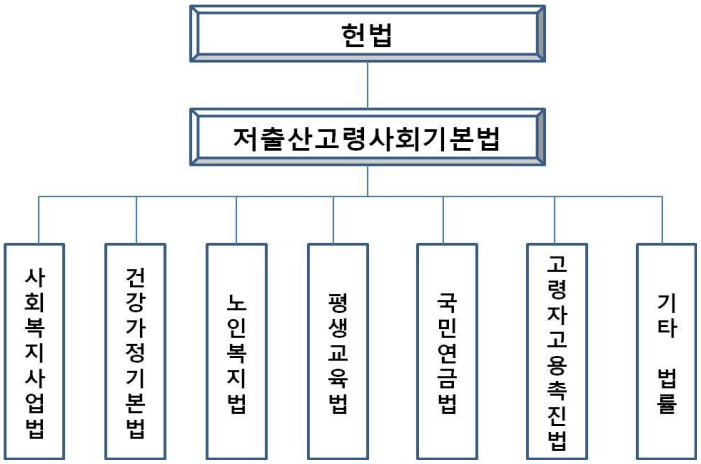
4) 전 국민의 노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

, .

.

[그림 4-25]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5)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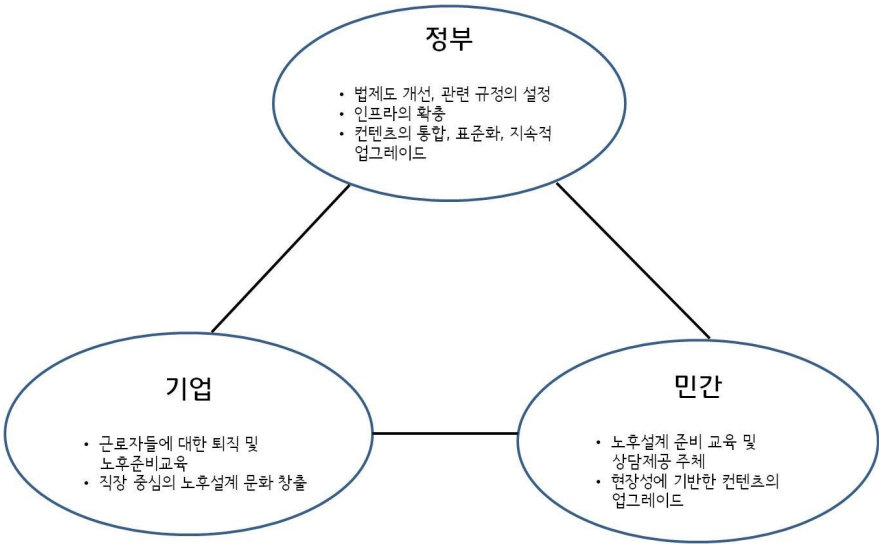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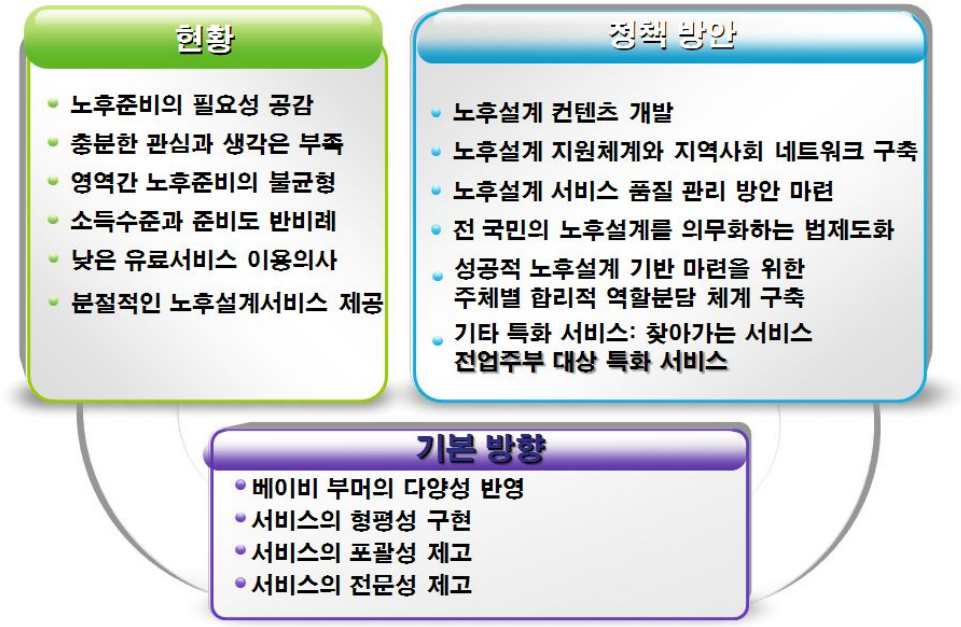
.

[그림 4-26]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



6) 기타 베이비 부머를 위한 특화 서비스

[그림 4-27] 성공적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제7절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1. 베이비 부머의 주요 분야별 욕구

.

.

,

,

. ,

38).

40.6% ,

31.8% .

85.2% ,

23%, 29.5%,

19.4% .

,

.

63.9% ,

70.9% .

(58.5%), (16.2%), (14.4%),

(7.5%), (3.4%) .

31.1% 5 , 68.9% 5 ,

70%

30% .

83.4%

.

, 54.7%

.

38.4%, 17.4%,

13.3%, 8.8%, 5.9%, u- 4.8%,

38) (2010) .

4.0% .

, (, , , ,)

45.4%

.

42.3%

, 60~63 50~59

. 69.4%

, 83.7%

.

15% , 13%, · 13%,

13%, 10% ,

.

.

.

43.9%

,

. , 64.1%

.

49.2%,

22.4%, 22.2% . ,

36.1%, 28.9%,

21.1%, 10% .

, ,

.

60 2015

, .

,

.

,

.

2.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정책 현황

가. 정책추진 내용

2000

. 2005 4 2006 12

.

('05.8) ,

. 10 ,

'( ) ('05.9~'10.8, 76) . ( ), ( ),

( ), ( ) ' · '

.

<표 4-26> 고령친화산업 정책 추진 과정

년도	내용
2003년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출범하여 저출산·고령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
2004년	▪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설치, 고령친화 복지 및 고령친화 산업 육성 정책 준비
2005년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8개 분야 19개 품목을 집중육성 ▪ 2005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제정 ▪ '(가칭)고령친화산업 지원법'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를 가동(2008.3 폐지) ▪ 고령친화산업 발전전략발표, ▪ (재)부산테크노파크에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운영(2005.9~2010.8) - 체험홍보관, 표준화 및 인증, 산업체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
2006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상반기에 「제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수립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 새로마지플랜 (2006~2010) 추진
2007년	▪ 고령친화산업팀을 중심으로 2008년 추진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대비한 표준, 인증 등 사업 추진
2008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고령친화복지용구 DB구축, 노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우수사업자 기준 정립,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시장분석 등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를 추진 ▪ 지식경제부에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작
2009년	▪ 고령친화산업팀이 없어지고 정책부서로 편입 ▪ 그간의 지원사업 추진 결과가 양호하게 드러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
2010년	▪ 지식경제부는 U-health, Wellness, U-Silver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추진되지 않았음. ▪ 중소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나 정책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
2011년	▪ 새로마지플랜 2(2011~2015)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고령친화산업부문에는 특이한 변화 사항이 없었음

자료: 박영란 외 (2011), 「베이비 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연구」 p.172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2008 (‘08.7)

, 2008.7~2010

1,526 ('08 132 , '09 673 , '10 721) .

IT

(u-Health) (‘10.5) .

(u-Medical) ‘ ’ ('10~'12 ,

125) .

. 864 , 15.4 (

, '09.8) 2006 376 2007 415

10.4% , 2008 866 108.7% .

나. 정책의 제한점과 문제점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2 ‘ ’ 「

」 ‘ ’ .

‘ ’ ‘

’

.

2

1 ·

, ,

.

5

.

.

.

2

‘

.

’ ‘14 34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2) 개별 정책의 제한점과 문제점

, . ,

R&D ,

,

, .

,

, , ,

( ) .

.

, R&D

,

, 10

R&D , .

10 95% , 10 55%

. 2009 R&D 33.6 (

4.1 0.08%) . , ·

, ·

. 38.3%

('05~'08) 27.6% , 198.8%

.

.

,

, IT

, ,

. (u-Health) · (HW·

SW), (, ,), (, ,)

. (u-Health)

u-Healthcare (, ‘07～’09, 30)

,

.

,

,

. ,

. ,

,

R&D ,

.

.

.

. (u-Health)

, ,

, . .

,

, , ,

39).

,

,

.

(‘06.12) , ,

.

다. 기존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재검토

(2005, 2006) "

"

65

, , , ,

, ,

39) , , ,
, (KFDA) .

.

2005,6 2007~8 2012

, 2007

, 2008 , 10% ,

, 2012 .

2006 2002 14

12.8 , 2010 43.9

10 2020 148.6 .

2002-2010 16.6%, 2010 -2020

14,6% 2020 [40]

10% .

2011 2007

. 2006

,

.

, , ,

.

2005,6

. ' 50

' 1,000 '

" . ,

,

40) , (

)

(

, 2005)

.

3. 고령친화산업관련 외국 사례

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기반

. 2006

.

1950 .

,

30% . 2 7

80%

(, 2009)

. (the Silver Economy Network of European Regions(SEN@ER))

. 2005 2 17, 18 ‘ 1 ” .

(North Rhine-Westphalia) 600

.

1 (, , ,), , , , , , ,

41). 2006 2 (Maastricht) , 3 2007 11

41) Bonn (www.silvereconomy -europe,org).

(Andalucia) ‘ (The Silver Generation Driving Europe)’ . 4 2010 1 (Limoges) ‘ : ’ .

,

.[42]

(, 2010).

나.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COPOLCO( ) ISO/TMB (ISO·IEC 71) .

, , , , , , , , , , .

,

. (JIS) (JASPA)

42) SEN@ER :
- SENIOR ENTERPRISE INITIATIVE
- INDEPENDENT - ICT Enabled Service Integ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The project with SEN@ER participation submitted to the CIP programme is a CIP ICT PSP Pilot Type B proposal addressed to ICT PSP Objective identifier: 1.3 ICT for ageing well / independent living.
- eSESH - Saving Energy in Social Housing with ICT
- CULTUREMAP - Study on the mapping and evaluating of existing platforms (websites) within the cultural sector aimed at stimulating debate and cross border exchange of matters concerning European culture
- "COMMONWELL - Common Platform Services for Ageing Well in Europe
- AAMEE - Active Ageing of Migrant Elders across Europe
- SOPRANO - Service Oriented PRogrammable smArt enviroNments for Older Europeans
- MobilAlarm - a location-independent emergency service

( ) .

JASPA JIS

, , . , , ,

6 . ( )

JSI (·),

( ), , (Stoma) ,

5 . ( )

JIS 1 ( )

, ISO/TC173 JIS 3 . ( )

SG(Safety goods) . 2007 7 129

, ( ), ,

, , , , 9

(, 2007)

다. 기술을 활용한 생활지원[43]

. QoLT ( )

, , ,

. ,

, , 18 .

u-Japan IT

.

43) 「 」 .

, , , . IT

. ,

(Universal design)

.

Telecare

.

( ), / (, ,),

, .

.

AAL(Ambient Assisted Living) IT

, , , ,

. EU 2007~2013 7 3 5

, , , , , ,

.

4.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 , IT , (Well-being)

. ,

. , IT

.

.

, .

,

,

.

, .

(Needs)

.

,

.

. ,

R&D

328

.

, .

,

(u-Health)

IT BT

.

,

.

.

베이비붐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연구

나. 정책방안

<표 4-27>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관련 유망산업

산업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중고령 전문 인력 파견업	은퇴 후에도 해당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파견업무 희망함	<미국> 약 $800억 <일본> 약$400억 추산.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한번도 2%대를 넘은 적이 없으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점유율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장점이나 정규직과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	<유럽> 1990년대 중장년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이전과 자리회전 모델 실시 <일본> 대표적 파견업체인 '파소나' 2,369억 엔 매출('08년)
재취업 관련 교육서비스 산업	중고령층 퇴직가의 재취업 관련 서비스를 원함	많은 선진국에서 실직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등 정부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제공함	복지적 측면이 강해 국가가 실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뉴딜 50플러스'라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제도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함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낌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싶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낌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유럽>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관리 자문업이 한국에 비해 많이 발달한 상황임	2020년: 185,241억 원	소유자산의 불균형이 나타남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함 (낮은 금융자산 + 높은 실물자산) 부동산을 통한 소득창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음	<미국> 은행,증권사,뮤츄얼 펀드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및 Life cycle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며 노후에 대비함

건강관리서비스산업	고령화로 인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 프로그램의 필요성 느낌	<미국> 2010년: $57억 2015년: $33억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시 시장규모: 약2조원(2014년) 3만8천명 일자리 창출 예상됨	'건강주의군'에게 영양, 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	<일본> 2008년 정부 주도로 시작, 현재 3042개 병원, 의원과 139개 전문관리회사가 보건지도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적극 도움
유웰니스(u-wellness)산업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싶어함	2011년: $1,071억 2013년: $1,487억	2011년: 2,100억 원 2013년: 1조6,814억 원	국내업계의 관심은 증가추세이나 성공사례가 없어 시장창출 지연됨	나이키와 애플의 NIKE+iPOD Sport Kit'
항노화산업	자신의 외모, Well-being,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비교적 관심이 많음 치료목적의 항노화 제품뿐만 아니라, 외모관리 서비스로서의 항노화 서비스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	<미국,유럽, 일본> 매년8.9%급 성장할것으로예상됨 2008년: $1,612억 2010년: $1,895억 2015년: $2,919억	2020년: 9,000억 원 2020년: 27조원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임 항노화 식품의 경우(세계시장의 0.5%차지) 산업의 발전 미약함	<미국,유럽, 일본> 항노화서비스가 예방, 진단,관리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발전 <프랑스,독일,일본> 일반화 되어있는 수(水)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함
여가 및 관광산업	은퇴 후 고령자를 위한 관광레저·스포츠 산업	OECD국가들은 GDP의 3%~9%를 여가비용으로 사용	2006년: 총 여가산업규모 71조 3천여억 원	여가용품, 여가공간, 여가서비스 등 여가활동에 대응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미국의 '엘더호스텔'은 55세 이상 노인에게 교육과 여행서비스를 제공, 유스호스텔의 고령자판
실버주거	중산층도 고려한 고령자 주택 등	중장년층의 급격한	2010년: 26,778억원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일본> 고령자용 임대

지 및 주택 등 쾌적한 생활 공간 관련 산업	다양한 고령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느낌	증가는 임대보다는 자가 소유주택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고령자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임	2020년: 75,045억 원 ※주택개조 시장 2010년: 478억 원 2020년: 2,386억 원 ※실비(임대) 고령자 주택공급시장 2010년: 9,840억 원 2020년: 8,933억 원	자산상황에 따라 잠재수요의 폭이 넓어 비즈니스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시장의 미성숙으로 고령친화주택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함	주택에서 주택안전Repair 서비스, 사고방지 Total서비스에 이르는 폭넓은 시장이 형성되었음 <미국, 일본>민간이 고령친화주택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유헬스 (u-Health) 서비스 산업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베이비 부머들은 의료비절감의 필요성을 느낌	2007년: $1,058억 2009년: $1,434억 2011년: $1,893억 2013년: $2,540억 연평균 15.7% 증가 ※홈&모바일 헬스케어시장 2010년: $57억 2015년: $336억	※만성질환자의 u-Health 시장규모 2012년 고혈압 환자 : 6,926억 원 2012년 당뇨환자 : 2,741억 원 총: 약 2조 원(추정치)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여, 표준화 및 법· 제도가 미진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수준임. u-Health의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 임.	<미국> 만성질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홈&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한된 예산을 받는 노인 보호시설에 널리 보급함
의료기기 산업(노인 생활 편의기기 중심) 산업	영상진단, 치과용, 의료용 소모품 이외도 노인생활 편의성 중심의 기기수요 증대	2009년: $2,215억 2012년: $2,660억	2009년: 3.6조 원 연평균 13% 성장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수준	<EU> 의료기기 S/W검증 의무화('10.10) <미국> IEC의 강화된 성능심사기준 적용 예정('12.6 시행)

건강 기능 식품 산업	고령화로 인한 생체기능 저하를 막고 질병발생 위험을 감소하며 건강유지욕구 크게 확대	2008년: $2,798억 연평균 8.2%성장	2010년: 약 2조 원 연평균 10%이상 성장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초기 성숙기로 접어들었음	<미국> 1994년 건강기능식품 건강 및 교육법 제정으로 국가지원정책과 의회의 특별예산 지원
노인 장기 요양 관련 시설, 용품 및 기기, 서비스 산업	급속한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에도 건강하며,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증가함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함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이라는 가격적인 요소 이외에도 높은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도 고려함	중국,인도 등의 고령화가 진행 될 경우, 거대규모의 고령친화제품시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비율을 65세 이상 노인의 14.8%로 잡을 경우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명 (추정치)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시장규모 2010년: 4조 9천 억 원 2020년: 9조3,661억 원 ※시설요양 서비스 2010년: 7,006억 원 2020년: 42,293억 원 ※재가요양 서비스 2010년: 12,774억 원 2020년: 80,887억 원	고령친화용품 제조·유통하는 기업의 평균 자본금이 1억 300만원에 불과할 만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었음 실버용품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생산 및 유통체계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부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노인복지용품이 혼동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이 필요함	<영국> 커뮤니티케어법을 통해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로서 확립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 중고령 친화산업이 3배 이상 성장함. <일본> 고령친화제품 대여, 가정도우미서비스 시설 등 의료서비스 업체가 활성화 되어있음 시설요양보다는 재가요양을 장려함 <서유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재정조달과는 무관하게 나타남

1)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

,

. .

. .

(, ,

)

. . ,

. .

(36 1

3), .

, . .

.

,

,

. .

.

「 」 44),

(水)

, , ,

44) 미국은 질환관리에서 건강관리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 시장이 형성된 상태이며 일본도 '특정보건지도제도' 도입으로 이미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특정보건지도제도: 검진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시킨 제도로 2008년 4월 도입, 의료기관(3,042개), 주식회사(139개) 등이 다양하게 참여(2009년)

. ,
, .
.
(u-Health)
. ,
( )
, (u-Health)
. ,
(Well-being)
.
(u-Health)
,
.
(u-Health) [45] , ·
, .
.

2)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
, SW R&D .
, IT R&D
,
(u-Wellness) · SW, SW,

45)
.

· SW SW R&D SW
R&D .

,

,

.

. IT

.

3)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 ,

,

.

, , TP

,

R&D

.

4)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

, ,

.

, ,

. ,

, ,

.

46)

.

, , ,

,

, (u-Health) ·

.

5)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

.

, ,

.

.

( )

, ,

.

.

46) 2010 .
(6 , 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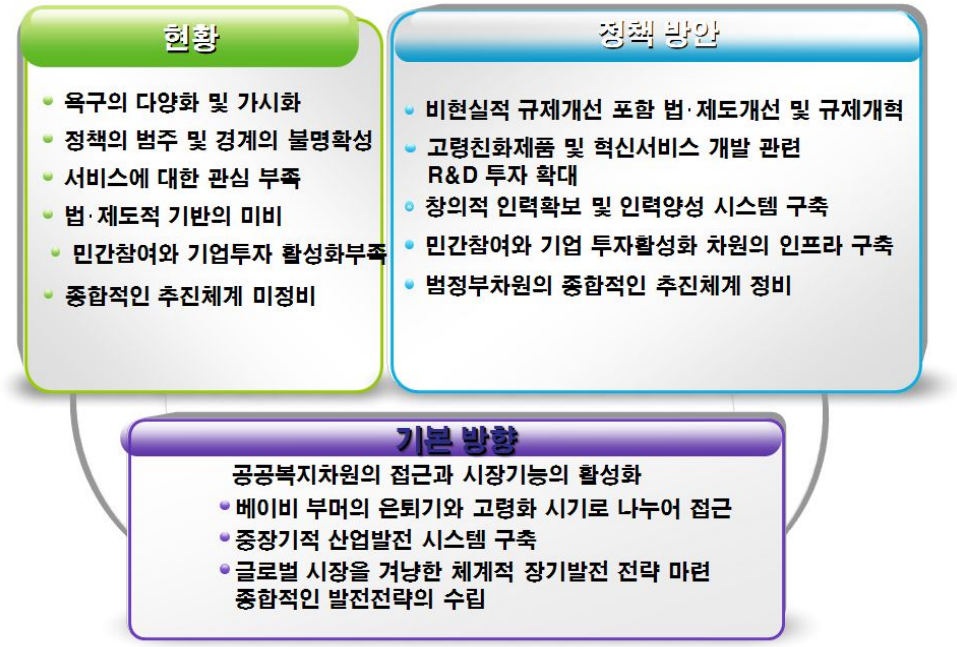
,

,

47).

.

[그림 4-28]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47) ( ) ‘( ) ’
R&D .
4 2 .
(, , , ,)

KIHASA

05

결 론

제5장 결 론

, ,

,

< 5-1>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R&D ,

,

.

.

<표 5-1>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역별 정책과제

영역	베이비 부머의 특성	정책 현황	기본방향	정책과제
경제활동	• 높은 경제적인 필요성과 낮은 직장 생존율 •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자기결정권 • 부족한 진로전환준비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중이나 확산속도 미흡	• 다양한 고용상태 및 직업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 •고용촉진방안과 근로능력 제공방안의 동시 지향	• 고용연장과 정년보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확대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전진적 퇴직제도 적용 •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 제조업의 고령친화성 제고 • 자영업 지속성 제고 및 창업지원 • 베이비 부머 개인 차원의 노력 경주
사회참여활동	• 전세대보다 높아진 자원봉사참여율 •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실태 및 욕구 • 일정수준 이상의 미충족 여가욕구 •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 •노년기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부족	• 일반화된 사회참여활성화 정책과 취약집단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활성화 정책으로 양극화 되어 있어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한 특화된 정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베이비 부버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여가활동-자원봉사활동-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결합하는 통합적 모델 지향 •참여자가 주축이 되는 bottom-up 접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사회전반의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	•다양한 인식과 동기에 대응한 맞춤형 자원봉사활성화 및 여가활동 활성화 홍보전략과 맞춤식 여가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특성에 대응한 맞춤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관련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여가인식의 강화 •여가활동 비용 부담 완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안정적인 노후소득	•연금가입율은 높지만 급여액은 불충분 • 근로형태 및 성별 공적 노후소득보장율의 차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을 갖추어졌으나 각 요소들은 미성숙 상태 •공적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보편적인 사적연금 미발달 •공적연금제도의 발전방향 미확정	•베이비 부머의 노동형태 변화 및 성역할 변화의 반영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체도와의 정합성 제고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균형 지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구체화 •퇴직금의 노후소득으로의 활용도 제고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축소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건	•대체적으로 활발한 건강행	•치료위주의 사후적 체계이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예방중심 체계로	•집단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활성화

강한 노후생활	위●낮은 수준의 취업자의 건강실천율 ● 아직은 건강상태 양호	전문의 중심성으로 인한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건강증신사업의 양적 질적 부족 ●건강검진과 치료, 질병관리의 미체계성 및 비효율성	전환 ● 공공보건사업의 보편화 ● 건강검진의 내실화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적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강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계획의 구체화 ●건강증진과 예방이 통합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구축
주거안정	● 주거비 부담 증가 ● 소득 및 가격에 민감한 주택수요 ● 삶의 단계 및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욕구 및 선호발생	●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부족 ● 특화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진행	●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특화된 정책 마련 ●보유주택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주거정책공백기간인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 마련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주택의 활용방안 다양화 ●주택연금의 내실화
노후설계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분한 관심과 생각은 부족 ●영역간 노후준비의 불균형 ●소득수준과 노후준비도 반비례 ●유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이용의사	●분절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 반영 ●서비스의 형평성 구현 ●서비스의 포괄성 제고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노후설계 컨텐츠 개발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전 국민의 노후설계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베이비 부머를 위해 특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 특성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 및 가시화	●정책의 범주 및 경계의 불명확성 ●제품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 부족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민간참여와 기업투자 활성화 부족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미정비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의 균형 ●베이비 부머의 은퇴기와 고령화 시기로 나누어 접근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체계적 장기발전 전략 마련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수립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

참고문헌

. (2003). , 노인복지연구(20), pp.95-116.

, (2003). . 경제발전연구, 9(1), pp.155-175.

, (2010).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0), pp.1-29.

, (2007). : . 공공경제, 12(2). pp.89-118.

, (2009). . 사회보장연구, 25(2).pp.55-85.

, . (2007). : . 공공경제, 12(2). 89-118.

, , (2008). , 경제학연구, 56(3), pp.75-107.

, (2009).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2). pp.99-106.

(2010). , .

(2002). , SERI.

, (2007). 1990 - . 사회복지연구, 34(가을호), pp.5-27.

http://law.go.kr/LSW

, (2009). :
. 한국노년학, 28(3).pp.535-553. ※

(2010). . .

(1998). - , , .
, 36(10), 145-160.

(2008).
. 사회복지정책, 32(0). pp.79-107.

, (2008). ·
. 재정학연구, 1(3). pp.21-52.

(2008). . .

(2011). , 6
pp.24-55. ※2010 2011

(1991). , 대한가정학
회지, 29(1), 203-216.

(2011). , X , .
노인복지연구, 51(0). pp.7-34.

(2010). .
.

(2003). :
, 경제학 연구, 51(4), pp.33-55.

(2005). : ,
, 경제학연구, 53(4), pp.47-65.

(2007). : , 경제학연구,
55(3), pp.47-65.

(2003). 2003 ,
.

, (2010). . .

(2005). :
. .
, (2011). , ,
, 보건사회연구, 31(2). pp.36-59.
, (2007). , X , Y
. 소비문화연구, 10(4). pp.31-53.
(2003). 1 , 1962-1969 , 20
. .
(2002). , 한국사회경제학회, 19(),
pp.267-293.
, (2010).
- . 사회보장연구, 26(1), 33-60.
(2005). . 가족과 문화, 17(1), 115-146.
(2005). 1990 . 경제연구, 23(3), pp.27-53.
(2010). 2010 .
· (2008). .
(2001). . 한국사회학, 35(6). pp.141-168.
, , (2005). , ,
, 192 .
(2000). . 동경제론집, 23(2), pp.61-80.
, (2010). , 2010
, .
, , (2002). .
.
, , , , , (2010).
. .
, , , , (2011).
, .

(2005). , .
, , , (2005). , .
, , , , , (2009).
(work life) , .
(2011). . 사회보장연구,
27(2). pp.357-383.
· Metlife Mature Institute(2011).
.
(2009). CSA1 · , .
, (2010). .
,2010(2).pp.25-74.
(2011). ,
, 2011(4).
, , , , , (2010). ( )
,
(2010).
(2001). : ,
.
, (2004). ·
, .
(2011), “ ”,
.
(2009). . 한국노년학, 29(4).
pp.1445-1461.
, (2010). , .
(2010). , ?
, , , , (2009), :
. .

, , , , , (2010). ,
?
(1995). , 경제발전연구, 1(0), pp.53-76.
, , (1995). ,
,6(0),pp.57-86.
(2010a). , 한국노년학, 30(2),
pp.499-513.
(2010b). , mimeo.
(1999). , 노동경제
논집, 22(2), pp.229-242.
(1998). . WorkingPaper.
, (2002). .
.
, : ,
, 2008.
, , , , , (2009). ,
, , , (2002). . 노인복지정책연구,
11(0). pp.115-186.
· · (2007). “ -
”, 2007
, .
, , (2007). . 사회보장연
구, 23(1). pp.1-26.
(2010). 5 . ·
.
(2011). . ·

(2010). ,
, 2010 , p.2063.
, , , , , (2008).
, .
, ,
, , , , , (2010).
, . .
, , , , (2008). 3
, . .
, (2007). , 사회보장연구, 23(4), pp.83-103.
(2007). .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47-562.
, , , , , , (2004). . .
. , 2010
, (2001). : 1997 .
국제경제연구, 7(2), pp.79-109.
(2011). .
.
(2009). . .
, (2003), ,
(I), , .
, (2005).
. 6 , .
(2001). X , .
, (2008). , .
, , , (2011). ,
.

, (2008),
,
(2010). , ,
2010 , pp.119.
(2011). . , 174, pp.5-10.
, , , , , 7(2011a).
. ,
, , , (2011b) .
, 2011-37-9
, , , , , (2010).
. 2010-30-18.
, , (2010). . .
, (2011). : , , . 노인복지연구, 52(0). pp.305-324.
(2007). -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2010). -
. .
, (2007). . 사회보장연구, 23(3), pp.57-77.
, (2001). , 경제학 연구, 49(3), pp.39-64.
, , , , , (2010).
. ., (147), pp.72-80.
, , (2004).
(2011). OECD 10 -
. 사회복지연구, 42(1). pp.333-370.
(2007). : , 한국

사회복지학, 59(1), pp.199-221.

.(2008). .

.

, (2009).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81-109.

(2002). . 한국노년학, 22(3), pp.223-243.

(2005), 1970 · , (2005 6 22 , www.nso.go.kr)

(2011), 2010 · , (2011 4 19 ,www.nso.go.kr).

(2011), 2010 , (2011 5 31 , www.nso.go.kr).

, , · , 2010

/ , & , 2010. pp.149-171.

, , , , , (2011). Korean BabyBoomers in Transition: .

(2006). ,

.

(2007). .

(2005). , 재정정책논집, 7(). pp.173-199.

, (2003). X . 소비문화연구, 6(3), pp.79-97.

Abel, Andrew(2001). "Will Bequests Attenuate the Predicted Meltdown in Stock Prices When Baby Boomers Reti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89-595.

Allyn & Bacon, 2005.

AoA(U.S. Administration on Aging)(2007). Stratigic Action Plan 2007-2012.

Aquilino, W. & Supple, K.(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53)*, pp.13-27.

Arnold, Suzanne(2005). Ready or Not, Your Retirement Planning Guide(32th edition), *Manpower Education Institute.*

Bammel. G. & Burrus-Bammel, L. L., Leisure & human behavior,

Bass, Sott A.(2000). "Emergence of the Third Age: Toward a Productive Aging Societ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1(2)*, pp.7-18.

Benitez-Silva, H.(2000). "Micro Determinants of Labor Force Status Among Older Americans," mimeo.

Bernheim, Douglas(1998). "Financial Illiteracy, Education and Retirement Saving," In Living with Defined Contribution Pensions, eds. Olivia Mitchell and Sylvester Schiebe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ohn, Henning(2001). "Social Security and Demographic Uncertainty: The Risk Sharing Properties of Alternative Policies," in J. Y. Campbell and M. Feldstein, eds., Risk aspects of investment-based Social Security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03-241

Bouvier, L. F. & De Vita, C. J.(1991). The Baby Boom-Entering Midlife. *Population Bulletin 46(3)*. 2-35.

Brody, E. M., Johnsen, P. T., & Fulcomer, M. C.(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Opinions and preferenc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9,* pp.736-746.

Brody, E. M., Johnsen, P.T., Ful-comer, M. C. & Lang, A. M.(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8*, pp.597-607.

Brokaw, T.(1998). The Greatest Generation. Random House, New York.

Brooks, Robin (2002). "Asset-Market Effects of the Baby Boom and Social-Security Refor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pp.402-406.

Brown & Benchmark, 1996.

Burtless, Gary(1999).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 pp.853-865.

Business Wire(2006). Helicopter Parents: 25% of Parents are Overly Involved, Say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c. Polls College Students about Parental Involvement. All Business.

Campbell, John (2006). "Householf Finance," *AFA Presidential Address*

Cancian, Maria & Deborah Reed. (1999). "The Impact of Wive's Earnings on Income Inequality: Issues and Estimates", *Demography, 36(2), pp.*173-184.

Cancian, Maria, Sheldon Danzinger & Peter Gottschalk. (1993). "Working Wives and Income Inequality Among Married Couples"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a Found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ARP,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romoting Preventive Services for Adults 50-64: Community and Clinical Partnerships. Atlanta, GA: National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Directors; 2009.Available at www.cdc.gov/aging

CollegeGard.com.(2008). College Graduates Moving Back Home in Larger Numbers. 2009. 7.22.

CollegeParents of America(2006). Survey of Current College Parent Experiences:Overview of Results, 2006. 3. 30.

Daly, Mary C. (2004). "Inequality and Poverty in United States: The effects

of Rising Dispersion of Men's Earnings and Changing Family Behavior", *Economica, 73*, pp.75-98.

Danzinger, Sheldon. (1980). "Do Working Wives Increase Family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0),* pp.444-451.

Easterlin, R.A., Schaeffer, C. M., & Macunovich, D. J.(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97-522.

Elia Powers(2007). Involved Parents, Satisfied Students. Inside Higher Ed, 2007. 11.

Freeman, Richard B. (1993). "How much has de-unionization contributed to the rise in male earnings inequality?"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a Foundation.*

Gibson(1993). "The Four Baby Boomer", American Demographics, November 1993, pp.36-40.

Gilford, R. (1986). Marriages in later life. *Generations, 10*, pp.16-20.

Giordano, J. A.(1988). Parents of the Baby Boomers: A New Generation of Young-Old. *Family Relations, 37(4)*, pp.411-414.

Glick, P. C.(1979). The fufure marital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9(3), pp.301-309.

Goodbey, J., Leisure in your life: An exploration,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2003.

Gottschalk, Peter, "Inequality, Income Growth, and Mobility: The Basic Facts", *Journal of Economic Perpectives,* 11(2), pp.21-40.

Gustman, Alan and T. Steinmeier (1999). "Effects of Pensions on Savings: Analysis with Data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50*, pp.271-324

Gustman, Alan and T. Steinmeier (2004), "What People Don't Know about their Pensions and Social Secuiry," In Private Pensions and Public Policies, eds. William Gale, John Shoven and Mark Warshawsk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p.57-125

Harris M. The role of primary health care in preventing the onset of chronic diseas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ifestyle risk factors of obesity, tobacco and alcohol. Commissioned paper for National Preventative Health

Hanson, S.a L., Sauer, W. J., & Seelbach, W. C.(1983). Racial and cohort variations in filial responsibility norms. Gerontologist, 23, pp.626-631.

Hooyman N. R. & Kiyak, H. A.,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Horrigan, Michael W. & Ronald B. Mincy. (1993). "The minimum wage and earnings and income inequality"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a Foundation.*

Ingersoll-Dayton, B., Neal, M. B., & Hammer, L. B.(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3*), pp.262-271.

Iso-Ahola, S. E.,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Iowa: WM. C. Brwon Company, 1980.

Jayson S.(2007). Helicopter parents the topic of landmark study. USA TODAY, 2007. 4. 3.

Juhn, Chinhui & Kevin M. Murphy. (1997). "Wage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pp.72-97.

Karoly, Lynn A. & Gary Burtless, "Demographic Change, Rising Earning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ll-being, 1959-1989", *Demography, 32(3),* pp.379-405.

Keister, L.A. & Deeb-Sossa N.(2001). Are Baby Boomers Richer than Their Parents?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Wealth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pp.569-579.

Lancaster L. C. & Stillman, D. (2010). The M-Factor How the Millennial Generation is Rocking the Workplace, Hapercollins Publishers : New York.

Lerman, Robert I. & Shlomo Yitzhaki.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pp.151-156.

Levenson, R., Carstensen, L.,&Gottman, J. (1993). Long-term marriage: Age, gender, and satisfaction. Psychology and Aging8, pp.301-313.

Logan, J. & Spitze, G.(1996).Familyties : Enduring relations between parents and their grown children. Temple University press.

Lusardi, A. & Mitchell, O.S(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pp.205-224.

Lusardi, Annamaria (1999). Information, Expectations, and Savings for Retirement, in Behavioral Dimensions and Retirement Economics, eds. Henry Aar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and Russel Sage Foundation*

Lusardi, Annamaria (2003). "Planning and Saving for Retirement," working paper, *Dartmouth College*

Lusardi, Annamaria and O. S. Mitchell (2006).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working paper,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ncini, J. A.,&Blieszner, R.(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Researcg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pp.275-290.

Miller, D.A(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 26,* pp.419-423.

Mitchell, Olivia (1988). "Worker Knowledge of Pensions Provis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6,* pp.28-29

Mookherjee, Dilip & Anthony Shorrocks(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368),* pp.888-902.

Moore(2006). "Prohected pension income: equality or disparity for the baby-boom cohort?", Monthly Labor Review, March2006, pp.58-67.

Murphy, J., Concepts of Leisure, Prentice Hall Inc. 1975.

Murphy, Kevin M. & Finis Welch. (1993). "Industrial Change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Skill"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a Foundation.*

Nevidjon, B.(2004). Managing From the Middle: Integrating Midlife Challenges of Children, Elder Parents, and Career.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8(1),* 72-75.

Orther, D.K(1981). Intimate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the family. Reading, MA: Addison-Wesley.

Parker, S.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Service, 1976.

Poterba, James (2001), "Demographic Strucutre and Asset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65-584

Randall, K.(2008). Mom Needs an 'A': Hovering, hyper-involved parents the topic of landmark study.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Riley, M.W., Kahn, R.L. & Foner, A.(Eds.),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New York: John Wiley, 1994.

Roberts, Leisure in comtemporary society, University of Liverpool, 2006

Ross, C., Mirowsky, J., & Goldstein, K. (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1029-1078.

Seelbach,W.C.(1977). Gender differences in ex-pectations for filial responsibility. *Gerontologist, 17*, pp.421-425.

Seelbach, W.C.(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Family Coordinator, 27*, pp.341-350.

Seelbach,W.C(1981). Filial responsibility among aged parents: A racial comparison. *Journal of Minority Aging, 5,* pp.286-292.

Seelbach, W.C.(1984). Filial responsibility and the care of aging family members. pp.92-109 in William H. Quinn and George A. Hughston (eds.), Independent Aging: Family and Social System Perspectives. Rockville, MD: Aspen.

Seelbach, W.C.,&Sauer, W.J.(1977).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morale among aged parents." *Gerontologist 17. pp.*492-499.

Semple, S.(1992). Cibfkuct ub Akzgeuner;s caregiving families: Its dimensions and consequences. Gerontologist/ 32, pp.648-655.

Troll, L. E. Miller, S. J.,&Atchley, R. C.(1979). Families in later life. Belmont, CA: Wadsworth.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82*, pp.8-14.

Watternberg, E. (1986). The fate of baby boomers and their children. Social Work Jan.-Feb. 20-28.

White, L. & Edwards, J. (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evidence from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p.*235-242.

Wyer K(2008). Most college freshmen like colse parental involment, survey

says. UCLA Today, Faculty and Staff News, 2008. 1. 24.

< >

www.gnsenior.org

(2010). http://www.familynet.or.kr

http://law.go.kr/LSW

www.kosis.kr

www.nps.or.kr

www.rigec.or.kr

www.koreapeople.co.kr

www.familynet.or.kr

www.nile.or.kr

www.kordi.or.kr

(2010). www.kauce.or.kr

www.gnsenior.org

부 록

부록 1 포럼 위원 명단

성명	소속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손명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송양민	가천의과대학 보건대학원장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원권	우송대학교 부총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미래학자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